

국립국어원 2007-01-42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0252-000099-01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책 임 연 구 자 : 안 상 수

국립국어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국립국어원의 국고 보조금 지원으로 수행한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007년 12월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 경 애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안상수  
공동연구원 :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 목 차

1. 연구개요 .....	1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나. 연구 내용 .....	2
다. 연구 방법 .....	3
라. 연구의 범위와 한계점 .....	6
2. 선행 연구의 고찰 .....	9
가. 언어와 성차별 .....	9
나. 언어와 사고 .....	13
다. 대중매체와 언어 .....	15
라. 언어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	22
3. 사례조사 도구 및 방법 .....	25
가.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분류 및 개념 .....	25
나. 조사 도구 .....	28
4. 사례조사 결과 분석 .....	35
가. 전체 현황 .....	36
나. 매체별 사례 수 및 현황 성차별적 표현 유형 .....	55
다. 소결 .....	76
5. 대중매체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사례 .....	79
가. 유형별 대표적 사례 .....	79
나. 내용 전체가 성차별적인 대표사례 .....	94

6. 결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 .....	111
가. 결 론 .....	111
나. 성평등한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 .....	114
참고문헌 .....	123
부록1. 사례조사 결과 종합(통계) .....	127
부록2. 인터넷 뉴스 출전 .....	131

## 표 목 차

<표 1> 성차별적 언어 사용 사례의 출원 매체와 표현구조 단위 .....	35
<표 2>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	36
<표 3> 성차별적 표현의 매체별 유형 .....	41
<표 4> 매체별 성차별적 표현의 세부 유형 .....	42
<표 5> 매체별 성차별적 표현의 1~3순위 세부 유형 .....	43
<표 6> 표현구조 단위별 성차별적 표현 유형 .....	44
<표 7> 성차별적 표현 유형에 따른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 비교 .....	46
<표 8> 매체별 성차별적 표현 유형에 따른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 비교 .....	47
<표 9>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의 성차별적 표현 유형 비교 .....	48
<표 10> 매체별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의 성차별적 표현 유형 비교 .....	50
<표 11>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 및 유형별 유인가 비교 .....	52
<표 12> 매체별,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 유인가에 따른 차별유형 비교 .....	53
<표 13> 신문 기사의 분야별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 수 .....	56
<표 14> 신문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유형 .....	57
<표 15> 신문 글 범주별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	58
<표 16> 신문 글 범주별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	60
<표 17> 신문기사의 분야별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	61
<표 18> 방송 뉴스의 성차별적 표현 사례 수 .....	63
<표 19> 방송의 성차별적 표현 유형 .....	64
<표 20> 방송 프로그램 형태별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	65
<표 21>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 및 방송 프로그램 형태별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	66
<표 22> 방송 뉴스의 분야 별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	68
<표 23> 인터넷 뉴스의 분야별 성차별적 표현의 사례 수 .....	69
<표 24> 인터넷의 성차별적 언어표현 유형 .....	70
<표 25> 인터넷 글 범주별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	71
<표 26> 여성/남성 차별 표현 및 인터넷 글 범주별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	74
<표 27> 여성/남성 차별 표현 및 인터넷 뉴스 분야별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	75
<표 28> 유형별 대표적 성차별 언어 표현 사례 .....	92

## 그림 목 차

<그림 1> 성차별적 표현의 주요 유형 .....	38
<그림 2> 성차별적 표현 유형의 매체간 비교 .....	42
<그림 3> 성차별적 표현 유형의 표현구조 단위간 비교 .....	45
<그림 4> 성차별적 표현 유형에 따른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 비교 .....	46
<그림 5>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의 성차별적 표현 유형 비교 .....	48
<그림 6> 매체별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의 성차별적 표현 유형 비교 .....	51
<그림 7> 신문의 성차별적 표현 사례의 글 범주 분포 .....	56
<그림 8> 신문의 글 범주별 성차별적 표현 유형의 비교 .....	59
<그림 9> 방송의 성차별적 표현 사례의 프로그램 형태 분포 .....	62
<그림 10> 방송 프로그램 형태별 성차별적 표현 유형간 비교 .....	65
<그림 11> 인터넷의 성차별적 표현 사례의 글 범주 분포 .....	69
<그림 12> 성차별적 표현 유형별 인터넷 글 범주간 비교 .....	72

## 1. 연구개요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방송, 신문, 인터넷과 같은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사례들을 파악하여 이를 양적 혹은 질적으로 분석하고, 이들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 및 성평등한 대안적인 표현들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표적인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언어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형성되며,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양식 그리고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한 사회에서 구사되는 언어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의식과 사고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언어는 ‘의식을 담는 그릇’이라 할 만하다. 이렇듯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언어를 통해 그 사회를 이해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가진 지위와 역할 면에서 여전히 불평등적인 구조를 내포하고 있으며, 성차별적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성 불평등적인 사회구조는 언어에서도 역시 반영되어 나타난다. 특히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언어는 성불평등적인 사회구조를 유지 지속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차별성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 간 혹은 세대를 거쳐 전이시키는 기능까지도 하는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들에 주목하고 있다. 대중매체는 현대인의 생활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과 방송처럼 전통적인 매체인 인터넷처럼 새로운 매체인 현대인은 대중매체를 일상적으로 접하며 이를 통해 세상을 보게 된다. 성평등한 사회를 주창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성에 대해 이미 경고해 왔다.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성은 무엇보다 성별 고정관념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있다. 이는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역할을 정형화하여 남성에게 주도적인 역할을, 여성에게 보조적인 역할을 부여한다거나 허구적인 장르에서 성차별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성차별적인 메시지는 드라마의 내용이나 인물구도를 통해 전달될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언어를 통해 전달된다. 성차별적인 표현은

## 2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노골적이고 명백한 것에서부터 은밀하고 암시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암묵적인 성차별 표현은 부지불식간에 성차별적 의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할 수 있다.

대중매체 언어의 성차별성은 구체적인 성차별적 단어의 사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언어의 구조에도 있다. 성차별적 구조란 특정 단어 자체가 반드시 성차별적이라기보다는 사용되는 형식, 즉 특정 속성 관련 단어를 특정의 성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 고정관념적이거나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남성의 경우를 기본으로 전제하고 여성은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하는 것이나 각 성에 따른 고정관념에 들어맞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번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에서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사례조사는 대중매체에서 통용되는 성차별적 단어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현구조까지도 살펴봄으로써 대중매체 언어 속에 잠재하는 성차별성을 감지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례조사를 통해 성평등한 대안적 언어 표현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그 개선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대중매체에서의 언어적 차별성에 대한 보다 실효성이 있는 개선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변화와 언어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남성 중심적인 구조의 대중매체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한, 성평등한 언어적 대안들이 정착되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언어적 개선과 함께 사회·문화적인 미디어 환경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신문, 방송, 인터넷 상업사이트 등의 보도와 광고에서 사용되는 성차별 언어를 조사하여 그 사례들을 발굴하고, 문제가 되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대중매체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혹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성평등한 언어 표현을 개발하는 것과 아울러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데 두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매체에서의 성평등성을 높임과 동시에 대안적 언어 표현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에 확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나.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대중매체에서 사용되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유형화하여 개념적으로

로 정의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조사도구의 지침에 따라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대안적 언어 표현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규정 : 매체에서 표현되는 성차별적 언어를 유형화하여 그 기준과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 ② 성차별언어 표현 사례 조사도구 개발 : 조사된 성차별적 표현을 유형별 분류하기 쉽고, 매체의 종류, 분야 등의 출처에 관한 사항과 성차별적 단어와 문장과 같은 표현 단위구조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사지 및 지침을 포함한다.
- ③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 조사 : 가장 대중적인 매체라 할 수 있는 신문, 지상파 텔레비전, 인터넷의 기사, 광고, 프로그램을 모니터하여 성차별적 언어 표현, 고 맥락과 구조 등을 파악한다.
- ④ 양성평등한 대안적 언어 표현 및 정책 개발 : 대중매체에서의 언어적 성차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과 성평등한 대안적 언어 표현들을 제안한다.

## 다. 연구 방법

### 1) 문헌조사

성차별적 언어와 관련된 사회언어학 및 페미니즘 언어 연구 등의 기존 문헌들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성차별적 언어의 개념 규정 및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며,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도구제작에 참조하였다.

## 2) 성차별 언어 표현 사례조사

### 가) 조사대상

조사 대상은 신문, 지상파 텔레비전, 인터넷의 세 가지 매체로 한정하였다. 지상파 텔레비전은 아직 가장 대중적인 매체이고 신문은 의사결정자들이나 여론주도층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인터넷은 젊은 층의 여론 형성에 과급효과가 큰 점에서 선택하였다. 신문은 일간신문들로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이었으며, 방송은 KBS1, KBS2, MBC, SBS 등 4개 지상파 방송채널이었고, 인터넷 상업사이트의 경우는 인터넷 검색순위 상위 3개 사이트로서 네이트(<http://www.nate.com>), 네이버(<http://www.naver.com>), 다음(<http://www.daum.net>)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분야는 신문의 경우 소설을 제외한 기사, 의견, 광고를 그리고 방송의 경우 드라마를 제외한 뉴스, 시사교양, 연예오락, 광고를, 인터넷의 경우, 뉴스, 정보, 광고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소설과 드라마의 경우 창작을 위한 구성장치라는 차별적 표현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신문 : 일간지 3종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 소설을 제외한 기사, 의견, 광고를 조사함.
- ② 텔레비전 방송 : 4채널 (KBS1, KBS2, MBC, SBS)
  - 드라마 제외한 뉴스, 시사교양, 연예오락, 광고를 조사함.
  - 주시청시간대의 방송 프로그램들을 실시간으로 조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녹화와 다시보기 기능을 활용함.

주중: 오후 7 - 11 시

주말: 오후 6 - 11 시
- ③ 인터넷 : 3사이트(검색 순위 상위: 네이트, 네이버, 다음)
  - 뉴스, 정보, 광고를 조사함
  - 1일 1회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해당사이트에 접속하였을 때의 첫 화면을 캡처하였으며 하이퍼텍스트의 1회 클릭 시의 내용.

## 나) 조사기간

조사는 2007년 9월 3일부터 2007년 10월 7일까지 7일 단위의 격주 간격으로 3주(총 21일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본부’ 소속의 전문 조사 요원들이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요원들은 사전에 성차별 언어 표현의 개념 및 유형화, ‘조사도구의 작성 지침’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았으며, 조사 진행 과정에서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분류가 애매하거나 의문이 생겼을 경우 연구진 및 조사요원들 간의 상호 논의가 가능한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kwdisc>)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 3) 자문회의 및 토론회

자문회의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개념 및 유형 분류, 조사도구 개발 그리고 대중매체의 성차별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양성평등한 대안적 언어 표현 개발을 위한 2회의 전문가회의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가) 1차 자문회의

- ① 목적: 모니터 도구 검토
- ② 전문가: 신문기자, 방송기자, 인터넷 운영자, 국어연구자

### 나) 2차 자문회의

- ① 목적: 성평등한 대체언어 개발
- ② 전문가: 국어연구자

### 다) 토론회 개최

- ① 목적: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개선을 방안 마련
- ② 전문가: 신문기자, 방송 PD, 국어연구자, 여성단체

## 라. 연구의 범위와 한계점

본 연구의 목적은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사례들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문제가 되는 성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들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성별언어 및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를 조사하기 위한 도구를 제작하였다. 이 도구제작은 현존하는 성 불평등적 언어 표현 사례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서도, 사례를 기록하는 조사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인지적 용량과 지각처리 범위를 고려하여 되도록 쉽고 간편하게 유형들을 분류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사례조사의 '포괄성 및 정밀성'과 '편리성'이라는 서로 충돌되는 목표를 고려하게 됨에 따라, 이 도구가 보다 다양한 기준으로 유형화되고 분류될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언어 표현상의 성차별성이 실제로 존재함에도 누락될 수 있는 여지 또한 남아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여지와 한계는 본 연구가 가진 범위이자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파악하고 있는 제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도구가 성별언어와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성별언어와 성차별적 언어 표현은 형식상으로는 별개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도구제작 및 조사 수행과정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이를 정확히 구분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예컨대, '아들딸', '아버지 어머니', '부모', '장인장모'와 같은 표현은 단지 성별을 나타낼 뿐이고, 또한 언어구조 상 그리고 순서상으로도 누군가가 앞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성차별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점은 만약 언어발생 시초부터 남녀가 평등한 관계였다면, 이들 성별언어의 표기방식은 남성이 표준으로 받아 들여져 앞선 순서로 제시되고 여성이 보조적으로 항상 뒤에 호명되는 정형화된 형식의 언어로 발전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한다면 성별언어에서도 성차별언어와 같은 명백한 성불평등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불평등적 의미를 어느 정도 내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단지 아무런 차별적 의미를 갖지 않는 사소한 기준(중성적인 집단명칭)에 의한 집단구분이 집단

서로 간의 차별을 낳는다는 Tajfel(1974)의 연구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둘째, 성차별적 언어 표현들 가운데,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구분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여성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는 표현들로 간주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 전반을 모두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이들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조사인력과 조사의 설계 그리고 시간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매우 이질적인 매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체간의 직접적인 양적 비교는 의미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이 된 해당사 간의 비교도 총량을 직접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별 비교와 남성 차별적 표현 그리고 여성 차별적 표현들을 대비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을 밝혀 둔다.

## 2. 선행 연구의 고찰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위해서 성차별과 양성평등의 개념을 대비하여 설명하는 것이 유용하다. 우선, 양성평등이란 ‘생물학적 성(sex)’이 다르다는 이유로 고정관념이나 부정적 감정, 고정관념, 차별적 태도 등 각종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흔히 남녀평등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남녀평등은 남녀차별이라는 차별적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인 반면, 양성평등은 남녀 공존이라는 화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즉 양성평등은 남녀의 동등한 대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생물학적 성(sex)은 생득적으로 타고난 성을 의미하고, ‘사회적 성(gender)’은 사회문화적 기대의 영향을 받아 사회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획득된 성정체성과 성역할 행동 및 신념들을 말한다(줄리아 우드, 2006). 이러한 정의에 근거한다면 성차별적 언어 표현이라 함은 타고난 ‘생물학적 성(sex)’이나 ‘사회적 성(gender)’의 차이에 근거하여 부정적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비하)적인 언어 표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이수연, 안상수, 박경희, 강혜란, 윤정주, 2006). 선행 연구의 고찰 부분에서는 대중매체에서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개선에 목표로 두고, 성차별적 언어의 발생원인과 대중매체와 성차별 언어의 관계, 대중매체가 성불평등적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성평등적 언어 표현의 확산에 있어서의 대중매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가. 언어와 성차별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서로의 의사소통은 물론 각자의 경험과 감정을 전달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간다. 이렇듯 언어는 개인의 사고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와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수연 등, 2006).

사회언어학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연령, 인종, 사회계층, 출신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음색이나 음의 높낮이와 같이 생물학적 원인에서 발생하

는 남녀의 언어의 차이를 성차이어라고 하는 반면에, 출생 시의 생물학적 성을 기초로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기대되는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을 부여 받게 됨에 따라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높은 지위의 남성을 기준으로 낮은 지위의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을 드러내는 성차별어로 나누어진다(최혜정, 1998). 즉 전자인 성차이어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성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말하는 것을 것으로서 여성과 남성이 선택하는 단어나 발음, 문장구조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느냐의 문제이고, 후자는 단어나 어휘 등, 언어 자체에서 나타나는 성 불평등적 요소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성차이어에 대한 논의는 배제하고, 언어 자체의 문제인 성차별어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 1) 페미니즘 언어연구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차별적 언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사회·문화적 영향에서 찾고 있다(김종수, 2004; 이춘아·김이선, 1997; 정상현, 1993; 최용선, 2003; Archer & Lloyd, 1985; Broverman, 1972; Jespersen, 1922; Penelope, 1990; Trömel-Plötz, 1982; Lakoff, 1973). 이러한 시각이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페미니즘 언어학의 공헌이 컸다. 초기 페미니즘 언어 연구에서는 ‘성차별적 문화의 표현물로서 언어’를 조명하고 있다. 성차별적 사회에서는 여성이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만큼 언어 역시 필연적으로 차별을 표현한다고 보고 있다. 남성대표형 명사나 호칭의 불균형 등에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가 반영되며, 여성에 대한 정형화된 표현이나 남성/여성에 대한 어휘에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 경멸적 의미가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페미니즘 연구는 언어를 통해 여성의 행위가 가부장제 문화에서 어떻게 통제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이어와 같이 성별간의 특징적 차이에 초점이 맞추어짐에 따라 성차별과 언어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문제점과 성별 이분법적인 전제는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변화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다(이춘아·김이선, 1997).

1980년대를 기점으로 페미니즘 연구는 이들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언어의 차별성을 사회 실천적인 개념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페미니즘 연구는 전반적인 여성차별체계에서 언어, 사회적 상호작용, 사회 구조, 문화현상을 통합해 파악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가 ‘사회적 성’의 구성과 재생산에 본질적으로 개입하고, 이 과정에서 언어의 성차별적 의미, 성차별적 언어가 구성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의 페미니즘 연구는 언어가 성차별성을 띄게 되는 과정이 여성성, 남성성에 대한 가치와 태도, 성역할 규범, 성별에 따른 권력관계 등이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 2) 성차별적 언어 표현 양상

언어에서 가부장제적 남성중심의 사회·문화적 요인은 남성을 표준형으로 여성은 비표준형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 중심적인 문화권에서는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영어에서는 he가 인간이라는 human을 대신하는 총칭적 언어 형태(한 성으로 양성을 포괄하는 언어)로 사용됨으로써 남성형이 언어의 표준이 되고 있다. 우리말의 경우에도 ‘건국의 아버지’, ‘업계의 맏형’과 같은 예는 여성을 배제하거나 포괄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대한민국 헌법 제2장 39조의 경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어 2항에서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국민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임에도 여기서는 남성만을 의미한다. 대중매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사내용 가운데 “사람들(people)은 여론조사보다도 자기 아내의 의견에 좌우되는 듯하다”라는 표현이 있다. 이 기사 내용에서 ‘사람들’은 곧 남성은 지칭하는 것이다.

성차별적 표현의 또 다른 예로서, 애국자들은 남성위주로 명명됨으로서 ‘의사, 열사’라고 하는 반면, ‘유관순 열사’는 ‘유관순 누라’라는 명명으로 일반화해 화자가 남성임을 전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남성 못지 않은’,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서’, ‘여성 최초의 ○○○’라고 수식함으로써 여성이 남성보다 연약함을 전제하거나, ‘생존자 14명 중에 3명은 여성이었다’, ‘최근에는 음주 운전자 중에 여성이 많아진다’라는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생존자와 음주운전자는 남성을 전제로 하는 인식이 반영된 차별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민현식, 1998; 박육현, 1998). 호칭의 순서에서

도 남성을 표준으로 하는 남성중심의 언어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영어의 경우 ‘Adam and Eve’, ‘boys and girls’에서 보듯이 남성형이 여성형을 선행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녀공학’, ‘남녀노소’, ‘신랑신부’와 같이 남성을 앞에 두고 여성을 뒤에 둔다. 대조적으로 비하적인 표현으로 쓰일 경우에는 ‘계집사내’, ‘연놈’과 같이 여성을 앞에 두어 남존여비 사상을 드러내기도 한다(최혜정, 1998).

민현식(1998)은 일상 대화에 대한 채록, 집단면접 및 설문조사 등의 광범위한 조사를 통한 연구에서 성차별적 표현을 어휘 차원과 문장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우선 어휘차원의 여성 대상의 차별적 표현들로서 ‘처녀성, 올드미스, 요부, 토라지다, 앙큼하다’와 같은 부정적 가치의 어휘들이 많았다고 한다. 문장 차원의 차별적 표현들로서는 가사 책임론(밥도 못하냐), 외부활동 제한(여편네가 왜 그리 싸다냐), 결혼지상주의(여자가 무슨 공부야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남성의존(그러면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아), 여성 천대(여자가 무슨, 남자도 아닌게 뭘 한다고), 여성 속성 강조(여자는 단순해, 여자는 속이 좁잖아), 여성 품행 강조(여자 앉은 자세가 그게 뭐니, 여자들 교실이 왜 이래), 여성 침묵 언행 강조(여자가 못하는 말이 없어), 외모 강조(못 생긴 게 공부라도 잘 해야지), 여성 소유물화(넌 내거야), 여성 시중 강요(미스 김 커피 한 잔, 여자가 따라야 술맛이 좋다).

언어의 성차별성은 비단 여성에게만 국한된 문제일 수는 없다. 남성들 역시 우리 사회의 정형화된 남성 이미지로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과 다름없는 희생을 요구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적 언어가 유지, 강화되고 더욱 큰 힘을 발휘하는 이면에는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지나치게 편협하여 완고한 탓도 있고, 남성들의 행동이 부분적으로 그것을 지속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들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권력구조를 유지하는 데 일조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다시피 성평등적 언어는 양성 모두에게 평등한 언어를 지향하는 것이다. 남성 역시 현재의 성불평등적 환경에서 사회화되고 있고(황성철, 1997), 남성들이 가진 성역할 고정관념 또한 이전의 관행과 관습을 통해 세대를 거쳐 전이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성이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의 희생자라고 한다면 남성 역시 전통적 남성의 성역할로 인해 고통받아온 대상일 수 있다. 예컨대,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운다.’

‘남자는 용감해야 한다.’ ‘가정을 이끌어 가야한다.’ 등 남성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책임을 나누는 것조차 무책임한 행동인양 인식되어왔다. 또한 남성들은 영웅적인 남성상으로 정형화되고, 슈퍼맨이 되기를 강요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남성들에 대한 여성들의 기대는 성차별적 언어로 표현되어, ‘남자가 그것도 못해’, ‘남자가 약해 빠져서’, ‘남자가 속이 좁아서’와 같이 남성답지 못함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현식(1998)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 차별 표현들 가운데는 대장부 요구(남자가 제제하게), 능력 요구(남자가 그것도 못하냐), 남성 역할 고정화(남자가 부업에 들어가면 큰일 못해), 남성 속성(남자란 것들은 다 저래), 남성 언행(남자가 왜 이리 입이 가벼워), 남성 혐오 용모(배 나온 남자는 싫어) 관련의 남성 차별적 표현들이 발달해 있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양성 모두의 그릇된 성역할 고정관념화를 극복하고 전통적 가부장적 사회관계 속에 내재하는 사회적 성(gender)에 근거한 모든 제약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을 목표로 여성 및 남성에게 가해지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들에 주목하였다.

## 나. 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혹자는 언어와 사고를 동일시하는 입장에 있는가 하면 혹자는 근원적으로 별개라는 입장을 취하는 이가 있다. 언어와 사고가 상호작용관계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Piaget와 같이 사고의 우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Vygotski와 같은 이는 언어 우위의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이들 가운데 러시아의 교육심리학자인 Vygotski(1962)는 우리의 사고(思考)는 생득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경험이 내면화된 결과일 수 있으며 이러한 내면화를 돕는 매개체가 바로 언어(言語)임을 주장한 바 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동의 사고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 미디어 그리고 우리가 동일시하는 참조집단에서 흔히 통용되어지는 성차별적 언어가 이를 습득하는 아동의 인지적 사고에 영향을 미쳐 부정적인 성역할 개념과 불평등적인 사회적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에서의 성차별성이 지속되는 한

그리고 아동이 그런 성차별적 언어를 내적인 언어(inner speech)로 내면화하여 사고체계를 발달시키는 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사고가 영속되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갖게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비단 언어 습득기에 있는 아동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든 역시 언어는 그 시대의 사회구조와 사람들의 생각 및 태도가 총체적으로 녹아 있는 것이며, 사회문화적인 산물로서 언어는 현재에 통용되고 있는 지배적인 정신구조와 이념을 고착시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들을 내 놓고 있다(이정복, 2007). 언어는 사회와 계층 및 소속집단의 사회·문화적 상징이며, 그 사회와 계층 및 소속집단의 의식적·무의식적 사고체계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성차별적 언어 표현이 나타나는 각 사회와 계층 및 소속집단에서 형성된 담론과 그 속의 의식적 무의식적 체계에는 성불평등과 여성에 대한 억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윤운영, 2003).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사회와 언어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 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가 사회언어학이다. 언어가 인간 사고의 한 수단이고 의사소통의 대표적인 도구라는 점에서 언어와 사회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음을 전제할 수 있고,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생활양식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에 반영되어 있고 그 사회의 변화가 그들의 언어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는 이러한 사회의 제반 현상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현상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며, 나아가 거꾸로 그 사회 현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특징짓는 요소의 하나로서 언어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사고 양식에 미치는 의식적 무의식적인 영향 또한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최혜원, 1988).

예를 들어 ‘나는 검사의 딸이다’, ‘나는 의사의 아들이다’라는 문장을 들었을 때, 검사나 의사인 아버지가 먼저 연상되고 검사나 의사인 어머니가 연상되기 어렵다면, 이는 특정 분야의 직종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결과로 사회가 그 구성원의 사고와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검사나 의사인 어머니를 연상하기 어려운 경우, 그는 언어 사용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여’ 검사나 ‘여’ 의사라고 유표적인 접두사를 사용하여 성별을 표시할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고정관념이 강하여 특정 성과 직업의 연관관계를 정형화하여 사

고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 두 경우 모두 동일한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문제는 구별은 때로 필요하되, 유표어적인 표시가 왜 여성의 경우에만 필요하냐는 데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의 성별에 대한 통념이 언어에 반영되고 있고, 그 구성원의 사고양식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Bernstein(1980)에 따르면 사회화과정은 자신이 속한 문화적 환경에 동질성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생물학적 존재가 특정한 문화적인 존재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사회화과정에서 개인은 그 문화 속의 사회적 동질성, 사회적 행위, 역할의 인식 그리고 나아가서 언어적 규칙 등을 내면화하게 된다. 이와 같이 언어와 사고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성차별적 언어는 곧 성편견적인 사회문화의 소산인 동시에 성불평등적인 사회문화를 재생산해 내는 모태가 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현실이 성차별적 언어를 생산해 내는 가 하면 성차별적 언어가 성불평등적인 현실을 생산해 낸다고 하겠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우리가 속한 사회문화적 사고체계가 있고,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사용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의식체계가 사회화되어지고, 또 이러한 사회화과정을 통해 성불평등적인 사회문화적 구조를 지속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 다. 대중매체와 언어

언어와 사고간의 관계가 유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곧 우리의 사고를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다시 말해 우리 사용한 성차별 언어가 성불평등적인 성역할 규범과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대중매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다양한 미디어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고, 이들 미디어의 급속한 발달과 확장으로 시공간적 제약들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모습의 상징적 이미지와 언어들이 수용자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달자들이 갖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가치체계를 담은 메시지들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들 메시지들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일대일 대면적 커뮤니케이션

니케이션에 비할 바 못된다고 하겠다.

이수연·김양희(2001) 그리고 이수연(2002)의 미디어 모니터링 연구들에 따르면, 매체들은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등장인물의 경우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거나 여성이 남성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많아서 남성 우월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디어에서는 성차별적인 장면과 언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가부장 중심성, 여성의 성적 대상화,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설파, 가사노동의 평가절하, 일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 여성에 대한 비정상적인 묘사 등이 많았다. 또한 TV 광고의 성차별성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보면, 광고 내용 중 상당수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시키고 있었으며, 기존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TV 광고가 여전히 성차별적임을 시사하고 있다(이수연, 2003).

광고에 나타난 성차별적 표현에 관한 이옥련(1994)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의 성역할 고정화나 여성을 비하하는 성차별적 표현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고, 차현실(1999)에서는 광고문을 통해 여성과 물건의 동일화나 여성 육체의 감각화를 조장하는 표현이 많았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대중매체에서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유형별로 분석한 이수연·안상수·박경희·강혜란·윤정주(2006)의 연구에서는 성별 간 고정관념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세부유형별로는 호칭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여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각 매체별 21일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인터넷에서의 성차별적 표현이 가장 많은 3,481개의 성차별 사례가 발견되었고, 신문의 경우 2,268개의 사례가, 방송의 경우도 1,821의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발견된 성차별 사례의 대부분은 남성보다는 여성을 대상으로 집중되고 있어서 대중매체에서 통용되는 언어의 성별 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아동을 대상으로 대중매체의 영향을 다룬 많은 연구들은 아동들이 인터넷 게임, TV 등에 나오는 주인공을 선망하여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주인공들은 그 사회에 정형화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인공들의 역할을 분석해 보면, 남자는 왕, 군인, 기술자, 탐험가 등 다

양한 인물로 등장하는 반면 여자는 공주, 예술가, 교육자 등 훨씬 한정된 인물로 나온다. 주인공의 성격특성에 있어서도 성별구분이 뚜렷한데, 남자는 용기, 정의, 애국, 고난 극복이, 여자는 효, 사랑, 권선징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남자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이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인물로 묘사되는 반면 여성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며 의존적인 인물로 그려져 사건의 전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인물로 비춰진다. 설사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으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괴팍한 성격을 지녔거나 건방지고 이기적 부정적인 이미지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강정희, 1999; 노미영, 2005 재인용). 미디어에 의한 성역할의 사회화는 매체 속에서 묘사되는 아동들이나 성인 모델들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Shaffer, 1999/ 2000), 특히 TV를 많이 보는 아동은 TV를 적게 보는 아동에 비해 성유형화된 활동을 더 선호하고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정형화된 고정관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McGhee & Freuh, 1980; Signorielli & Lears, 1992). 그러나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아동들의 지각은 변할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남녀차별이 적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보는 아동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정형화된 성 고정관념을 더 적게 나타냈다고 한다(Rosenwasser, Lingenfelter, & Harrington, 1989).

### 1) 대중매체와 성역할 고정관념

대중매체가 성역할 고정화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심각하게 대두되는 문제는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사회인식이 매우 부당하게 정형화되어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이 어느 한 성에 강요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예컨대 TV 매체가 만들어내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검토한 박은희(1999)의 연구결과를 보면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영웅이 될 확률이 적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뒤떨어진 존재로, 직장에서는 하위직에 근무하고 폭력에 위협을 받는 존재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드라마, 뉴스, 광고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와 같이 미디어의 이미지가 은연중에 반복적으로 계속됨으로써 결국 자연스럽게 대중은 남녀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아가 아이들에게까지 평등한 남녀관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대중매

체가 현실세계의 남녀 불평등 구조를 확인시키는 기능, 혹은 조장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들은 하나의 성별 집단으로 범주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성별 범주에 대한 역할 기대나 신념 즉, 고정관념에 따라 그 대상에 대한 정보처리과정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 때 성역할 고정관념은 복잡한 정보처리를 빠르고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정신적 지름길로서의 기능을 한다. 즉 고정관념은 여성에 대한 기존의 지식으로서 고정관념에 의거하여 실제 접하는 여성에 대한 정보를 단순화시키므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여성의 행동에 대한 자동화된 사고를 불러일으키며, 빠르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이해하도록 하며 또한 해석을 돕는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정관념이 정보처리과정을 단순화시켜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는 기능을 하는 대신에 개개인의 고유한 정보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적 지식에만 근거하여 평가에 오류와 편향을 불러일으킨다. 예컨대,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중매체에서 이런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여성이나 정보에 더 빨리 주의를 기울이고, 여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사고나 기억을 자동적으로 활성화시켜, 부지불식간에 그 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반대로 고정관념과 불일치하는 여성을 접하게 되더라도, 주의를 적게 기울이거나, 정밀한 정보처리를 하기 보다는 단지 성별 범주단서에만 근거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김혜숙, 1999).

고정관념의 자동적 활성화에 따른 극적인 결과 중에 하나는 사고체계 내에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의 활성화는 전혀 무관한 장면에서 차별적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남자 대학생으로 하여금 여성을 모델로 한 선정적 광고를 보게 한 다음,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에 참석하게 한 결과 이 남자 대학생은 토론에 참여하는 여자 대학생에 대해 성적인 관심을 더 많이 나타냈고, 토론과 관계없는 행동을 더 많이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남자 대학생은 선정적 광고에 노출이 자신의 이러한 행동을 나타나게 한 원인임을 의식적으로는 전혀 회상하지 못하였다. 이 결과는 부정적 고정관념이 자동적 활성화가 후속 행동에도 암묵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들 연구 결과는 대중매체에서 성차별적 이미지나 성차별 언어가 남성의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자동적으로 활성화시켜 유지·지속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고정관념의 활성화가 부정적 성편견이나 차별적 행동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Devine(1989)은 인종 고정관념 연구에서 실험 참여자가 의식하지 못 할 만큼 아주 빨리 제시하는 역하자극을 통하여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점화(priming)시키고 난 후, 중립적 인물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때 흑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활성화 시킨 조건에서는 편견이 낮은 사람이나 편견이 높은 사람이나 모두 중립적 인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정관념의 자동적 활성화과정은 편견이 높은 사람이나 편견이 낮은 사람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실험에서 이 두 유형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역하자극의 점화가 아닌 지필검사(의식적 과제)를 통해 흑인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였을 때, 편견이 높은 참여자는 점화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흑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편견이 낮은 참여자는 부정적 평가를 보이지 않았다. Devine은 이 결과를 고정관념 활성화의 통제적 처리과정과 자동적 처리과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부정적 고정관념 태도가 의식적 통제 밖에서 자동적 과정이 먼저 작동하고, 이어서 자신의 이러한 자동화된 과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편견이 낮은 사람은 의식적 통제 밖에서는 부정적 고정관념이 자동적 활성화 반응을 일으키지만, 의식적 노력으로 부정적 편견반응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편견이 높은 사람은 의식적 노력으로 부정적 편견반응을 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된 부정적 고정관념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부정적 고정관념의 억제라는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를 남기고 있다. 즉 사람들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자동적인 과정을 통해 활성화가 일어나더라도 의식적 노력을 기울이게 하거나 통제적 처리 가능성을 높이 방략을 도모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성차별적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고정관념은 많은 경우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정보를 비일치 정보보다 더 잘 기억하도록 해 주며, 또한 이러한 일치정보의 원인을 여성의 성격이나 성향적인 특성에다 원인을 돌리게 함으로써 보고자 하는 정보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확인적 편향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고정관념이 재확인되고 유지 지

속되도록 함을 보여 준다. 부정적 고정관념의 더 파괴적인 영향력은 자기이행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효과 이다. 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고정관념이 여성으로 하여금 실제로 고정관념이 실현되도록 행동하게 하고 또한 여성의 자기 개념을 남성의 고정관념에 맞추어 변화되도록 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예컨대 대중매체에서 여성이 수동적이고 가사일에 적합하다고 하는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언어를 반복적으로 노출시킨다면 이러한 대중매체의 영향은 여성들로 하여금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수동적이고 가사에 적합한 행동을 발달시키도록 만들고 그 결과 고정관념은 재확인되고 강화되며 또한 여성은 수동성과 가사일에 대한 가치를 자기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한편 Swann(1990)에 따르면 고정관념의 자기이행적 예언의 효과는 여성이 성평등적인 자기개념을 불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남성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확고하고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한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성차별적 언어가 성역할 고정관념을 통해 여성을 자기이행적 예언의 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두 가지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즉 한 가지는 여성으로 하여금, 확고한 양성평등적 자기개념을 갖도록 하는 의식화를 통해 이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남성들로 하여금 성역할 고정관념이 비합리적 정보처리과정의 결과임을 일깨우는 사회·문화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 2) 성평등 언어 확산과 대중매체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미디어의 역할을 빼 놓고서 이해하기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대중매체는 ‘사회적 경험의 중요한 상징’이라는 점에서 지식 생산 및 재생산 과정을 통하여 이것을 전달하는데 매우 탁월한 제도이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대중매체가 생산해 내고 전달해 주는 지식들로 사회현실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대중매체는 다른 어떤 사회 제도보다 일상성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현실 인식에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또한 대중매체는 객관적인 사회현실과 우리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중재해 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직접 경험할 수 없거나 직접 경험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회현실을 접하고자 할 때 흔히 대중매체를 활용하곤 한다. 다시 말해서 대중매체는 사

람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쉽게 이해 할 수 없는 경험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성격 때문에 대중매체를 사회의 거울 또는 여론형성의 장이라고도 한다(MacQuail, 1987; 박정숙, 2001에서 재인용).

이러한 점 때문에 대중매체는 사회변화의 첨병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곤 한다. 더구나 대중매체의 사회현실 구성의 기능은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 주는데도 많은 책임이 거론되면서도 한편으로는 현실 세계에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서도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 언어를 줄여가는 노력 이상으로 대중매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대중매체가 만들어 내는 이미지가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의 사고나 행동, 대인관계, 언어 사용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고, 부모나 학교가 제시하는 이미지보다도 대중매체를 통한 이미지가 사람들의 현실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광범위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성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편견과 차별을 배척하고 성평등한 사회적 규범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관련된 사회심리학적 연구들 가운데 하나인 Crandall, Eshleman 및 O'Brien(2002)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진 편견이나 고정관념의 정도는 그 사회의 규범이 편견표현을 얼마나 허용한다고 믿는지에 달려 있으며, 규범적으로 그 사회에 허용되는 편견반응은 더욱 높지만 규범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편견반응은 더욱 낮게 나타난다고 한다. 즉 사회적 규범이 편견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며, 규범이 편견반응을 규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성범죄자나 유괴범에 대한 비난은 아무리 지나쳐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설사 그것이 편견일지라도 허용되는 데 비해서 맹인이나 아동에 대한 편견표현은 사소한 것일지라도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져 용납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성차별적 표현일지라도 그 사회가 이를 허용하는 규범을 갖고 있다면 성차별적 표현이 증가할 것이지만, 사소한 성차별적 표현이더라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비난하는 사회적 규범을 갖고 있다면 성차별적 표현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한다면, 대중매체는 성평등 규범을 만들어내고 확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수단일 수 있으며, 성불평등적 규범의 확대 재생산의 첫 번째 자기규제 대상이 되어 마땅할 것이다. 이 연구가 대중매체에서 성평등적 표현의

확산에 초점을 두고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사례연구를 수행하게 된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 라. 언어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에서 존재하는 성차별성이 심각하며, 언어 상의 성불평등이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될 뿐만 아니라 언어 역시 성불평등적인 사회구조를 유지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대중매체에서 전달되는 성차별적 메시지의 영향력은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 사회언어학자 및 페미니즘 언어학자들은 언어 상에 존재하는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언어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김덕호(1996)에 따르면 남녀가 정치, 문화, 경제적으로 경쟁과 협력의 관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적으로도 공용(公用)의 관계와 배타적 결합의 관계에 있으나, 언어 상의 이러한 결합의 관계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의 치닫게 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 중 하나인 ‘언어적 성차별주의’의 실체를 분석·기술하여 체계화함으로써 극단화될 위험이 있는 언어적 과격주의를 경고하고, 이에 대한 균형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대 사회문제의 해결에 언어학 측면으로 일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Guentherodt/Hellinger/Pusch/Trömel-Plötz(1980)는 여성에 대한 언어적인 성차별을 (1) ‘여성을 배제시키는 언어’, (2) ‘여성을 남성에 종속시켜 기술하는 언어’, (3) ‘여성을 오로지 전통적인 성역할로 묘사하는 언어’, (4) ‘여성을 무례하게 취급하거나 여성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어’와 같이 4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이들 각각에 대한 대안으로 ‘성차별적인 언어 사용을 피하기 위한 표준원칙을 제안하였다. 남녀 동등한 언어를 표방하는 이 제안을 살펴보면, (1) ‘언어에서 여성의 가시화’, (2) ‘여성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 (3) ‘여성을 첫 번째 자리에 위치’, (4) ‘남녀 동등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페미니즘 언어학적 관점에서 제시된 성차별 회피 원칙을 보면, (1) ‘성별의 가시화’, (2) ‘남성과 여성에 대한 대칭적 명칭 사용’, (3) ‘남녀 동등한 지칭 기회’, (4)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언급할 때, 타이타닉 원칙 적용’을 들고 있다. 이들 중 타이타닉 원칙은 위험에서 여성을 먼저 구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을 먼저 언급할 것을 주

장하는 것이나, 이 역시 여성을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부성주의적 시각이거나 서구의 기사도 정신에 입각한 온정주의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히려 양자명명의 경우 특정 성에 대한 명명을 앞에 두기 보다는 상황과 맥락에 따른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순서를 정하여 명명하는 것이 양성평등한 것일지도 모른다. 즉 ‘남녀’라고 순서를 특정하기 보다는 ‘남성과 여성’ 혹은 ‘여성과 남성’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 논의와는 별개로 영어와 독일어의 경우, 언어에서 성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은 언어 사용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남성형으로 여성까지도 대표하는 총칭어 부분에서 ‘양자명명(he: he/she)’, ‘성 중립적인 명명(chairman: chairperson)’과 같은 대안제시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언어의 개혁의 필요성은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하나, 언어 개선 이전에 현실 사회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가 언어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가의 논쟁은 여전히 남아 있다. 즉 사회 현실의 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는 성차별적 언어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의 산물이므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언어의 변화도 일어날 것이므로, 현실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Lakoff, 1973). 그러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언어를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통용되어지는 언어 속에는 차별적 개념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언어는 단순히 현실의 불평등을 표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불평등의 재생산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에서는 성평등한 쪽으로의 언어 개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어 개혁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현실 환경의 변화와 언어 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즉 언어의 변화만으로 의미전달의 제약이 따르고, 또 변화의 방향이 왜곡될 위험도 있다. 실제로 성불평등적인 표현의 대안으로 신조어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_\_man’의 대안으로 제시된 ‘chairperson’, ‘spokesperson’ 등이 양성 모두에게 사용되기 보다는 여성들만의 어휘로 국한되어지는 경향을 들 수 있다(김이선·이춘아, 1996). 우리 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구조로 지속되는 한 언어 개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성평등한 사회로의 진전을 위해서는 언어의 개선과 미디어는 물론 사회 현실의 변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 3. 사례조사 도구 및 방법

#### 가.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분류 및 개념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분류 및 개념은 실제 사례조사에 필요한 기준과 예시를 제시한다.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분류 기준은 페미니즘 언어학에서 제시한 분류방식과 국내의 선행연구들이 새롭게 제안한 방식들을 참고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성별언어와 여성 차별적 표현들과 함께 남성 차별적 표현 사례들도 양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화된 언어구조에서 비롯된 성차별성과 언어 표현이나 맥락,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으면서도 조사 시 발생하는 조사자의 인지적 과부하를 고려하여 보다 쉽고 간편하게 성차별 사례를 분류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어 구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념적으로 분류한 성차별적 언어 표현은 5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즉 ① 성별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② 불필요한 성의 강조, ③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④ 선정적 표현, 그리고 ⑤ 특정 성 비하 등 이다. 이들 5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성별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성별화된 언어구조가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이미 관용적으로 흔히 쓰여 지고 있어서 화자에게 성차별적인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으나 암묵적으로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들을 말한다. 이 중에는 특히 특정 성을 지칭하는 단어(남성 총칭어, 여성 총칭어)로 다른 성까지 포괄함으로써 그 성을 보편적이고 기준이 되는 성으로, 다른 성을 예외적인 성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보통 남성형 단어로 인간 전체를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형제애’라는 단어로 형제, 자매 사이의 애정 혹은 집단이나 국가 사이의 우의를 표현한다든가, ‘스포츠맨’이라는 남성형으로 스포츠를 하는 여성과 남성을 모두 가리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앞서서처럼 남성형으로 여성을 대표하는 경우와 여성형으로 남성을 대표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의 사례를 후자의 사례보다 훨씬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후자의 예로는 자매결연, 자매회사를 들 수 있다.

호칭의 불균형이란 호명순서가 성차별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성을 표준으로 삼아 앞선 순서로 나머지 한 성을 보조적으로 뒤에 두어 호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호명순서의 불균형은 남성을 표준으로 앞에 호명하고 여성을 뒤에 두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남녀, 자녀, 신랑신부, 부모” 등의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에게 앞서 여성이 먼저 호명되는 표현 사례들이 있으므로 이들 사례도 조사하여, 호명순서의 불균형이 남녀 간에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 2) 불필요한 성별의 강조

이는 성 정체성(여성임 혹은 남성임)을 필요 없이 표시하거나 그 성에 예외적인 직업이나 속성 앞에 성을 불필요하게 언급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의 성을 불필요하게 밝히는 경우는 남성일 경우를 중립적으로 간주하고 여성일 경우만을 표시하여 성별 구분을 하는 것이다. 후자(직업 앞에 성을 표시하는)에 있어서는 특히 여성이 전문적인 직업을 갖거나 권력적인 위치에 있을 때 여성의 성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다. 즉 여류명사, 여의사, 여성총리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남자의 경우 미용사나 승무원 등 여성지배적인 직업과 관련하여 나타난다. 예를 들면, 남자간호사, 남자 미용사, 남자리듬체조선수 등이 있다.

## 3)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이는 성별과 관련된 고정관념을 표현하는 단어나 문장들로 ① 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거나 ②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것을 말한다. 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그 성과 관련된 고정관념적 명사나 서술어를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용하는 것으로 남자=사회, 여성=가정, 남자=생산자, 여자=소비자, 남자=직업인, 여자=비직업인, 남자=상위적, 여자=하위적, 남자=지도자, 여자=봉사자 등(한국여성개발원, 1993)의 고정관념에 어긋난 경우에 예외성을 나타내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성의 경우 “미모, 미인, 앳되어 보이는, 꼬리친다, 앙탈부린다, 앙칼지다, 야들야들, 여우”들이 이에 해당된다. 남성의 경우에는 “과감한, 스케일이 큰, 능글능글, 씩씩한, 용감한, 늠름한,

슈퍼맨, 늑대” 등을 들 수 있다.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언어란 남성의 여성 우위나 지배, 여성이 남성에게 속함을 당연시하거나 여성 순결이데올로기,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신데렐라 콤플렉스, 남성 마초 이데올로기 등을 표현하는 언어를 말한다. 여성 관련 이데올로기적 표현이 남성 관련 표현보다 많은데 여성의 순수성을 전제로 한 “미혼여성, 슷처녀, 영계” 여성이 남성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하는 “미망인, 집사람, 안사람,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시집가다, 딸을 주다, 출가외인, 그 집 귀신이 되라,” 남성의 우위를 당연시하는 “남성 못잖은, 감히 여자가, 여자가 재수 없게, 여자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남존여비”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또한 “백치미”의 경우에서처럼 여성은 지성과 외모를 다 가질 수 없음을 시사하는 표현도 있다.

한편 정상성에서 벗어난다고 간주되는 사람을 말할 때 주로 여성의 경우에만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말하는데 “내연녀, 동거녀” 등이 이에 속한다. 반면에 “내연남”이나 “동거남”이란 명칭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 4) 선정적 표현

선정적 표현이란 ① 대상을 사소하고 천박하게 만들 수 있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② 사람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을 말한다. ①에서 여성 관련 표현으로 여성 스포츠인을 곤충의 특징에 비유하는 “검은독거미”, 일반 여성을 동물에 비유하는 “암사자들”, 성숙한 여성 정치인을 어리고 연약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수첩공주”, 여성을 보석에 비유, 상품성을 강조하는 “흑진주,” 의존적 신분상승을 강조하는 “신데렐라” 등이 있다. 남성 관련 표현은 그다지 많지 않으나 “숫총각”, “꽃미남” 등을 들 수 있다. ②에서 여성 관련 언어는 “쭉쭉 뻥뻥, 섹시 가슴, S라인” 등이 있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신체적 측면을 희화화하는 “검(여성의 작은 가슴을 희화화)” 등도 있다. 남성 관련은 “울끈불끈 가슴근육, 조각” 등을 들 수 있다.

#### 5) 특정 성 비하

이는 한 성을 비하적인 의도로 부르는 것으로 여성의 경우 “여편네, 부엌데기,

솔뚜껍 운전수, 아줌마, 계집애, 야(아내 호칭 시)” 등으로 여성의 역할이나 여성됨 자체를 비하하는 표현이다. 남성 관련으로는 “건달”, “놈팽이”, “제비족” 등이 있다.

## 나. 조사 도구

조사도구는 사례조사지와 조사지 작성을 위한 설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지 작성 설명서는 성차별적 표현 사례를 조사지에 기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1) 조사지 설명서

**조사지 작성방법**

1. 조사 일시: 신문은 모니터 날짜,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인 경우 방영/검색시간을 표기하십시오.

2. 매체의 종류: 모니터하는 매체의 종류를 표시하십시오.

가. 신문 나. 텔레비전 다. 인터넷

2-1. 글 또는 프로그램 유형: 가-1. 기사 가-2. 의견 가-3. 광고

나-1. 뉴스 나-2. 시사/교양 나-3. 연예오락 나-4. 광고

다-1. 뉴스 다-2. 정보 다-3. 광고

(인터넷은 사이트 자체 분류도 기입해야 함. ex) 뉴스, 엔터테인먼트 등)

2-2. 범주: 유형이 뉴스/기사일 경우 내용의 범주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십시오.

가-1-1. 정치 나-1-1. 정치 다-1-1. 정치

가-1-2. 경제 나-1-2. 경제 다-1-2. 경제

가-1-3. 사회 나-1-3. 사회 다-1-3. 사회

가-1-4. 문화 나-1-4. 문화 다-1-4. 문화

가-1-5. 스포츠 나-1-5. 스포츠 다-1-5. 스포츠

가-1-6. 연예/오락 나-1-6. 연예/오락 다-1-6. 연예/오락

가-1-7. 기타 나-1-7. 기타 다-1-7. 기타

2-3. 출처: 인터넷 기사에서 출처가 명시되는 경우 출처를 기록하십시오.

예) 중앙일보 홍길동 기자

3. 성차별적 유형을 기입하십시오.

☞ 별지에 있는 “성차별적 언어표현의 유형”을 참조하여 분류하십시오.

4. 성차별적 단어 / 문장 / 전체 : 문제되는 성차별적 내용이 단어 자체인지, 문장에 의한 것인지, 전체 기사내용 때문인지 기입하십시오.

☞ 단어: 성차별적 단어

문장: 문제가 되는 단어는 없으나 문장이 성차별적인 표현과 맥락으로 이루어진 경우.

전체: 단어나 문장으로는 성차별성이 없으나 기사나 프로그램 전체가 성차별적인 경우

## 2) 조사지 작성 유의사항

### 조사지 작성 시 유의사항

이 연구는 성차별적 표현의 수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례를 기록할 때 다음의 유의사항을 숙지 해 주십시오.

**단어가 성차별적인 경우** -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함께 기록해 주십시오.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성차별적 단어가 나타난 전후의 말과 맥락도 함께 기록해 주십시오.

**문장이 성차별적인 경우** - 성차별적 표현이 포함된 문장의 기록과 함께 전후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프로그램 및 기사 전체가 성차별적인 경우** - 구체적인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담고 있는 양이나 내용과 맥락이 성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에 관한 대표적 사례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는 모니터지의 4번 란에 "전체"라고 기입하시고, 그 이유를 간단히 기술한 다음, 신문 및 인터넷인 경우 따로 스크랩해 두시거나 방송인 경우 별도로 녹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 대안적 표현 작성 시 유의사항

조사지에는 각 사례에 대한 기록과 함께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가능한 대안적 표현도 반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직접 조사를 수행하는 당사자가 그 전 후 맥락을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입니다. 따라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중에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발견하였을 경우 성평등한 대안적 표현을 생각해 보시고, 대안적 단어나 문장다시쓰기 등의 방법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안이 없을 경우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3)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

대분류	중간 분류	소 분류	예시
가. 성별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①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를 모두 포괄.	①남성형으로 여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형제애, 신사협정, 학부형
		②여성형으로 남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자매결연, 모국, 모교
	②호명순서의 불균형: 호명순서가 성차별적인 경우	①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	남녀, 1남 2녀, 자녀, 신랑신부, 장인장모, 선남선녀,
		②여성이 남성보다 앞서 호명되는 단어	처녀총각, 엄마아빠, 편모편부
나. 불필요한 성별 강조	①여성 혹은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대체적으로 직업을 지칭함)	①-1 여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이00(여, 43세), 주부000, 여류000, 여직원, 여행원
		①-2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남자 부하직원, 남자 전업주부, 남자 간호사, 남자 미용사
	②성역할이나 성별 속성을 고정관념화하거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 맞지 않은 여성(남성) 인물의 예외성 강조	②-1 여자의 예외성	여자상사, 용감한 여대생, 소녀장사, 기센 여주인
		②-2 남자의 예외성	새색시 같은 남자, 여인네처럼 청초한 그가, 소심한 남자
다.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①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①-1 여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옛되어 보이는, 꼬리친다, 양탈 부린다, 양칼지다, 야들야들, 여우, 여성미, 여성스러운, 질투, 가녀린, 청순
		①-2 남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과감한, 스케일이 큰, 능글능글, 씩씩한, 용감한, 늠름한, 슈퍼맨, 대장부, 졸렬한, 무뎡뎡
	②한 성과 관련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언어: -남성 능력 우위를 당연시하여 차별적 권력 관계 조장 -여성을 남성에 속한 것으로 표현	②-1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여성관련 언어	미망인, 출가외인, 집사람, 안사람,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

32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순결이데올로기,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신데렐라 콤플렉스, 남성 마초이데올로기 -정상성에 벗어날 경우 한 성에게만 윤리기준이 부각되는 별도의 호칭 적용 등	②-2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남성관련 언어	기동서방, 왕자, 황제, 도련님, 가장, 집안의 대들보, 기동
라. 선정적 표현	①특정 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①-1 여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흑진주, 신데렐라, 레이싱걸, 엽기녀, 퀸카, 매력녀,
		①-2 남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숫총각, 영계, 꽃미남, 완소남, 킹카
	②특정 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②-1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쪽쪽빵빵, 섹시 가슴, S라인, 환상의 바디라인
		②-2 남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울끈불끈 가슴근육, 조각 같은, 탄탄한 근육
마. 특정 성 비하	단어 선택 자체에서 비하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 반말이나 미성숙하고 유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① 여성 비하:	어편네, 부엌데기, 솔뚜껑 운전수, 계집애, 암캐, 접대부
		② 남성비하	머슴, 기생오라비, 제비족, 수컷, 마마보이, 탕아

4) 조사지(사례조사 기록지)

모니터 이름	윤정주	1. 모니터 일시		모니터 날짜	2007년 8월 31일	
				방송시간 인터넷 모니터 시간		
2. 매체	다	방송사명/신문명/인터넷명			다음	
		방송프로그램명				
2-1 글 또는 프로그램 유형	다-1	2-2 범주	다-1-6	2-3 출처	중앙일보 강혜란 기자	
3. 성차별적 단어/문장/전체	단어	4. 성차별적 표현 유형		다-2-1		
차별적 표현	미망인 (98년에 작고한 가수xxx의 미망인 김ss씨는 이번 추모 콘서트에서 총감독을 맡고 있다.)					
이유	가수 xxx의 아내를 소개하면서 ‘미망인’ 이라는 단어 사용. 미망인은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단어임.					
대안적 표현	작고한 가수 xxx의 부인					
2-1 글 또는 프로그램 유형	다-2	2-2 범주	여행/레저	2-3 출처	세계일보 박창억기자	
3. 성차별적 단어/문장/전체	문장	4. 성차별유형		다-2-1		
차별적 표현	“지난 주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경주에 갔다”					
이유	문장 속에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이거나 소유물로 묘사하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음. 성차별적 맥락 이용					
대안적 표현	“지난 주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경주에 갔다” “지난 주말 가족과 함께 경주에 갔다”					

#### 4. 사례조사 결과 분석

성차별적 언어 표현 및 성별언어 사례에 대한 조사는 2007년 9월 3일부터 10월 7일까지 격주로 3주간에 걸쳐 신문, 방송, 인터넷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발견된 성차별적 언어 및 성별언어 사례는 총 5,116건에 달하였다. 이 중 연구진의 의한 재검토와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거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한 29개 사례를 제외하고 5,087건의 사례에 대해서만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번에 제외된 사례들 가운데에는 “독불장군”, “신인왕”, “득점왕”, “연습왕”, “거포”, “전차” 등의 표현이 남성으로 여성을 대표하거나 남성 중심적인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조사되었으나, 왕과 장군은 하나의 직책으로 중성적인 의미를 가지나 이들 표현을 성차별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들 직책이 남성의 것으로 인식하는 논리적 모순을 갖게 된다는 주장과 “득점왕”, “연습왕”, “거포” 등은 남성에게만 특정해서 쓰이지 않고, 개인의 외모나 장점을 비유적으로 쓰는 표현이라는 주장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왕이나 장군이라는 표현에 대해 일상적인 언어 사용은 남성을 전제로 사용되고 있고, 표현양식 또한 남성에게만 국한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차별적인 표현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양적 분석에서는 이들 사례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 대상으로 남겨두고, 비교적 논란이 적었던 5,087건의 사례만을 중심으로 매체유형별로, 성차별적 언어 표현 분류 유형별, 단어/문장/전체의 표현구조 단위별 그리고 여성차별 대 남성차별적 표현 여부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1〉 성차별적 언어 사용 사례의 출원 매체와 표현구조 단위

출원 매체		표현구조 단위	
신문	2,387	단어	4,171
방송	1,750	문장	770
인터넷	955	내용 전체	146
합계	5,087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5,087개의 사례들 가운데 2,387개는 신문에서, 1,750개는 방송에서 그리고 나머지 955개가 인터넷에서 조사된 것이다. 또한 단어 형태의 사례가 4,171개, 문장 형태의 사례는 770개 그리고 내용 전체가 성차별적 표현인 사례로 선정된 경우가 146개이다. 즉,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 중 거의 절반은 신문에서 나온 것이며, 대다수 사례가 단어 형태를 취한다. 그렇다고 해서 신문과 단어가 여타 매체나 표현구조에 비해 특별히 성차별적 언어 사용을 주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실상 각 매체별, 표현구조 단위별 언어 표현의 총량이 다른 만큼, 단순히 수집된 사례의 총량으로써 특징의 매체나 표현구조의 성차별성을 가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에 유의하면서 이하 사례 수 총량을 통해서 본 성차별적 언어 사용 실태의 전체 현황, 매체별 사례 총량에 의한 매체별 현황을 살펴보고 보기로 한다.

### 가. 전체 현황

#### 1) 전체 사례의 성차별적 표현 유형 비교

아래의 <표 2>는 전체 매체를 통해 선정된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사례들을 유형화한 것이다.

<표 2>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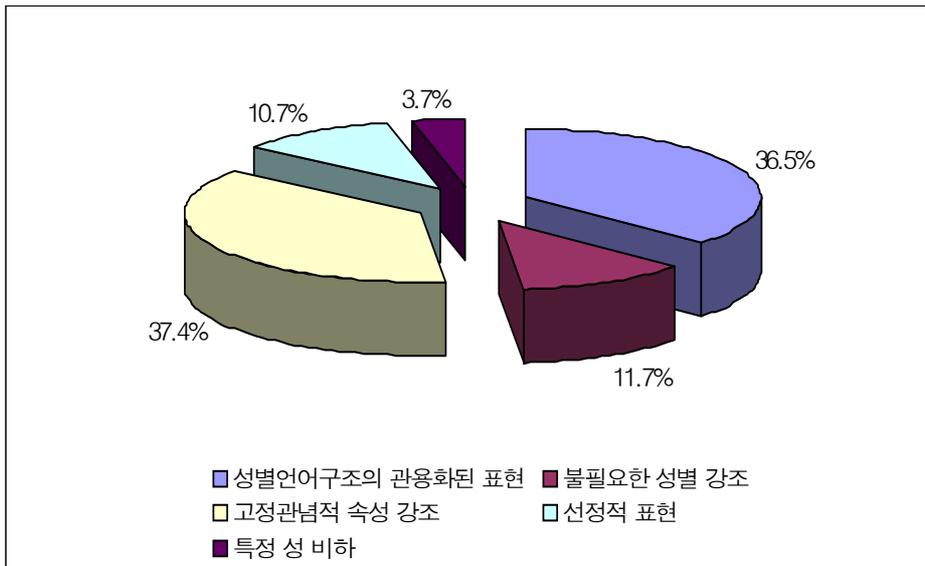
대분류	중 간 분 류	소 분 류	사례수(%)	
가. 성별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① 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모두를 포괄	① 남성형으로 여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1,858 (36.5)	118(2.3)
		② 여성형으로 남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22(0.4)
	② 호명순서의 불균형 : 호명순서가 성차별적인 경우	①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	1,677 (33.0)	1,677(33.0)
		② 여성이 남성보다 앞서 호명되는 단어		41(0.8)
나. 불필요한 성	① 여성 혹은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대체적으로 직업을 지칭)	①-1 여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593 (11.7)	517(10.2)
		①-2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18(0.4)

별강조	② 성역할이나 성별 속성을 고정관념화하거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 맞지 않는 여성(남성)인물의 예외성 강조	②-1 여자의 예외성	40(0.8)	
		②-2 남자의 예외성		18(0.4)
다. 고정관 념적 속성 강조	① 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①-1 여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1,903 (37.4)	559(11.0)
		①-2 남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246(4.8)
	② 한 성과 관련된 성 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언어	②-1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여성관련 언어		896(17.6)
		②-2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남성관련 언어		202(4.0)
라. 선정적 표현	① 특정 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①-1 여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545 (10.7)	229(4.5)
		①-2 남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71(1.4)
	② 특정 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②-1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227(4.5)
		②-2 남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18(0.4)
마. 특정 성 비하	단어 선택 자체에서 비하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 반말이나 미성숙하고 유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① 여성비하	188 (3.7)	159(3.1)
		② 남성비하		29(0.6)
총 계				5,087(100)

( )안은 %임.

총 5,087개의 사례 가운데 37.4%(1,903개)는 여성 또는 남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거나 특정 성에 관련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등의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유형에 속하며, 다음으로 역시 비슷한 정도인 36.5%

(1,858개)는 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 모두를 포괄하거나 호명순서의 성별 불균형 및 차별적 사용 등을 가리키는 ‘성별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두 유형이 성차별적 표현의 주된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여성 혹은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하거나 성역할 및 성별 속성의 고정관념화와 성별 이분법에 기반하여 이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의 예외성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성별 강조’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11.6% (595개), 특정 성을 자극적으로 표현하거나 특정 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으로서 이른바 ‘선정적 표현’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10.6% (544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이나 남성을 비하하는 ‘특정 성 비하’ 유형에 속하는 경우가 3.7% (188개)로 가장 적었다(그림 1).



〈그림 1〉 성차별적 표현의 주요 유형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를 보다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으로서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인 경우가 가장 많아 33.0%에 달하며, 다음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속성을 강조하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여성관련 언어’(17.6%)와, ‘여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11.0%), 그리고 ‘여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10.2%)하

는 등의 순이다. 이들은 모두 전체 사례 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번 조사에서 나타난 성차별적 표현의 전형적인 유형들이라 할 만 하다.

성차별표현 세부유형별 비교에서 좀 더 면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성별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부분이다. 즉 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를 모두 포괄하거나 남성을 표준으로 앞서 호명하고 여성으로 뒤에 두는 표현방식을 일컫는다. 이 가운데 전자의 경우, 남성으로 여성까지 대표하는 표현이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이것을 성차별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느냐하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에서 ‘남성형으로 여성을 대표하는 단어’는 모두 118개의 표현사례가 발견되었고 이 중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사례는 모두 5개가 발견되었다. 즉 “소년원”, “양치기 소년 된 정부”, “바지사장”, “에스맨” 등이 있었다. 반대로 여성형으로 남성까지 포괄하는 표현사례는 모두 22건이 발견되었고, 그 중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표현은 4건으로 나타났다. 즉 “얼굴마담”이라는 표현 사례가 3회 발견되었고, “사모님식 투자”라는 표현도 1회 발견되었다. 여성으로 남성을 포괄하는 사례 수도 남성으로 여성까지 포괄하는 사례에 비해서 훨씬 적게 발견됨으로써, 관용화된 언어 표현상의 성별 간 불균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여성이 남성을 대표하는 단어’는 언어 표현에서 성차별성을 보다 명백하게 드러내는 사례이기도 하다.

문제는 ‘남성형으로 여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중 부정적 의미를 갖는 5개 사례를 성차별적 언어 표현으로 간주하고 이를 제외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하다. 예컨대, “소년원”과 같은 단어는 남성을 범죄와 더 많이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성차별적 표현으로 간주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소년원”, “바지사장”, “양치기 소년 된 정부”, “에스맨”이라는 표현에서 공통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또한 우리 사회가 남성을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조차 남성을 전제로 표현된 결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포함시켰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번 성차별적 표현 사례조사에서 세부유형별로 가장 많은 사례가 발견된 것은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들이었고, 모두 1,677건에 이르렀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 ‘부모’, ‘부모님’, ‘학부모’, ‘조부모’와 같이 아버지(부)가 어머니(모)보다 앞서 호명되는 단어가 모두 832개로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자녀’가 459개, ‘남녀노소’, ‘독신남녀’를 포함한 ‘남녀’가 188개, ‘남매’ 52개, ‘아들 딸’ 18개, ‘형제자매’ 6개, ‘오누이’ 6개, ‘선남선녀’가 3개 등으로 나타나, 우리말의 전형적인 표현구조가 남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실명을 호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경향은 매우 정형화되어 있는 듯하다. 실명의 호명 순서를 정함에 있어 지위나 연령, 가나다 순과 같은 합리적 근거나 기준에 의하지 않고 오로지 성별 기준만이 적용되어 남성의 이름이 먼저 호명되고 여성의 이름이 나중에 호명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는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를 호칭하는데 있어서도 기호 순에 의하지 않고 남성을 먼저 그리고 여성을 나중에 호명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남성이 여성보다 앞서 호명되는 사례가 1,677건에 이르는데 비해 여성이 남성보다 앞서 호명되는 경우는 전체 사례 가운데 4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에 따른 호칭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엄마야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같이 육이나 가족관계 등 사적 영역에서의 호칭과 밀접한 관련 있어 이를 벗어나 공적 영역으로의 확산이 어려운 표현이 대부분이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앞서 호명되는 공적 영역의 표현들 가운데는 부정적인 상황이나 불완전성의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다. 예컨대, ‘편모편부’, ‘모부자 가정’과 같이 결혼가정을 지칭할 때 쓰이는 이들 표현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호칭을 할 때는 두 성 중 어느 한 성을 먼저 부를 수밖에 없으므로 호칭 순서의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거나 절대적으로 성평등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혹자는 호칭순서의 문제를 성차별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여성을 남성에 앞서 호명하는 방식을 혼용함으로써 호칭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김혜숙, 2007). 남성을 먼저 명명하는 것이 오랫동안의 관습이어서 이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거나 성차별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움은 실상 가장 편견적일 수 있다.

## 2) 성차별적 표현 유형의 매체별 비교

유형별로 나타난 전체 성차별 사례들을 각 매체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

<표 3>은 전체 성차별적 언어 사용 사례 수를 매체별로 구분하여 유형화 한 것이다. 신문에서는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유형에 선정된 사례 수의 절반 이상(50.2%)이 포함될 정도로 압도적인 가운데,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유형 또한 29.4%를 차지하여 신문의 성차별적 언어 사용은 대개 이 두 유형 속에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방송의 경우는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유형이 45.5%로 가장 많아 다음 순위인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적 표현’ 유형(25.8%)과 더불어 역시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주된 유형임을 보여준다. 인터넷의 경우도 역시 가장 주된 유형은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인 속에서, ‘선정적 표현’(23.2%) 유형이 타 매체에서와 달리 상대적으로 강세인 점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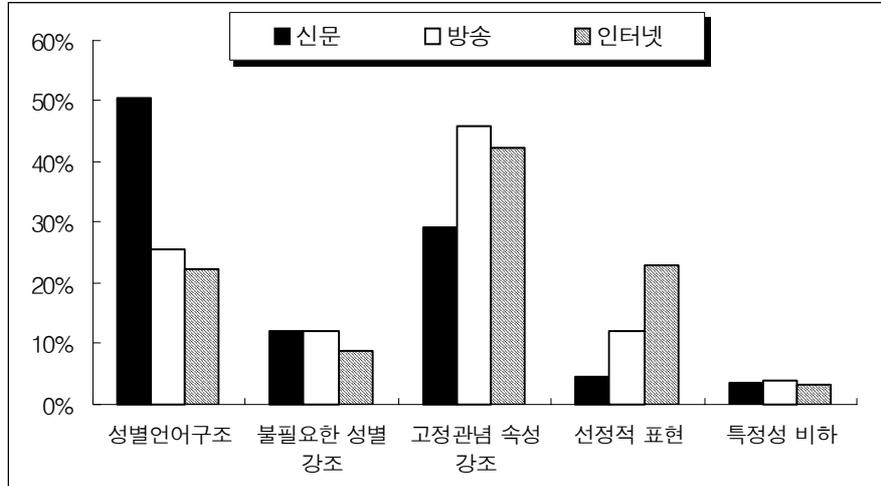
〈표 3〉 성차별적 표현의 매체별 유형

	전체	신문	방송	인터넷
성별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1,858(36.5)	1,196(50.2)	452(25.8)	210(22.0)
불필요한 성별강조	593(11.7)	292(12.3)	215( 12.3)	86(9.0)
고정관념적 속성강조	1,903(37.4)	701(29.4)	797( 45.5)	405(42.4)
선정적 표현	545(10.7)	107(4.5)	216( 12.3)	222(23.2)
특정 성 비하	188(3.7)	86(3.6)	70(4.0)	32(3.4)
합 계	5,087(100)	2,382(100)	1,750(100)	955(100)

( )안은 %임.

성차별적 표현유형을 매체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림 2>와 같이 매체별 고유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문자 중심매체인 신문에서는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유형이, 시청각 매체인 방송에서는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유형이 그리고 익명성과 비가시적 특성이 강한 인터넷에서는 ‘선정적 표현’ 유형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실제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42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그림 2〉 성차별적 표현 유형의 매체간 비교

〈표 4〉 매체별 성차별적 표현의 세부 유형

세부 유형	전체	신문	방송	인터넷
①남성형으로 여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118(2.3)	51(2.1)	34(1.9)	33(3.5)
②여성형으로 남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22(0.4)	17(0.7)	4(0.2)	1(0.1)
③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	1,677(33.0) <sup>1)</sup>	1107(46.5) <sup>1)</sup>	396(22.6) <sup>1)</sup>	174(18.2) <sup>2)</sup>
④여성이 남성보다 앞서 호명되는 단어	41(0.8)	21(0.9)	18(1.0)	2(0.2)
⑤여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517(10.2) <sup>2)</sup>	255(10.7) <sup>2)</sup>	175(10.2) <sup>3)</sup>	83(8.7)
⑥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18(0.4)	9(0.4)	9(0.5)	0(0)
⑦여자의 예외성	40(0.8)	23(1.0)	15(1.1)	2(0.2)
⑧남자의 예외성	18(0.4)	5(0.2)	12(0.7)	1(0.1)
⑨여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559(11.0)	106(4.5)	176(10.1) <sup>3)</sup>	277(29.0) <sup>1)</sup>
⑩남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246(4.8)	63(2.6)	140(8.0)	43(4.5)
⑪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여성관련 언어	896(17.6) <sup>3)</sup>	458(19.2) <sup>3)</sup>	388(22.2) <sup>2)</sup>	50(5.2)
⑫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남성관련 언어	202(4.0)	74(3.1)	93(5.3)	35(3.7)
⑬여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229(4.5)	49(2.1)	86(4.9)	94(9.8)

⑭남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71(1.4)	18(0.8)	35(2.0)	18(1.9)
⑮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227(4.5)	38(1.6)	82(4.7)	107(11.2) <sup>3)</sup>
⑯남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18(0.4)	2(0.1)	13(0.7)	3(0.3)
⑰여성비하	159(3.1)	71(3.0)	58(3.3)	30(3.1)
⑱남성비하	29(0.6)	15(0.6)	12(0.7)	2(0.2)
합 계	5087(100)	2382(100)	1750(100)	955(100)

<sup>1)</sup> 1순위, <sup>2)</sup> 2순위, <sup>3)</sup> 3순위; ( )안은 %임

한편 성차별 표현 유형의 매체별 비교와 더불어 이를 보다 세분하여 살펴본 것이 <표 4>이다. 전술한 성차별적 표현유형을 매체별로 비교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차별 표현을 세부유형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매체별로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표 5> 매체별 성차별적 표현의 1~3순위 세부 유형

세부 유형	전체	신문	방송	인터넷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	1순위 (33.0%)	1순위 (46.5%)	1순위 (22.6%)	2순위 (18.2%)
여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	3순위 (10.7%)	3순위 (10.2%)	-
여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3순위 (11.0%)	-	3순위 (10.1%)	1순위 (29.0%)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여성관련 언어	2순위 (17.6%)	2순위 (19.2%)	2순위 (22.2%)	-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	-	-	3순위 (11.2%)

앞서 <표 4>에서 각 매체별로 1, 2, 3 순위에 해당하는 세부 유형을 좀 더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별도의 표로 작성한 것이 <표 5>이다. 신문과 방송의 경우는 전체 사례에서 보인 경향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에 속하는 사례가 1순위로 가장 많고, 이어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여성관련 언어'에 해당하는 사례가 2순위, '여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하거나 '여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에 속하는 사례가 3순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인터넷에서의 성차별적 사용언어의 세부 유형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여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에 속하는 성차별적 표현 사례가 1순위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가 2순위를 나타낸다. 특히 3순위인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의 경우, 인터넷에서의 사용 비중(11.2%)에 비추어 신문(1.6%)과 방송(4.7%) 등에서의 사용 비중은 현격히 낮다. 이로써 앞서 '선정적 표현' 유형에 속하는 성차별적 표현 사례가 특히 인터넷에서 높았던 배경을 이해할 수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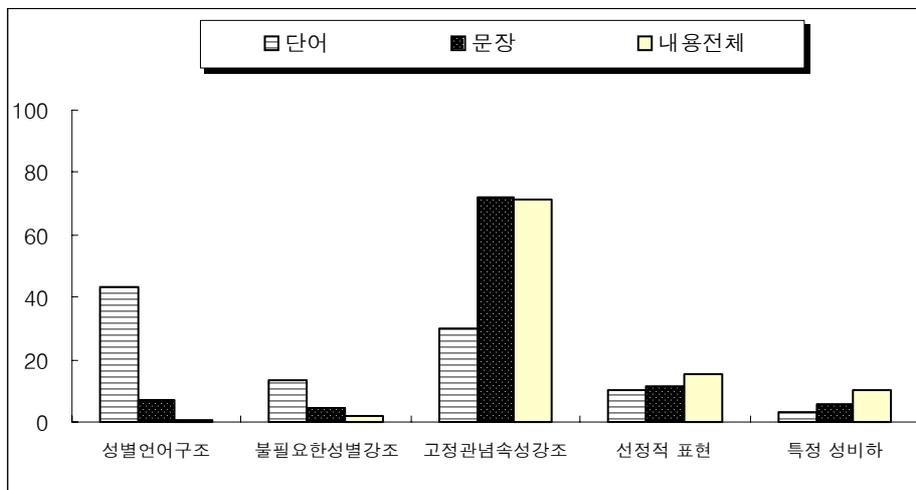
### 3) 표현구조 단위별 주요 성차별적 표현 유형

<표 6>은 전체 사례 수를 성차별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표현구조 단위로 구분하여 유형화한 것이다. 전체 사례의 대다수 표현단위 구조는 '단어' 형태의 차별적 표현으로서 4,171 건의 사례가 있었는데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유형에서 43.4%로 가장 많았고, '문장'이나 '내용 전체'의 경우에는 70% 이상이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에 속하는 성차별적 표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표현구조 단위별 성차별적 표현 유형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불필요한 성별강조	고정관념적 속성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 비하	전체
단어	1,805 (43.3)	558 (13.4)	1,245 (29.8)	433 (10.4)	130 (3.1)	4,171 (100)
문장	52 (6.9)	32 (4.2)	554 (71.9)	89 (11.6)	43 (5.6)	770 (100)
내용전체	1 (0.7)	3 (2.1)	104 (71.2)	23 (15.8)	15 (10.3)	146 (100)
합계	1,858 (36.7)	595 (11.6)	1,903 (37.4)	545 (10.7)	188 (3.7)	5,087 (100)

이를 제시한 <그림 3>을 보면,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이나 ‘불필요한 성별 강조’에서는 ‘문장’이나 ‘내용 전체’보다는 ‘단어’가 문제가 되는 성차별적 표현이 많았으며,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에서는 ‘문장’과 ‘내용 전체’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리고 ‘선정적 표현’이나 ‘특정 성 비하’에서는 ‘내용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그림 3> 성차별적 표현 유형의 표현구조 단위간 비교

#### 4) 성차별적 표현 유형의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

<표 7> 및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성차별적 표현으로 조사된 총 사례들을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 표현 정도를 살펴본 것이다. 여기서의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의 총량은, 성차별적 표현의 세부 유형 가운데 여성과 남성에게 대해 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각 세부유형을 모두 합한 것을 가리킨다.<sup>1)</sup>

표에서 보듯이,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유형에서 언어 표현의 성별화가 96.7%로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유형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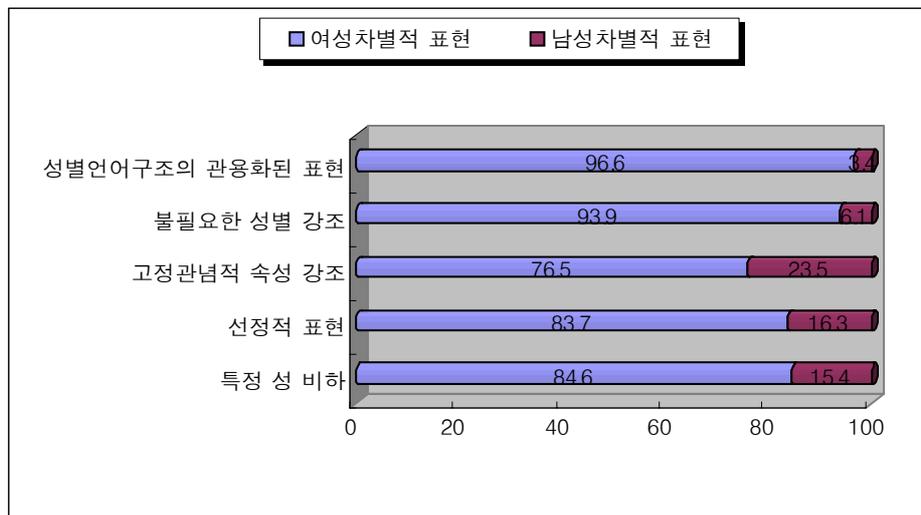
1) 예컨대 앞의 <표 3>의 세부 유형 가운데 ①, ③~⑰까지의 홀수 번호 유형은 모두 ‘여성 차별적 표현’으로 합하며, ②, ④~⑱까지의 짝수 번호 유형은 ‘남성차별적 표현’으로 합함.

가 여타 유형에 비해 성별에 따른 차별적 언어 표현이 76.0%와 24.0%로 비교적 분산되는데, 이는 동 유형의 특성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라 하겠다.

〈표 7〉 성차별적 표현 유형에 따른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 비교

	성별 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불필요한 성별 강조	고정관념 속성 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 비하	전체
여성 차별적 표현	1,795 (96.6)	557 (93.9)	1455 (76.5)	456 (83.7)	159 (84.6)	4,422 (86.9)
남성 차별적 표현	63 (3.4)	36 (6.1)	448 (23.5)	89 (16.3)	29 (15.4)	665 (13.1)
합 계	1,858 (100)	593 (100)	1,903 (100)	545 (100)	188 (100)	5,087 (100)

( )안은 %임



〈그림 4〉 성차별적 표현 유형에 따른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 비교

이를 신문/방송/인터넷 등 매체에서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의 정도가 성차별 언어 유형에 따라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이 아래의 <표 8>이다.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신문에 비해서 인터넷의 경우는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이나 ‘불필요한 성별 강조’와 같은 언어의 구조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성별간 불균형이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이 주목된다.

〈표 8〉 매체별 성차별적 표현 유형에 따른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 비교

		성별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불필요한 성별강조	고정관념 적 속성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 비하	전체
신 문	여성차별적 표현	1,158 (96.8)	278 (95.2)	564 (80.5)	87 (81.3)	71 (82.6)	2,158 (90.6)
	남성차별적 표현	38 (3.2)	14 (4.8)	137 (19.8)	20 (18.7)	15 (17.4)	224 (9.4)
	합계	1,196 (100)	292 (100)	701 (100)	107 (100)	86 (100)	2,382 (100)
방 송	여성차별적 표현	430 (95.1)	194 (90.2)	564 (70.8)	168 (77.8)	58 (82.9)	1,414 (80.8)
	남성차별적 표현	22 (4.9)	21 (9.8)	233 (29.2)	48 (22.2)	12 (17.1)	336 (19.2)
	합계	452 (100)	215 (100)	797 (100)	216 (100)	70 (100)	1,750 (100)
인 터 넷	여성차별적 표현	207 (98.6)	85 (98.8)	327 (80.7)	201 (90.5)	30 (93.8)	850 (89.0)
	남성차별적 표현	3 (1.4)	1 (1.2)	78 (19.3)	21 (9.5)	2 (6.2)	105 (11.0)
	합계	212 (100)	86 (100)	406 (100)	222 (100)	32 (100)	955 (100)

( )안은 %임

이는 얼핏 매체별 고유 속성에 따른 성차별적 표현 유형상의 특징적 현상(그림 2 참조)과 일관되어 보이지 않는 탓이다. 그렇지만 인터넷 또한 기본적으로는 문자 활용으로써 매개되는 것임을 감안하고 보면, 그다지 의외의 결과인 것은 아니다. <표 8>에서 보듯이 인터넷의 경우, ‘선정적 표현’이라든가 ‘특정 성 비하’ 등의 유형에서 여타 매체에 비해 성별 간 불균형의 정도가 훨씬 심한 결과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인터넷상의 여성 차별적 언어 사용의 실상이 쉽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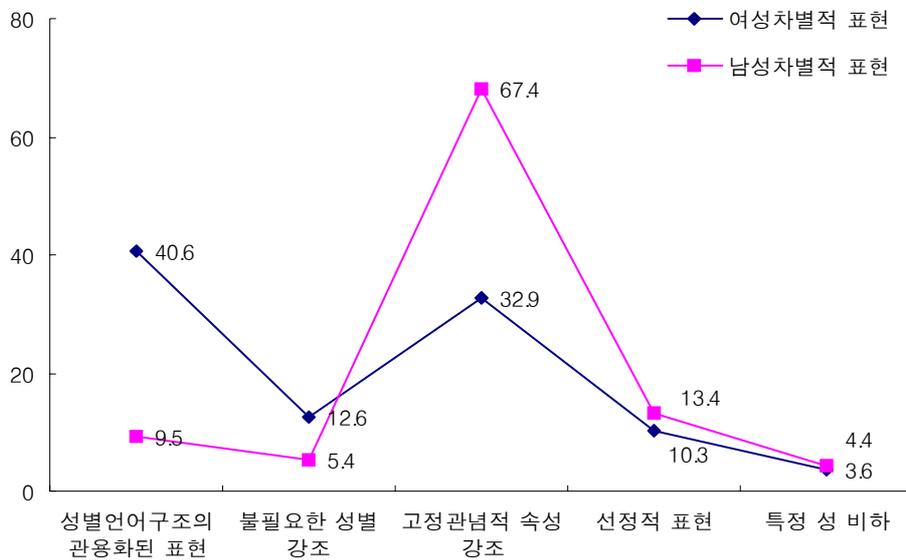
한편 본 연구에서 분석된 전체 사례를 ‘여성 차별적 표현’과 ‘남성 차별적 표현’

으로 구분하여 5가지 성차별적 언어 표현 유형별 분포를 살펴본 것이 <표 9> 및 <그림 5>이다.

<표 9>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의 성차별적 표현 유형 비교

	여성차별적 표현	남성차별적 표현	전체
성별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1,795(40.6)	63(9.5)	1,858(36.5)
불필요한 성별 강조	557(12.6)	36(5.4)	593(11.7)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1,455(32.9)	448(67.4)	1,903(37.4)
선정적 표현	456(10.3)	89(13.4)	545(10.7)
특정 성 비하	159(3.6)	29(4.4)	188(3.7)
합계	4,422(100)	674(100)	5,087(100)

( )안은 %임



<그림 5>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의 성차별적 표현 유형 비교

전체 성차별 유형별로 비교하였을 경우는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에 속하는 성차별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에 따라 주된 성차별 유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 9>에서 보듯이 여성 차별적 표현의 경우는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에서 1,795(40.6%)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남성 차별적 표현은 전체 674건 중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에 속하는 사례가 448(67.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결과는 남성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들은 주로 남성의 고정관념적 속성들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 같은 결과가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에서 남성 차별적 표현이 여성 차별적 표현보다 더 지배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에 속하는 여성 차별적 표현 비율(32.9%)이 남성 차별적 표현 비율(67.4%)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사례수를 보면 여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1,455건으로 남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강조하는 표현 448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러한 결과들은 성차별 유형들 전반에 걸쳐 ‘여성 차별적인 표현’이 ‘남성 차별적인 표현’보다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언어 상의 성별간 불평등이 어느 하나에 집중되기 보다는 오히려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9>에서 좀 더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은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에서 ‘남성 차별적 표현’으로 분류된 사례가 68건인데 비해 ‘여성 차별적 표현’으로 분류된 사례가 1,795건으로 양적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것이지만, 이 결과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 즉 이 유형의 차별은 “특정 성으로써 다른 성까지 포괄하는 총칭적 명명”과 “호명 순서에서 특정 성이 다른 성을 앞서 명명”하는 경우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차별적 표현 가운데, 여성을 남성까지 포괄하는 총칭어는 22건이 있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먼저 호칭되는 사례는 46건이 발견되었다. 총칭어의 경우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게 양자명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언어적으로 은폐된 여성의 지위를 가시화하는 일이기도 할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언어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하지만 총칭어가 양자명명으로 바뀌어 간다하더라도 호명의 순서문제는 또 다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임에 틀림이 없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남성 차별적 표현’으로 분류된 사례수와 ‘여성 차별적 표현’으로 분류된 사례수가 대등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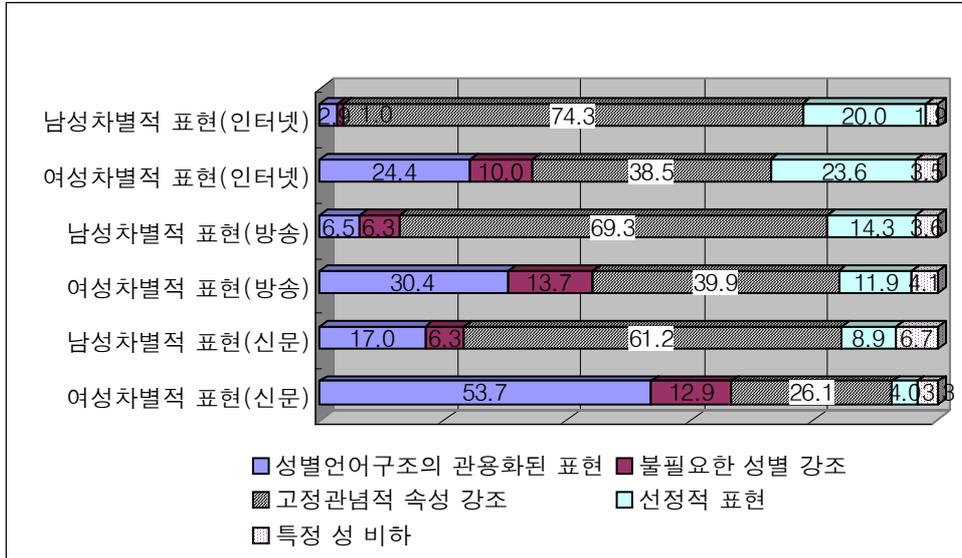
로소 성평등한 언어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의 이 자료는 호명순서에서 성별 간 불균형이 매우 크다는 사실과 함께, 발견된 46건의 사례가 비록 적은 수였지만, 호명순서에서 성별 간 불균형을 무너트릴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사례들이라고 여겨진다. 이들 사례는 ‘엄마아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모부자 가정’, ‘이수경-김지훈 커플’ 등이다.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 사례들을 매체별로 구분하여 비교해 본 것이 <표 10>과 <그림 6>이다. 즉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이 매체별로 성차별적 언어 유형에 따라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매체별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면, 신문의 경우, 남성 대 여성 차별적 표현의 비율은 9.4% vs. 90.6%, 방송의 경우, 19.2% vs. 80.8%, 인터넷의 경우, 11.0% vs. 89.0%로 나타나, 신문이 성별간의 불균형이 가장 큰 매체임을 보여 주고 있다. 남성 차별적 표현을 기준으로 보면, 방송이 가장 많았고, 인터넷과 신문의 순인으로 나타났다.

<표 10> 매체별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의 성차별적 표현 유형 비교

	성별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불필요한 성별강조	고정관념 속성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 비하	전체
신문	여성차별적 표현	1,158 (53.7)	278 (12.9)	564 (26.1)	87 (4.0)	2,158 (90.6)
	남성차별적 표현	38 (17.0)	14 (6.3)	137 (61.2)	20 (8.9)	224 (9.4)
	전체	1,196 (50.2)	292 (12.3)	701 (29.4)	107 (4.5)	2,382 (100)
방송	여성차별적 표현	430 (30.4)	194 (13.7)	564 (39.9)	168 (11.9)	1,414 (80.8)
	남성차별적 표현	22 (6.5)	21 (6.3)	233 (69.3)	48 (14.3)	336 (19.2)
	전체	452 (25.8)	215 (12.3)	797 (45.5)	216 (12.3)	1,750 (100)
인터넷	여성차별적 표현	207 (24.4)	85 (10.0)	327 (38.5)	201 (23.6)	850 (89.0)
	남성차별적 표현	3 (2.9)	1 (1.0)	78 (74.3)	21 (20.0)	105 (11.0)
	전체	210 (22.0)	86 (9.0)	405 (42.4)	222 (23.2)	955 (100)

( )안은 %임



〈그림 6〉 매체별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의 성차별적 표현 유형 비교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이 각 매체에서 성차별 유형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살펴 본 결과,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의 경우, 여성 차별적 표현은 ‘성별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에서 53.7%로 가장 많았고 그리고 남성 차별적 표현은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에서 61.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신문이 ‘성별언어의 구조화된 표현’에서 매우 정형화된 언어표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방송과 인터넷 매체의 경우는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이 모두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에서 가장 많은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 ‘선정적 표현’에서 타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 대해서 차별적인 표현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결과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은 성차별적 표현 유형에 있어서 각 매체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성차별 언어 표현의 유인가 비교

성차별적 언어표현들 가운데는 화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기에는 긍정적으로 지각되거나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표현들이 있을 수 있다. 차별적인 언어 표현이 성별간

불평등을 초래하고, 부지불식간에 성별 분업적인 이데올로기에 순응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는 이들 표현이 화자의 귀에 거슬리지 않거나 차별적인 표현임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성차별적 언어 표현들 가운데는 명백하거나 노골적인 차별을 드러내지 않거나 주관적으로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차별 유형으로 분류된 사례들에 대해 그 유인가(誘引價, valence)를 분석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 연구에서는 두 명의 평가자가 조사된 성차별 표현 사례들을 긍정 유인가와 부정 유인가 별로 분류하였고, 일치하는 사례들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 <표 11>과 <표 12>이다. 우선 전체 사례 5,087개 사례들 가운데 긍정이나 부정의 유인가를 지닌 성차별 표현들은 1,520개 사례였다. 이중 긍정 유인가를 지닌 성차별적 표현은 1,114개였고, 부정 유인가를 지닌 성차별 표현은 406개였다.

먼저 <표 11>에서는 긍정 및 부정 유인가를 지닌 사례들이 남성/여성 차별적 표현과 유형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11>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 및 유형별 유인가 비교

	성별언어 구조	불필요한 성별강조	고정관념적 속성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비하	전체	
여성차별	긍정가	3 (4)	77 (9.8)	475 (60.2)	234 (29.7)	0 (.0)	789 (69.8)
	부정가	8 (2.3)	13 (3.8)	119 (34.8)	46 (13.5)	156 (45.6)	342 (30.2)
남성차별	긍정가	1 (3)	13 (4.0)	232 (71.4)	79 (24.3)	0 (.0)	325 (83.5)
	부정가	6 (9.4)	2 (3.1)	25 (39.1)	2 (3.1)	29 (45.3)	64 (16.5)

( )안은 %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차별적 표현들 가운데는 1,131 개가 긍정 및 부정의 유인가를 지니고 있었고, 그 중 69.8%인 789건이 긍정 유인가를 지닌 차별적 표현이었고, 나머지 30.2%인 342건이 부정 유인가를 지닌 차별적 표현이었다. 이들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부정 유인가의 남성 차별적 표현들로는 ‘바지사장’, ‘에스맨’,

‘여색’, ‘외도’, ‘마마보이’ 등이었고, 긍정 유인가를 지닌 남성 차별적 ‘황제’, ‘꽃미남’, ‘터프가이’, ‘힘 좋고’ 등이다. 여성 차별적 표현들 가운데, 부정 유인가를 지닌 표현들 가운데는 ‘가난한 외모’, ‘된장녀’, ‘여시’, ‘애첩’, ‘독거미’, ‘탕녀’, ‘엽기녀’ 등인 반면 긍정적 유인가를 지닌 여성 차별적 표현들 가운데는 ‘여성미’, ‘청순한’, ‘요정’, ‘미녀’, ‘공주님’, ‘단아한’, ‘가정의 CEO’, ‘깜직한’, ‘천사표’, ‘으뜸맘’, ‘애교’, ‘엄마표’ 등의 표현들을 말한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 유인가를 지닌 여성차별적인 표현들은 주로 ‘고정관념적 속성강조’에서 가장 많았고, ‘선정적인 표현’에서도 상당수의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성별 강조’에서는 ‘여왕’, ‘여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77개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표 12> 매체별,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 유인가에 따른 차별유형 비교

		성별언어 구조	불필요한 성별강조	고정관념 속성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비하	합계	
신 문	여성차별	긍정	3	31	97	33	-	164
		부정	5	1	33	10	70	119
		합계	8	32	130	43	70	283
	남성차별	긍정	1	3	86	18	-	108
		부정	4	1	12	-	15	32
		합계	5	4	98	18	15	140
방 송	여성차별	긍정	-	39	250	116	-	405
		부정	-	4	50	1	56	111
		합계	-	43	300	117	56	516
	남성차별	긍정	-	10	117	45	-	172
		부정	2	-	7	-	12	21
		합계	2	10	124	45	12	193
인 터 넷	여성차별	긍정	-	7	128	85	-	220
		부정	3	8	36	35	30	112
		합계	3	15	164	120	30	332
	남성차별	긍정	-	-	29	16	-	45
		부정	-	1	6	2	2	11
		합계	-	1	35	18	2	56
유인가전체	긍정	4	90	707	313	-	1114	
	부정	14	15	144	48	185	406	
총 계		18	105	851	361	185	1520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성차별적 표현들 가운데 긍정 유인가를 지닌 사례가 부정 유인가를 지닌 사례 보다 더 많은 이유가 대중매체의 공공성에 기인하는 것임을 알아보기 위해 매체별, 남성/여성 차별적 표현, 긍정 및 부정 유인가에 따른 성차별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12>에서 보는 것처럼 공공성이 큰 방송의 경우는 부정 유인가의 여성 차별적 표현보다는 긍정 유인가를 가진 여성 성차별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405건 (78.1%) vs. 111건 (19.1%), 신문이나 인터넷의 경우는 각각 164건 (58.0%) vs. 119건 (42.0%), 220건 (66.3%) vs. 112건 (33.7%)으로 두 매체간 차이가 크지는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TV 방송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매체에서는 보다 노골적이거나 직접적인 차별을 의미하는 부정 유인가의 성차별적 표현들이 감소한 대신에 은밀하거나 간접적인 차별을 의미하는 긍정 유인가의 성차별적 표현들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결과가 갖는 또 다른 시사점은 TV 방송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자기검열 혹은 제도화된 검열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므로, 노골적인 형태의 차별적 표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사회 규범적 통제를 통한 성차별적 언어표현의 개선의 효과성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 전반에 걸친 평등 가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 차별과 편견을 배격하는 사회적 규범의 확산, 이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정 유인가의 성차별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인터넷과 신문 등의 매체에 대해서도 공공성을 보다 강조하는 것과 함께 평등 가치에 입각한 사회적 규범의 보다 활발한 제시가 전개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이 결과가 갖는 보다 중요한 시사점은 긍정 유인가의 성차별적 표현의 증가에 있다. 즉 언중에게 주관적으로 혹은 표면적으로 긍정적인 유인가를 지니는 표현들이라 할지라도 이 역시 성차별적인 상징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명시적이지 않을 뿐 이들 긍정 유인가를 지닌 성차별적 표현이 갖는 부정적 영향은 노골적이거나 직접적인 차별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보다 은밀하고 암묵적인 방식으로 성별 간 불균형을 영속화시키는데 더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체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긍정 유인가의 성차별적 표현들은 '고정관념 속성 강조'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 유인가를 지닌 성차별적 표현들은 대부분 어떠한 한 성이 가졌을 것이라는 믿는 특정

속성들에 대한 그릇된 신념의 표현이며, 또 이것을 강화(reinforcement)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성별 분업적인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갖게 된다. 즉 여성에 대해서는 가사와 육아에 관련된 속성에 대한 칭찬이거나, 남성이 미처 담당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보완적 역할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여성의 섬세함, 감수성, 청결함, 예민함, 순결함, 아름다움에 대한 칭찬을 담은 표현들이 그것이다. 표현 자체는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전통적 성역할에 머물러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담은 표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부정 유인가의 성차별적 표현은 곧 이러한 전통적 성역할에서 벗어나려는 여성에 대한 처벌(punishment)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여시’, ‘애첩’, ‘된장녀’, ‘양공주’, ‘탕녀’, ‘매춘부’가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 유인가를 지니는 성차별주의를 온정적 성차별주의(benevolent sexism)이라고 한다. 이는 보호적 부성애, 보완적 성역할 분화, 이성애적 친밀감에서 비롯된 성차별주의로서 여성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동반하는 성차별주의를 지칭하는 용어이다(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앞서 결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부정 유인가를 지니거나 노골적인 형태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은 사회가 점차 평등주의적인 규범 사회로 나아감에 따라 감소되어 갈 것이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성역할 분업적인 이데올로기가 유지되는 한, 긍정 유인가를 지닌 은밀하고 온정주의적인 형태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은 여전히 지속되어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긍정 유인가를 지닌 언어 표현 역시 성차별일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으며,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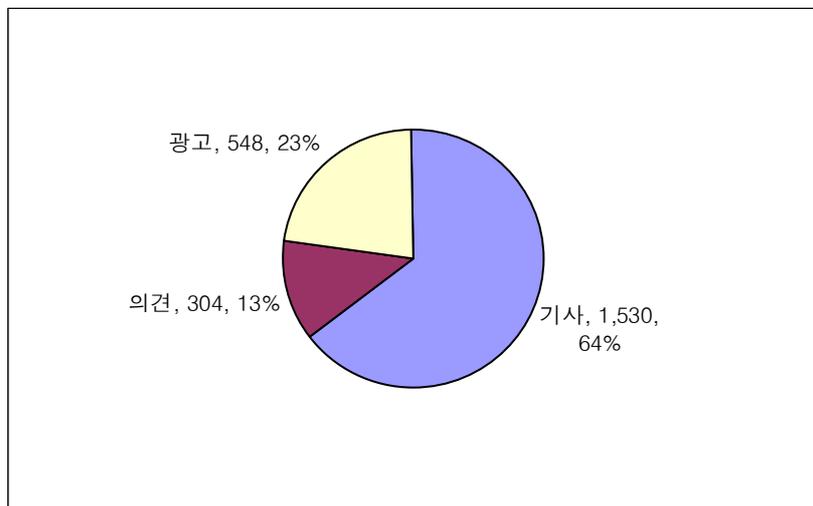
## 나. 매체별 사례 수 및 현황 성차별적 표현 유형

### 1) 신문

#### 가) 사례 수

3개의 일간지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된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사례 수는 모두 2,382개이다. 이 가운데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연예오락/기타 등의 지면에

배치된 기사로부터 수집된 사례가 1,530건, 논설/컬럼/평론 등의 의견에서 선정된 경우가 304개 그리고 나머지 548개 사례는 광고에서 모니터한 것이다(그림 7). 선정된 사례 수가 시사하듯, 글 범주별 총량이 현격히 다른 만큼 신문에서 기사가 특별히 성차별적 언어 사용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글 범주에 따라 성차별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유형이라든지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이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다.



〈그림 7〉 신문의 성차별적 표현 사례의 글 범주 분포

한편 신문의 기사의 경우는 의견 및 광고의 경우와는 달리 분야별 성차별 사례를 구분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기사의 성차별 사례는 사회 468 건, 연예오락 17건, 스포츠 159건, 문화 137건의 순이었다.

〈표 13〉 신문 기사의 분야별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 수

전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예오락	기타
1,530	100	95	468	137	159	160	411

〈표 14〉 신문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유형

대분류	중 간 분 류	소 분 류	사례 수(%)	
가.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① 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 모두를 포괄	①-1 남성형으로 여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1,196 (50.2)	51 (2.1)
		①-2 여성형으로 남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17 (0.7)
	② 호명순서의 불균형: 호명순서가 성차별적인 경우	②-1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		1,107 (46.5)
		②-2 여성이 남성보다 앞서 호명되는 단어		21 (0.9)
나. 불필요한 성별 강조	① 여성 혹은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대체적으로 직업을 지칭)	①-1 여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292 (12.3)	255 (10.7)
		①-2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9 (0.4)
	② 성역할이나 성별 속성을 고정관념화하거나 성별이분법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 맞지 않는 여성(남성)인물의 예외성 강조	②-1 여자의 예외성		23 (1.0)
		②-2 남자의 예외성		5 (0.2)
다.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① 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①-1 여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701 (29.4)	106 (4.5)
		①-2 남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63 (2.6)
	② 한 성과 관련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언어	②-1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여성관련 언어		458 (19.2)
		②-2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남성관련 언어		74 (3.1)
라. 선정적 표현	① 특정 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①-1 여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107 (4.5)	49 (2.1)
		①-2 남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18 (0.8)
	② 특정 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②-1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38 (1.6)
		②-2 남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2 (0.1)
마. 특정성 비하	단어 선택 자체에서 비하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 반말이나 미성숙하고 유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① 여성비하	86 (3.6)	71 (3.0)
		② 남성비하		15 (0.6)
총 계			2,382	100

### 나) 신문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유형

위의 <표 14>는 신문에서 선정된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전체 사례를 유형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문자 중심의 매체인 신문의 특성을 보여주듯,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이 전체 사례 수의 절반 넘는 1,119건(50.2%)이 조사되었고,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가 701건(29.4%), 불필요한 성별 강조가 292(12.3%)건, 선정적 표현이 107건(4.5%), 특정 성 비하 86건(3.6%)의 순을 차지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인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신문에서 발견된 성차별적 언어 v 표현 2,382건 가운데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에 속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4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여성관련 언어 표현’ 19.2%, 그리고 ‘여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이 10.7%로 나타나 이들 유형이 신문에서 이루어지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주된 형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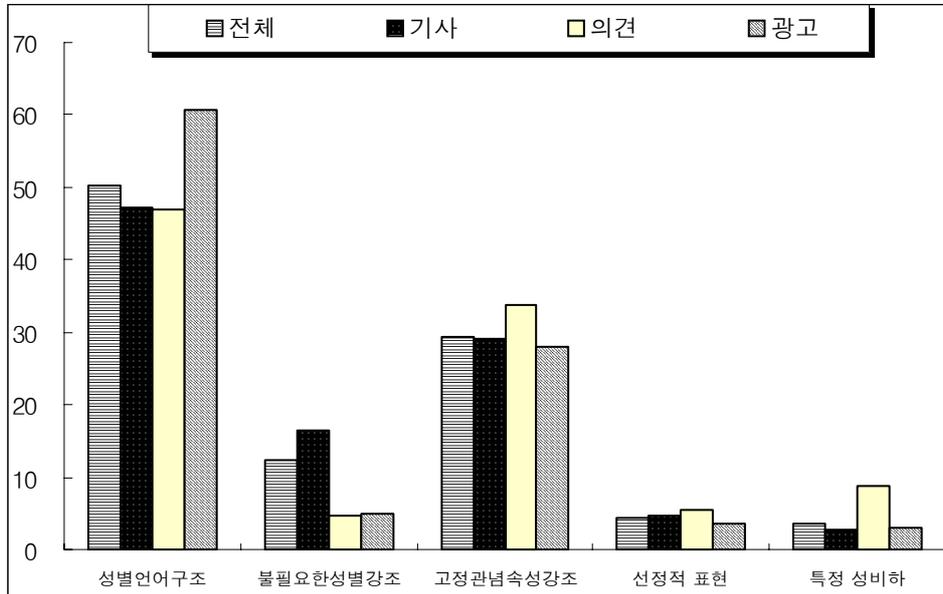
### 다) 신문의 글 범주별 성차별적 표현 유형

다음의 <표 15> 및 <그림 8>은 기사/의견/광고 등 신문의 글 범주별로 구분하여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표 15> 신문 글 범주별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불필요한 성별 강조	고정관념적 속성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 비하	전체
기사	721 (47.1)	251 (16.4)	444 (29.0)	71 (4.6)	43 (2.8)	1,530 (100)
의견	143 (47.0)	14 (4.6)	103 (33.9)	17 (5.6)	27 (8.9)	304 (100)
광고	332 (60.6)	27 (4.9)	154 (28.1)	19 (3.5)	16 (2.9)	548 (100)
전체	1196 (50.2)	292 (12.3)	701 (29.6)	107 (4.5)	86 (3.6)	2,382 (100)

( )안은 %임



〈그림 8〉 신문의 글 범주별 성차별적 표현 유형의 비교

위 <표 15>와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문에서의 글 범주가 무엇이든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이 성차별적 표현의 주된 유형인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에 따라 글 범주 간에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여준다. 이를테면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유형에서는 광고가 타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기사는 ‘불필요한 성별 강조’에서 그리고 의견의 경우는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라든가 ‘특정 성 비하’ 등의 유형에서 다른 글 범주에 비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남성 차별적 표현과 여성 차별적인 표현들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신문이 글 범주 및 남성/여성 차별적 표현 여부에 따라 성차별적 표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16>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 차별적 표현의 경우도 역시 글 범주를 불문하고, 성차별 표현 유형별 분포는 앞서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 표에서는 글 범주별 성차별 표현의 유형의 비율 분포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여성 차별적 표현 내에서 글 범주 간 상대적 비교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표 16〉 신문 글 범주별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성별언어 구조	불필요한 성별강조	고정관념 속성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 비하	전체	
여성차별	기사	696 (50.4)	239 (17.3)	352 (25.5)	53 (3.8)	41 (3.0)	1381 (100)
	의견	140 (50.0)	14 (5.0)	90 (32.1)	16 (5.7)	20 (7.1)	280 (100)
	광고	322 (64.8)	25 (5.0)	122 (24.5)	18 (3.6)	10 (2.0)	497 (100)
		1158 (53.7)	278 (12.9)	564 (26.1)	87 (4.0)	71 (3.3)	2158 (100)
남성차별	기사	25 (16.8)	12 (8.1)	92 (61.7)	18 (12.1)	2 (1.3)	149 (100)
	의견	3 (12.5)	0 (.0)	13 (54.2)	1 (4.2)	7 (29.2)	24 (100)
	광고	10 (19.6)	2 (3.9)	32 (62.7)	1 (2.0)	6 (11.8)	51 (100)
		38 (17.0)	14 (6.3)	137 (61.2)	20 (8.9)	15 (6.7)	224 (100)
	1196(50.2)	292(12.3)	701(29.4)	107(4.5)	86(3.6)	2382(100)	

( )안은 %임

즉 광고의 경우 전체 사례 수에 비해 ‘성별 언어 구조의 관행적 표현’이 여타 글 범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사의 경우 ‘불필요한 성별 강조’가 그리고 의견의 경우는 ‘고정관념 속성 강조’, ‘특정 성 비하’, ‘선정적 표현’에서 다른 글 범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남성 차별적 표현의 경우 224개 사례 중, 남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강조’하는 유형이 가장 많은 137건의 사례가 발견되었고, 이어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의 순으로 사례가 많았다. 글 범주와 대비해서 상대적 비율을 살펴보면, 광고가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유형에서 비교적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는 글 범주 간에 상대적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라) 신문 기사의 분야별 성차별적 표현 유형

이 번 조사에서는 신문의 기사의 경우 7개 분야별 출처를 기준으로 성차별적 표현 사례들을 분류해 보았다. 이들 분야별로 성차별적 표현 유형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남성/여성 성차별적 표현으로 나누어 이를 살펴보았다.

〈표 17〉 신문기사의 분야별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성별언어 구조	불필요한 성별강조	고정관념 속성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 비하	전체	
여성차별	정치	25 (26.6)	21 (22.3)	32 (34.0)	5 (5.3)	11 (11.7)	94 (100)
	경제	73 (83.0)	1 (1.1)	7 (8.0)	4 (4.5)	3 (3.4)	88 (100)
	사회	247 (54.4)	94 (20.7)	94 (20.7)	12 (2.6)	7 (1.5)	454 (100)
	문화	44 (35.5)	21 (16.9)	52 (41.9)	1 (.8)	6 (4.8)	124 (100)
	스포츠	36 (32.1)	29 (25.9)	37 (33.0)	9 (8.0)	1 (.9)	112 (100)
	연예오락	21 (16.9)	26 (21.0)	56 (45.2)	15 (12.1)	6 (4.8)	124 (100)
	기타	250 (64.9)	47 (12.2)	74 (19.2)	7 (1.8)	7 (1.8)	385 (100)
	합계	696 (50.4)	239 (17.3)	352 (25.5)	53 (3.8)	41 (3.0)	1381 (100)
남성차별	정치	-	-	6 (100)	-	-	6 (100)
	경제	-	1 (14.3)	6 (85.7)	-	-	7 (100)
	사회	7 (50.0)	4 (28.6)	3 (21.4)	-	-	14 (100)
	문화	6 (46.2)	-	7 (53.8)	-	-	13 (100)
	스포츠	1 (2.1)	-	44 (93.6)	2 (4.3)	-	47 (100)
	연예오락	4 (11.1)	1 (2.8)	16 (44.4)	14 (38.9)	1 (2.8)	36 (100)
	기타	7 (26.9)	6 (23.1)	10 (38.5)	2 (7.7)	1 (3.8)	26 (100)
	합계	25 (16.8)	12 (8.1)	92 (61.7)	18 (12.1)	2 (1.3)	149 (100)
	721 (47.1)	251 (16.4)	444 (29.0)	71 (4.6)	43 (2.8)	153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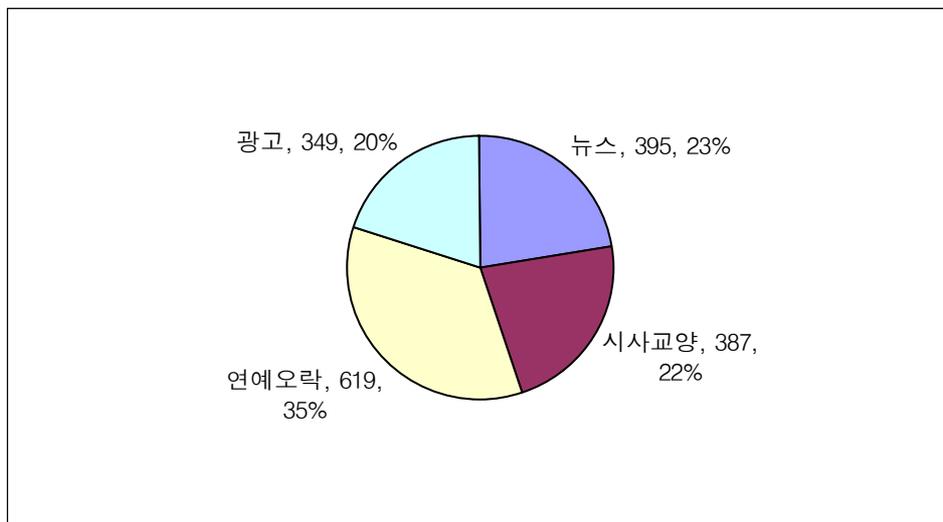
( )안은 %임

위의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 차별적 표현은 유형별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별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여성의 ‘성별고정관념 강조’에서 많은 사례가 발견되었다. 신문기사의 분야 별로 보면, 여성차 차별적 표현 사례는 사회 분야, 연예오락, 스포츠 분야의 기사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성차별 사례가 많았던 ‘성별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과 ‘성별고정관념 강조’를 중심으로 어떤 분야가 이들 성차별적 표현의 상대적 비율이 높은지를 살펴본 결과,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의 경우, 경제와 사회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그리고 성별 고정관념 강조의 경우는 연예오락과 문화, 정치 분야가 여타 분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 2) 방송

### 가) 사례 수

3개 중앙방송사의 4개 공중파 채널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된 성차별적 언어 사용 사례 수는 모두 1,750개다. 이를 그래프로 도식화 하면 <그림 9>와 같다.



<그림 9> 방송의 성차별적 표현 사례의 프로그램 형태 분포

이 가운데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연예오락/기타 등의 분야로 나뉘어지는 뉴스 프로그램의 경우는 395개의 성차별적 표현 사례가 발견되었고(표 20 참조),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는 387건,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경우는 619건 그리고 나머지 349개 사례는 광고에서 발견된 사례들이다. 방송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형태별로 사용된 언어의 총량이 다르므로, 사례 수가 많이 수집된 프로그램 형태를 가리켜 보다 성차별적이라 하기는 어렵다. 다만 방송 전체의 성차별적 표현의 주요 경향과 더불어 프로그램 형태별로 성차별적 언어 사용 경향이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표 18〉 방송 뉴스의 성차별적 표현 사례 수

전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예오락	기타
482	14	1	220	25	99	32	91

#### 나) 성차별적 언어 표현 유형

다음의 <표 19>는 방송에서 선정된 성차별적 언어 사용 사례 전체를 유형화한 것이다.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유형에 속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45.5%) 가운데, 언어 중심의 매체 특성을 보여주듯 여타 매체에 비해 성차별적 언어 사용이 비교적 유형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22.6%)와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여성관련 언어’(22.2%) 등의 세부유형이 ‘여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10.2%)하거나 ‘여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10.1%) 등과 함께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성차별적 표현의 주된 형태임을 보여준다.

#### 다) 방송의 프로그램 형태별 성차별적 표현 유형

아래 <표 20> 및 <그림 10>은 방송 프로그램 형태별로 구분하여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을 살펴본 것이다.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에 속하는 성차별적 언어 사용 사례가 가장 많은(45.6%) 뉴스를 제외하고는, 시사교양/연예오락/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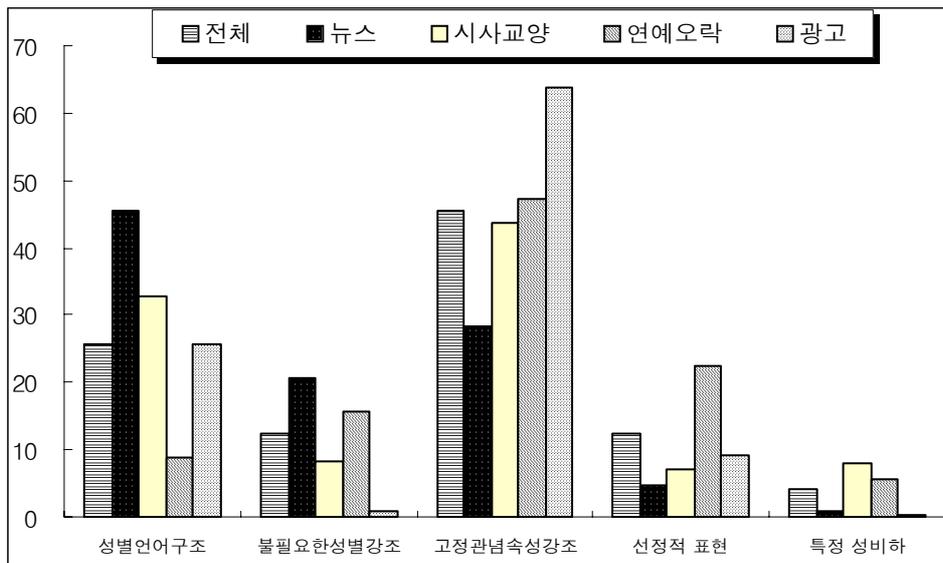
〈표 19〉 방송의 성차별적 표현 유형

대분류	중 간 분 류	소 분 류	사례 수(%)	
가. 성별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① 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 모두를 포괄	①-1 남성형으로 여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452 (25.8)	34 (1.9)
		①-2 여성형으로 남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4 (0.2)
	② 호명순서의 불균형 : 호명순서가 성차별적인 경우	②-1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		396 (22.6)
		②-2 여성이 남성보다 앞서 호명되는 단어		18 (1.0)
나. 불필요한 성별 강조	① 여성 혹은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대체적으로 직업을 지칭)	①-1 여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215 (12.3)	179 (10.2)
		①-2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9 (0.5)
	② 성역할이나 성별 속성을 고정관념화하거나 성별이분법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 맞지 않는 여성(남성)인물의 예외성 강조	②-1 여자의 예외성		15 (0.9)
		②-2 남자의 예외성		12 (0.7)
다.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① 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①-1 여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797 (45.5)	176 (10.1)
		①-2 남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140 (8.0)
	② 한 성과 관련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언어	②-1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여성관련 언어		388 (22.2)
		②-2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남성관련 언어		93 (5.3)
라. 선정적 표현	① 특정 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①-1 여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216 (12.3)	86 (4.9)
		①-2 남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35 (2.0)
	② 특정 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②-1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82 (4.7)
		②-2 남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13 (0.7)
마. 특정 성 비하	단어 선택 자체에서 비하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 반말이나 미성숙하고 유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① 여성비하	70 (4.0)	58 (3.3)
		② 남성비하		12 (0.7)
총 계				1,750(100)

〈표 20〉 방송 프로그램 형태별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성별언어 구조	불필요한 성별강조	고정관념 속성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 비하	전체
뉴스	180 (45.6)	82 (20.8)	112 (28.4)	18 (4.5)	3 (0.8)	395 (100)
시사교양	127 (32.8)	32 (8.3)	169 (43.7)	28 (7.2)	31 (8.0)	387 (100)
연예오락	55 (8.9)	98 (15.8)	293 (47.3)	138 (22.3)	35 (5.7)	619 (100)
광고	90 (25.8)	3 (0.9)	223 (63.9)	32 (9.2)	1 (0.3)	349 (100)
전체	452 (25.8)	215 (12.3)	797 (45.5)	216 (12.3)	70 (4.0)	1750 (100)

( )안은 %임



〈그림 10〉 방송 프로그램 형태별 성차별적 표현 유형간 비교

등 프로그램에서는 모두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유형에 속하는 성차별적 언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에 따라 프로그램 형태 간 비교를 통해서 해보면,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스는 ‘성별 언

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및 '불필요한 성별 강조' 등 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광고는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유형에서, 연예오락 프로그램은 '선정적 표현'에서 그리고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특정 성 비하' 유형에서 각기 타 프로그램 형태에 비해 각기 두드러진다. 말하자면 방송 프로그램 형태에 따라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에 상대적 차이가 있는 셈이다.

남성 차별적 표현과 여성 차별적인 표현들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송의 프로그램 형태 및 남성/여성 차별적 표현 여부에 따라 성차별적 표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표 21>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 및 방송 프로그램 형태별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성별언어 구조	불필요한 성별강조	고정관념 속성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비하	전체
뉴스	179 (54.6)	75 (22.9)	56 (17.1)	17 (5.2)	1 (3)	328 (100)
시사	115 (32.1)	31 (8.7)	158 (44.1)	26 (7.3)	28 (7.8)	358 (100)
여성차별 연예	46 (9.7)	88 (18.6)	216 (45.8)	93 (19.7)	29 (6.1)	472 (100)
광고	90 (35.2)	-	134 (52.3)	32 (12.5)	-	256 (100)
합계	430 (30.4)	194 (13.7)	564 (39.9)	168 (11.9)	58 (4.1)	1,414 (100)
뉴스	1 (1.5)	7 (10.4)	56 (83.6)	1 (1.5)	2 (3.0)	67 (100)
시사	12 (41.4)	1 (3.4)	11 (37.9)	2 (6.9)	3 (10.3)	29 (100)
남성차별 연예	9 (6.1)	10 (6.8)	77 (52.4)	45 (30.6)	6 (4.1)	147 (100)
광고	-	3 (3.2)	89 (95.7)	-	1 (1.1)	93 (100)
합계	22 (6.5)	21 (6.3)	233 (69.3)	48 (14.3)	12 (3.6)	336 (100)
전 체	452 (25.8)	215 (12.3)	797 (45.5)	216 (12.3)	70 (4.0)	1,750 (100)

( )안은 %임

<표 21>에서 보는 것처럼, 신문과 달리 방송의 경우는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가 가장 많은 매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여성 차별적 표현의 경우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정관념 속성 강조에서 시사, 연예,

광고 등의 프로그램 형태별로 고르게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선정적 표현에 있어서는 연예오락 프로그램이 여타 프로그램 형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과 ‘불필요한 성별 강조’의 경우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는 남성 차별적인 표현 사례들도 상당수 발견되었는데 이들 사례는 주로 남성의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와 선정적 표현들에서 주로 집중되었다. 대체로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남성에 대한 성차별적 언어표현들이 전체 336건 가운데 147건이 있었고, 이들은 고정관념적 속성과 선정적 표현에 속하는 차별적 표현들이었다. 성차별적 표현 유형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형태 간의 상대적 비교를 보면, 광고와 뉴스는 여타 유형들에 비해서 남성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에 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라) 방송 뉴스 분야별 성차별적 표현 유형

방송 뉴스의 경우도 역시 7개 분야별 출처를 기준으로 성차별적 표현 사례들을 분류하였다. 이들 분야별로 성차별적 표현 유형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여성/남성 성차별적 표현 여부에 따라 이를 살펴보았다.

<표 22>는 여성/남성 성차별적 표현 여부 및 방송 뉴스 분야에 따른 성차별적 표현 유형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뉴스의 공공성과 객관성이 여타 매체에 비해 높았던 탓에 성차별적 표현 사례가 비교적 적은 경향을 보였다. 방송 뉴스에서 주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은 호명의 순서와 관련한 성차별적 표현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고 사회 분야의 뉴스에 이들 사례가 주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 분석에서 주목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의 경우, 스포츠 뉴스에서 사용되는 언어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성별 불균형이 다소 크게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여성 스포츠인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요정’, ‘흑진주’, ‘미녀새’와 명명을, 남성 스포츠인을 묘사할 때에는 ‘탱크’, ‘황제’, ‘영웅’로 명명함으로써 성별간 불균형적인 언어 사용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22〉 방송 뉴스의 분야 별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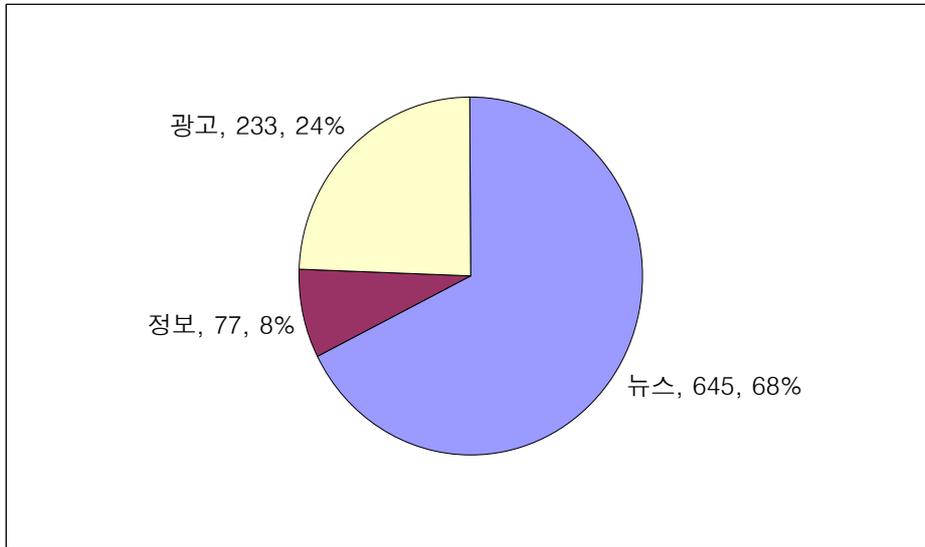
	성별언어 구조	불필요한 성별강조	고정관념 속성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 비하	전체	
여성차별	정치	-	12 (85.7)	2 (14.3)	-	-	14 (100)
	경제	-	1 (100)	-	-	-	1 (100)
	사회	147 (69.0)	31 (14.6)	32 (15.0)	2 (.9)	1 (.5)	213 (100)
	문화	16 (76.2)	1 (4.8)	4 (19.0)	-	-	21 (100)
	스포츠	4 (9.1)	12 (27.3)	13 (29.5)	15 (34.1)	-	44 (100)
	연예오락	4 (14.3)	16 (57.1)	7 (25.0)	1 (3.6)	-	28 (100)
	기타	54 (65.9)	7 (8.5)	19 (23.2)	2 (2.4)	-	82 (100)
	합계	225 (55.8)	80 (19.9)	77 (19.1)	20 (5.0)	1 (.2)	403 (100)
남성차별	정치	-	-	-	-	-	-
	경제	-	-	-	-	-	-
	사회	-	2 (28.6)	5 (71.4)	-	-	7 (100)
	문화	-	-	2 (50.0)	-	2 (50.0)	4 (100)
	스포츠	-	5 (9.1)	49 (89.1)	1 (1.8)	-	55 (100)
	연예오락	-	-	4 (100.0)	-	-	4 (100)
	기타	5 (55.6)	1 (11.1)	3 (33.3)	-	-	9 (100)
	합계	5 (6.3)	8 (10.1)	63 (79.7)	1 (1.3)	2 (2.5)	79 (100)
전 체	230 (47.7)	88 (18.3)	140 (29.0)	21 (4.4)	3 (.6)	482 (100)	

( )안은 %임

### 3) 인터넷

#### 가) 사례 수

인터넷에서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는 3개의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된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는 총 955건이었다. 이 가운데 뉴스에서 조사된 사례는 645건, 정보 관련 글 범주에서 조사된 사례가 77건 이었고 나머지 233개 사례는 광고에서 조사된 것이다(그림 11). 다른 매체에서처럼 역시 이 같은 사례 수 차이가 곧 해당 글 범주의 성차별적 언어 사용 경향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전제로, 인터넷 언어의 성차별적 사용 경향을 보기로 한다.



〈그림 11〉 인터넷의 성차별적 표현 사례의 글 범주 분포

한편 인터넷 뉴스에서 조사된 성차별 사례 647건을 분야별로 보여주는 것이 <표 23>이다.

〈표 23〉 인터넷 뉴스의 분야별 성차별적 표현의 사례 수

전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예오락	기타
647	9	14	113	15	175	210	91

인터넷 뉴스에서 성차별적 표현 사례가 가장 많은 분야가 연예오락과 스포츠 분야 그리고 사회 분야 뉴스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나)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

인터넷에서 조사된 성차별적 언어 사용 사례들을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 <표 24>이다.

〈표 24〉 인터넷의 성차별적 언어표현 유형

대분류	중 간 분 류	소 분 류	사례 수(%)	
가. 성별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① 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 모두를 포괄	①-1 남성형으로 여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210 (22.0)	33 (3.5)
		①-2 여성형으로 남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1 (0.1)
	② 호명순서의 불균형 : 호명순서가 성차별적인 경우	②-1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		174 (18.2)
		②-2 여성이 남성보다 앞서 호명되는 단어		2 (0.2)
나. 불필요한 성별강조	① 여성 혹은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대체적으로 직업을 지칭)	①-1 여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86 (9.0)	83 (8.7)
		①-2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
	② 성역할이나 성별 속성을 고정관념화하거나 성별이분법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 맞지 않는 여성(남성)인물의 예외성 강조	②-1 여자의 예외성		2 (0.2)
		②-2 남자의 예외성		1 (0.1)
다.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① 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①-1 여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405 (42.4)	277 (29.0)
		①-2 남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43 (4.5)
	② 한 성과 관련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언어	②-1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여성관련 언어		50 (5.2)
		②-2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남성관련 언어		35 (3.7)
라. 선정적 표현	① 특정 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①-1 여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222 (23.2)	94 (9.8)
		①-2 남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18 (1.9)
	② 특정 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②-1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107 (11.2)
		②-2 남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3 (0.3)
마. 특정 성비하	단어 선택 자체에서 비하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 반말이나 미성숙하고 유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① 여성비하	32 (3.4)	30 (3.1)
		② 남성비하		2 (0.2)
총 계			955(100)	

위의 <표 24>를 보면 인터넷 역시 방송 매체와 마찬가지로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유형에 속하는 성차별 사례가 405건(42.4%)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매체가 갖는 익명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적 표현’ 유형에 속하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이 비교적 공공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신문이나 방송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세부유형별로 좀 더 살펴보면, ‘여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가 955건의 성차별적 표현 사례 중 277건으로 29.0%를 차지하였고,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가 174건으로 18.3%였으며, 선정적 표현 유형에 속하는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에서 107건으로 1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주된 형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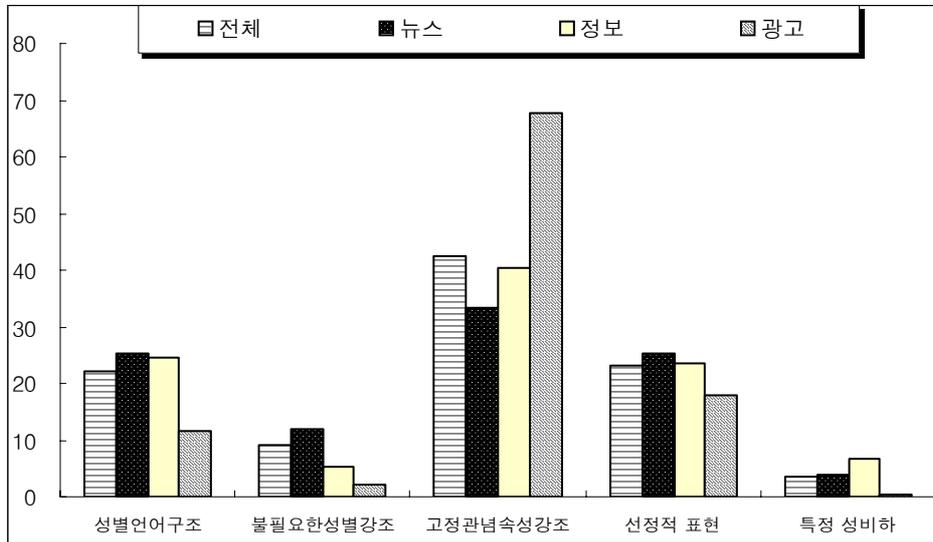
#### 다) 인터넷의 글 범주별 성차별적 표현 유형

인터넷의 뉴스/정보/광고 등 인터넷 글 범주별로 구분하여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을 살펴 본 것이 <표 25> 및 <그림 12>이다. 이 결과는 글 범주가 무엇이든 범주들 전반에 걸쳐 ‘성별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가 인터넷에서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주된 유형임을 보여 준다. 또한 성차별적 표현 유형별로 글 범주간 비교를 해 보면, 광고가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유형에서 타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타 매체에서와는 달리 성차별적 언어 사용을 둘러싸고 그다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표 25> 인터넷 글 범주별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성별언어 구조	불필요한 성별강조	고정관념 속성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 비하	전체
뉴스	164 (25.4)	77 (11.9)	216 (33.5)	162 (25.1)	26 (4.0)	645 (100)
정보	19 (24.7)	4 (5.2)	31 (40.3)	18 (23.4)	5 (6.5)	77 (100)
광고	27 (11.6)	5 (2.1)	158 (67.8)	42 (18.0)	1 (0.4)	233 (100)
전체	210 (22.0)	86 (9.0)	405 (42.4)	222 (23.2)	32 (3.4)	955 (100)

( )안은 %임



〈그림 12〉 성차별적 표현 유형별 인터넷 글 범주간 비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터넷 매체가 여타 매체와 달리 성차별적 표현 유형별로 글 범주 간 두드러진 특징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성차별적 언어 사용이 적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차별적 언어 표현이 글 범주별로 고르게 분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쇄매체인 신문이 ‘성별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이 기사, 의견, 광고에서 모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상매체인 방송의 경우는 ‘성별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가 연예오락과 광고에 두드러졌던데 비해서 익명의 가상공간의 특성을 지닌 인터넷의 경우는 ‘성별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는 물론 ‘성별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선정적 표현’에서 뉴스, 정보, 광고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의 경우는 조사방법에 따른 편차가 매우 극심한 경향이 있는데 하이퍼텍스트의 위계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조사하느냐에 따라서도 나타나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사례 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얻은 사례들은 초기 화면과 이 화면에서 1회 클릭으로 들어간 표면적 수준에서의 성차별적 사례들이라 하겠다. 따라서 게시판이나 댓글 부분의 내용까지도 조사범위에 넣었을 경우 사례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이러한 조사 범위의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통해서도 인터넷 매체가 가진 성별 간 불평등성과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차별적 언어표현의 실상을 가늠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앞서의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인가에 관한 <표 12>의 분석결과에서 부정 유인가를 지닌 ‘여성 차별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 현격히 높았던 사실에서도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이번 조사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의미의 유인가(誘引價)를 지닌 사례가 모두 1,520개에 달하였고, 이 중 여성에 대해 부정적 유인가를 지닌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만을 살펴보면, 신문의 경우는 유인가를 지닌 423개 사례 중 119건(28.1%)이었고, 방송매체의 경우는 709개 사례 중 111건(15.7%)이었던 것에 비해서, 인터넷의 경우는 388건 중 112건(2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비친화적인 인터넷의 언어 실태를 반영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또한 앞서의 매체별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에 따른 ‘성차별적 언어 표현 유형’ 간 비교, 즉 <표 10>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차별적 표현의 성별 간 불균형이 가장 크게 나타난 매체가 신문과 인터넷이었다. 따라서 인터넷의 경우 글 범주별로 보았을 때, 어떤 유형의 성차별적 표현에 이러한 불균형이 집중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표 26>은 여성/남성 차별 표현 및 글 범주별에 따라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이 어떻게 분포하는 지를 제시한 것이다.

우선 이 표에서 보면, 여성 차별적 표현과 남성 차별적 표현 사례 수에서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956개 사례 가운데 여성 차별적인 표현은 851건이었고, 남성차별적인 표현은 105개였다.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 모두 뉴스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발견되었고, 여성 차별적 표현은 광고에서도 상당수의 성차별 사례가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성 차별적 표현이 가장 많았던 뉴스의 경우,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전반에 걸쳐 높은 차별을 보였는데,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28.7%, ‘여성의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27.2%, ‘선정적 표현’에서 26.7%의 순으로 높았다. 뉴스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의 경우도 26개 사례(4.6%)가 발견되어 뉴스에서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 사례가 없었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여성 비하적 표현 사례는 “마담뚜”, “매춘부”, “양공주” 등이었다.

〈표 26〉 여성/남성 차별 표현 및 인터넷 글 범주별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성별언어 구조	불필요한 성별강조	고정관념 속성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 비하	전체	
여성차별	뉴스	161 (28.2)	76 (13.3)	155 (27.2)	153 (26.8)	26 (4.6)	571 (100)
	정보	19 (29.7)	4 (6.3)	28 (43.8)	10 (15.6)	3 (4.7)	64 (100)
	광고	27 (12.5)	5 (2.3)	144 (66.7)	39 (18.1)	1 (.5)	216 (100)
	합계	207 (24.4)	85 (10.0)	327 (38.5)	201 (23.7)	30 (3.5)	851 (100)
남성차별	뉴스	3 (4.0)	1 (1.3)	61 (81.3)	10 (13.3)	-	75 (100)
	정보	-	-	3 (23.1)	8 (61.5)	2 (15.4)	13 (100)
	광고	-	-	14 (82.4)	3 (17.6)	-	17 (100)
	합계	3 (2.9)	1 (1.0)	78 (74.3)	21 (20.0)	2 (1.9)	105 (100)
전 체	210 (22.0)	86 (9.0)	405 (42.4)	222 (23.2)	32 (3.4)	956 (100)	

( )안은 %임

인터넷 광고의 경우, 여성 고정관념적 속성을 강조하는 사례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뉴스나 광고에 비해서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 차별적 표현은 뉴스와 광고 모두 ‘남성의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에서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고, 간혹 남성을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들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정보, 광고에서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이나 불필요한 성별 강조에서 남성 차별적인 표현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 라) 인터넷 뉴스 분야별 성차별적 표현 유형

마지막으로 인터넷 뉴스를 분야별로 구분한 다음, ‘여성/남성 차별적 표현’에 따른 ‘성차별적 표현 유형’의 분포를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사이트에 제시되는 뉴스가 기존 언론사에서 제공되는 기사에 대한 단순한 링크형식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서 다른 매체의 기사 및 뉴스와 중복이거나 사례 수에 대한 과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실상은 대부분의 포털사이트의 경우 게이트 관리자가 기사의 제목 및 내용을 재가공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각 언론

사들 역시 기사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 기사를 고르는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터넷 뉴스는 각 포털사이트의 특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동일한 뉴스라 하더라도 포털사이트가 이를 선별한다는 점에서 포털사이트 내의 성차별적 언어 사용의 실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27> 여성/남성 차별 표현 및 인터넷 뉴스 분야별 성차별적 표현의 유형

	성별언어 구조	불필요한 성별강조	고정관념 속성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 비하	전체	
여성차별	정치	3 (33.3)	2 (22.2)	-	-	4 (44.4)	9 (100)
	경제	13 (92.9)	1 (7.1)	-	-	-	14 (100)
	사회	57 (51.4)	29 (26.1)	19 (17.1)	-	6 (5.4)	111 (100)
	문화	3 (27.3)	2 (18.2)	5 (45.5)	1 (9.1)	-	11 (100)
	스포츠	11 (8.3)	15 (11.3)	37 (27.8)	65 (48.9)	5 (3.8)	133 (100)
	연예오락	28 (14.0)	16 (8.0)	75 (37.5)	72 (36.0)	9 (4.5)	200 (100)
	기타	46 (49.5)	11 (11.8)	19 (20.4)	15 (16.1)	2 (2.2)	93 (100)
	합계	161 (28.2)	76 (13.3)	155 (27.1)	153 (26.8)	26 (4.6)	571 (100)
남성차별	정치	-	-	-	-	-	-
	경제	-	-	-	-	-	-
	사회	-	-	1 (50.0)	1 (50.0)	-	2 (100)
	문화	-	1 (25.0)	2 (50.0)	1 (25.0)	-	4 (100)
	스포츠	-	-	40 (95.2)	2 (4.8)	-	42 (100)
	연예오락	2 (20.0)	-	1 (10.0)	7 (70.0)	-	10 (100)
	기타	1 (5.6)	-	17 (94.4)	-	-	18 (100)
	합계	3 (3.9)	1 (1.3)	61 (80.3)	11 (14.5)	-	76 (100)
전 체	164 (25.3)	77 (11.9)	216 (33.4)	164 (25.3)	26 (4.0)	647 (100)	

( )안은 %임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터넷 뉴스에서는 남성 차별적 언어 표현보다 여성차별적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아서(76건 vs. 571건), 대부분이 여성 차별적인 뉴

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야별로는 연예오락, 스포츠, 사회 분야에서 성차별적 표현 사례가 많았다. 남성 차별적인 사례는 스포츠 분야에서 많았다. 여성 차별적 표현 사례는 이들 분야에서 성차별적 표현 유형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만 특히 ‘여성의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와 ‘선정적 표현’에 주로 집중되어 있었고, 사회 분야의 뉴스에서는 ‘성별 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에서 많은 사례가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소결

지금까지 대중매체에서 성차별적 언어 표현에 관한 사례조사 결과를 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남성차별적인 언어 표현보다는 여성차별적인 언어 표현들이 대중매체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사례조사를 위해 조사 시간과 기간을 일정하게 하고 모니터링 전문 요원들을 활용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신문, 방송,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들 간의 이질적 특성이 존재하고 또 동일 매체라 하더라도 각 언론사별로 프로그램 유형과 내용이 매우 다양하였기 때문에 조사의 대상과 범위를 엄격하게 통제한 총량 조사를 실시하기는 어려웠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엄밀한 기준들에 입각해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매체간 비교와 조사 대상이 되는 각 언론사들 간의 객관적인 비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의 양적 분석은 매체와 언론사의 성차별성을 직접 비교하기 보다는 조사된 전체 사례를 중심으로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 표현 구조단위, 남성/여성 차별적 표현 그리고 이들 표현의 긍정/부정 유인가를 중심으로만 검토하였다. 앞으로 조사 대상의 총량을 확인할 수 있는 좀 더 계량화된 조사가 실시된다면, 방송사간 혹은 신문사나 포털사이트 간의 비교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교적 제한된 범위에서 분석이 진행되었지만 몇 가지 의미 있는 발견이 있었다. 즉 우리말의 관용화된 성별언어구조가 매우 정형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을 표준으로 하여 여성까지도 포괄하는 표현들도 상당수 확인 되었고, 그 중에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부분에서까지도 남성으로 여성을 포괄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남성을 표준으로 삼아 부정적인 것에서조차 남성을 전제로 표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우리 언어구조가 남성을 표준으로 호명순서를 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소한 단서들조차 성불평등적인 언어사용과 성별의식이 유지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칭의 불균형과 남성 중심의 충청어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데 의미 있는 조사 결과로 해석된다.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대중매체에서는 성별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강조하는 언어 표현들이 전체 사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 가운데에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언어 표현, 즉 모성애, 현모양처형의 여성상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여성의 역할을 전통적인 성역할에 한정지어서 표현되는 경향이 많았다. 또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특정 속성 즉, “요정”, “유혹”, “여성미”, “여성스러움”, “여우 짓” 등의 표현으로 묘사하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남성과 여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강조하는 언어 표현들의 경우, 부정적 유인가를 갖는 속성들에 비해서 화자에게 일견 긍정적 유인가를 지니는 것으로 여겨지는 의미를 갖는 속성(주관적으로 볼 때)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표현들은 특정 성 비하로 분류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분류를 포함하고서라도 전체 사례 가운데 특정 성을 노골적으로 폄하하거나 배척하는 표현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이는 노골적인 성차별적 표현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성평등 규범의 사회적 영향도 일조 하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여성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호의적이라고 보이는 표현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여성의 고정관념적 속성들을 강조하는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명백한 성차별적 언어 표현만이 성차별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여성에 대해 보호적 여성주의에 근거한 표현, 성별 분업적 시각에 입각해 남성의 역할에 대한 보완적 시각에 따른 온정주의적인 언어 습관 역시 성차별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대중매체에서 온정주의적인 성차별언어 사용 실태에 관한 관심과 조사가 병행 될 수 있는 환경과 노력이 요구된다. 더구나 현대 사회는 평등규범이 강화됨에 따라 노골적인 성차별적 표현보다는 주관적으로는 긍정적이고 보다 은밀하고도 교묘한 방식의 성차별적 표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호의적인 표현 속에 내재된 성차별적 언어 표현들에

주목하고, 이런 방식의 사례조사가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에 관한 확장된 개념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편 신문의 경우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이 많았고, ‘성별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가 뒤를 잇는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송과 인터넷 매체의 경우는 ‘성별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의 표현 유형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성별 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불필요한 성별 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 비하’의 표현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글 범주별로 차별적 표현의 사례 수를 살펴보면 신문의 기사, 광고, 의견의 순으로 많았지만, 범주간 상대적 비교를 통해 보았을 때는 의견에서의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가 여타 범주에 비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였다. 분야별로는 사회 분야에서 여성 차별적 표현이 많이 발견되었고, 주로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이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문화, 연예오락, 스포츠 분야에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부분의 매체는 특히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와 ‘선정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평등 의식교육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이번 사례 조사와 같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성차별적 언어 표현이 갖는 문제의 지점들이 좀 더 명확히 규정될 수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안들도 모색되어질 수 있으리라 짐작된다. 예컨대, 방송 종사자들에 대한 성평등의식교육, 특히 그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언어와 성별의식간의 밀접한 관계를 검열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는 제도화되어 있는 “각 기관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에 반영할 수도 있고, 정기적 양성 평등의식교육도 병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송종사자 스스로가 이러한 성차별성을 자각할 수 있는 의식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안될 수 있다. 예컨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나 한국여성민우회 등에서 방송언어의 성차별성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제작 배포하는 일과, 남녀평등의식검사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를 활용한 자기진단 기회를 제공하는 일 등이 가능하겠다.

## 5. 대중매체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사례

### 가. 유형별 대표적 사례

#### 1) 성별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성별화된 언어구조가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이미 관용적으로 흔히 쓰여 지고 있어서 성차별적인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으나 암묵적으로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성차별적인 표현의 사례들이다. 이 유형의 사례는 특정 성을 지칭하는 단어(남성형 단어, 여성형 단어)로 남녀를 모두 포괄하여 지칭하고 있다. 또한 호칭 순서가 성차별적인 경우로서 남성을 표준으로 앞에 호명하고 여성을 뒤에 두는 경우, 반면에 남성에 앞서 여성이 먼저 호명되는 표현 사례들이 있다.

#### 가) 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를 모두 포괄

특정 성을 통칭하여 다른 성까지도 포괄하는 표현들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남성형으로 여성까지도 포괄하는 표현과 여성형으로 남성까지도 포괄하는 표현으로 나뉘어진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대표적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이들 표현들은 양성을 동등하게 명명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거나, 중성적인 대안적 표현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얼굴마담’, ‘바지사장’은 대리사장으로, ‘신사협정’은 명예협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남성형으로 여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 ① 삼성맨, 셀러리맨, 세일즈맨, 영업맨, 예스맨(신문)
  - ☞ ‘맨’이라는 남성형 단어로 남녀를 모두 포괄함.
- ② 소년원(신문)
- ③ 바지사장(신문)
  - ☞ 바지사장(명목상대표)에 지나지 않고...
- ④ 신사협정(신문)

- ☞ 약속이란 남성들만의 전유물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표현
- ⑤ 효자상품(신문)
- ⑥ 병역 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 근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신문)
  - ☞ 남성으로 대표하는 채용광고 문구
- ⑦ 어부(신문, 방송, 인터넷)
  - ☞ 남성을 직업인의 대명사로 지칭
- ⑦ 형제(방송)
  - ☞ 6형제(형, 여동생 등 여자, 남자 형제를 총칭)

(2) 여성형으로 남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 ① 사모님식 투자(신문)
  - ☞ 전문성이 결여된 투자 방식을 상징적으로 표현
- ② 얼굴마담(신문)
  - ☞ 회사 홍보용 ‘얼굴마담’으로 톱스타를 영입..
- ③ 모교, 팔방미인(신문)
- ④ 자매결연(인터넷)

**나) 호명순서의 불균형: 호명순서가 성차별적**

호칭의 불균형은 호명순서가 성차별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 성을 앞에 두고 다른 성을 보조적으로 뒤에 두어 호명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호칭의 순서로 남성을 여성보다 먼저 호칭하는 것이다. 호칭을 할 때는 두 성 중 하나만을 먼저 부를 수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성평등한 방법은 없으나 합리적 기준이 있는 경우 여성을 먼저 부르기도 하는 다양한 호명 방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1)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

- ① 부모, 학부모, 조부모, 한부모
- ② 소년소녀, 선남선녀, 무남독녀

- ③ 신사숙녀
- ④ 아들딸, 자녀, 남매, 오누이
- ⑤ 이인제, 신국환, 김민석, 장상 후보의 4과전(인터넷)
  - ☞ 가나다 순, 기호 순, 지지도 순 등 그 어떤 순서에도 부합되지 않는 호명 순서

(2) 여성이 남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

- ① 엄마아빠(신문)
- ② 모부자가정, 편모편부(신문)
- ③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 ④ 할머니 할아버지
- ⑤ 어머님 아버님

2) 불필요한 성별 강조

불필요한 성별 강조는 기사나 방송진행 등에서 성별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데 구태여 성별을 드러냄으로써 결과적으로 성차별적 시각을 드러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유형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여성 전문가 혹은 여성 인사의 성별화이다. 여성이 정치가, 원장, 작가 등일 때 여성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는 이런 직업에서 여성의 예외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에 반해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경우는 남성이 소수자일 때, 혹은 전형적으로 남성적인 영역으로 간주되지 않는 곳에 남성이 위치할 때이다. 이는 남성이 다수인 것이 정상이라는 전제를 보여주거나 우리 사회를 남성적 영역과 여성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효과를 가진다.

가) 여성 혹은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1) 여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 ① 000(여.35)씨의 권력비호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이 000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인비리 혐의로 수사를 확대(신문)

- ☞ 여성만 성별 표시
- ② 서울 종로구의원 000(45.여)씨(신문)
  - ☞ 여성만 성별 표시
- ③ 여두목(신문, 방송, 인터넷)
- ④ 여자 장사, 여전사(신문)
- ⑤ 여경, 여기자, 여류 건축가, 여배우, 여성 개발자, 여성 대변인, 여성 아나운서, 여성 작곡가, 여성 헬기 조종사(신문)
- ⑥ 주부선수(신문)
- ⑦ 여 원장((방송)
  - ☞ 어린이집 여 원장(어린이집 차량사고)
- ⑧ 여성 과학자, 여자웨이터, 여종업원(방송)
- ⑨ 여자 사기단(방송)
  - ☞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밝혀진 3인조 여자 사기단
- ⑩ 커리어 우먼(방송)
  - ☞ 사랑보다 일을 중시하는 커리어 우먼
- ⑪ 女광팬(인터넷)
  - ☞ 女광팬.. 기자 마찰 브래드피트
- ⑫ 여성 원조 로비스트(인터넷)

(2)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 ① 남자 고등학생(방송)
  - ☞ 등교하는 남자 고등학생을 폭행하고 납치
- ② 남자 리듬체조선수(방송)

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한 예외성 강조

특정 여성 혹은 남성이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주로 여성은 강하게, 남성은 예쁘게 표현한다. 특히 직업적 역량이 탁월한 능력 있는 여성에 대해 남성적 수식어로 표현함으로써 예외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1) 여자의 예외성

① 당찬 여성(신문)

☞ 155cm의 작은 키에 스타카토의 억양으로 말을 빨리 내뱉는 당찬 여성

② 남자같은 힘 있는 스윙(신문)

☞ 남자=힘 이라는 고정관념을 드러냄

③ 여장부(신문, 방송)

④ 킹콩걸 신드롬(신문)

⑤ ‘알파걸’ 등쌀?.. 女高 되어가는 외고(인터넷)

(2) 남자의 예외성

① 속맥같은 남자(신문)

② 남성도 여성만큼 수다스럽다(인터넷)

③ 다소곳한 여인네처럼(방송)

☞ 십자수를 놓는 77세 할아버지.. 다소곳한 여인네처럼 바느질

④ 흐느적 흐느적

☞ 흐느적흐느적 ... 섹시&큐티 모델

3)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고정관념적 속성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전형적인 사고에 근거한다. 모니터 사례에서 드러나는 고정관념은 여성은 아름다움, 날씬함, 조신함, 조심스러움, 어림, 순결함과 남성은 강함, 정의로움, 야성적, 폭력적임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오락방송의 경우 이러한 이분법이 과도하게 사용되는데 남성에게는 탱크, 박력가이, 야수 등 강하고 폭력적인 자로서 은유가, 여성에게는 가냘픈 외모, 청순가련, 애교 등 아름답고 연약하고 종속적인 자로서의 비유가 대조된다.

가) 특정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

(1) 여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 ① 가냘픈 외모(방송)
  - ☞ 지켜주고 싶은 가냘픈 외모
- ② 가녀린, 수줍고 앳된(방송)
  - ☞ 세계은행계를 제패한 가녀린 18세 소녀, 수줍고 앳된 여학생
- ③ 순수함의 대명사, 애교의 여왕, 회사의 꽃(방송)
  - ☞ 여자의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표현
- ④ 여자의 피부는 권력이다(방송)
  - ☞ 화장품 광고에서
- ⑤ 여성은 경제를 모른다(인터넷)
  - ☞ ‘여성은 경제를 모른다’ ‘여자는 통이 작다’며 으스스대던 남성우월주의자
- ⑥ <39살 아줌마> 20대도 놀란 그녀의 몸매(인터넷)
  - ☞ 뉴스면 광고에서
- ⑦ 카리스마 벗고 매혹적인 여성미 드러내(인터넷)
- ⑧ 감쪽한(인터넷)
  - ☞ 역도 선수라기엔 너무 감쪽한...
- ⑨ 도도한 매력, 상큼녀, 여우짓(인터넷)
- ⑩ 미녀(인터넷)
  - ☞ ‘개미허리’ .. ‘착한 가슴’ .. 그리고 ‘순수 매력’ .. 한국판 미녀
- ⑪ 미녀새(신문, 방송, 인터넷)
  - ☞ (장대높이뛰기선수) “미녀새”의 비상.. 인기 폭발
  - ☞ 여성의 경우 미모를 강조하는 별칭 사용관행을 보여줌.
- ⑫ 사랑도 질투도 여자의 생존전략(인터넷)
- ⑬ 섹시발랄, 여자의 변신은 무죄, 44 size 몸매(인터넷)
- ⑭ 얼굴은 ‘순정만화’ 몸은 ‘액션만화’(인터넷)
- ⑮ 청순가련한 근육질 몸짱(인터넷)

(2) 남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 ① ‘늑대들의 욕망’ 스포츠카(신문)

- ② ‘남보다 좀 더 빠르게 더 멋지게 달려 여성에게 돋보이고 싶다’(신문)
  - ☞ ‘남보다 좀 더 빠르게 더 멋지게 달려 여성에게 돋보이고 싶다’는 남성의 본능(남성들이 스포츠카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 ③ 남성의 에너지인 정력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는 집중력, 지구력, 창의력의 기본 에너지(신문)
- ④ 바람의 사나이, 대장부, 마초, 천상사내(신문)
- ⑤ 진짜 사나이(신문)
  - ☞ 진짜 사나이는 자기 감정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는 과묵함과 세상일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 진중함, 어려움을 묵묵히 참아내는 인내심, 자기 욕심보다 상대방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정신적 성숙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나는 브람스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이 진짜 사나이의 덕목을 읽곤 한다.
- ⑥ 여자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남자에게는 본능이다(신문, 자동차 광고)
- ⑦ 탱크, 야수, 포효(신문, 방송)
- ⑧ 군인들이 야만적인 눈빛을 던진다(방송)
- ⑨ 내 가슴엔 사자가 산다(방송)
  - ☞ 너의 피는 아직 뜨거우며 결코 길들여지지 않는다. 내 가슴엔 사자가 산다(자동차 광고)
- ⑩ 박력가이, 터프가이(방송)

#### 나) 한 성과 관련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언어

이번 사례조사에서 드러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는 여성관련 해서는 여성이 남성의 소유라거나, 현모양처, 여성에게 성적 매력 중시, 여성의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등이 있으며, 남성 관련해서는 남성 성욕의 정당화, 남성의 우월주의, 마초 이데올로기, 남아 선호 사상 등이 있다.

##### (1)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여성관련 언어

- ① 처가(신문)

- ☞ 시댁과 처가 사이
  - ☞ 남편 쪽은 ‘댁’이고 아내 쪽은 ‘가’라는 차별의 대표적 문구
  - ② 친정(신문)
    - ☞ 여자의 결혼은 친부모로부터의 단절이라는 고정관념이 내포
  - ③ 남편 속 뒤집는 철없는 아내 미연(방송)
    - ☞ 아내의 역할에 대한 비하적 표현
  - ④ 내가 하늘이야, 자네(아내)가 땅이야(방송)
  - ⑤ 마누라(신문, 방송)
    - ☞ 아내에 대한 비칭으로 사용
  - ⑥ 억척모정(인터넷)
    - ☞ ‘억척모정’ 엄마는 강했다.
  - ⑦ 성공한 여자 뒤에는 아버지가 있거나 남편이 있거나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요(방송)
  - ⑧ 새댁, 새색시, 시집살이(방송)
  - ⑨ 씨받이(방송)
  - ⑩ 아름다운 주방을 갖고 싶었던 여자와 뭐든지 해주고 싶었던 남자(방송)
  - ⑪ 안방마님, 안사람, 안식구, 안주인, 집사람(방송)
    - ☞ 여자를 집안의 여자로 국한시키는 표현
  - ⑫ 알뜰주부(방송)
    - ☞ 주부에 대한 고정 관념
  - ⑬ 엄마표 손맛(방송)
  - ⑭ 여자가 무슨 운전이야 집에서 애나보고 밥이나 하지(방송)
  - ⑮ 여자에게 가장 소중한 거요? 그야 가족과 집, 가구죠(방송)
    - ☞ 가구타운 광고에서
  - ⑯ 여편네가 애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방송)
- (2)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남성관련 언어
- ① 남자가 설명해 주면 “더 전문적인 느낌이 든다”(신문)

- ② 여색, 여성편력, 바람둥이(신문)
- ③ 남자가 돼서 그 성질도 안 내면 어떻게 하나(방송)
  - ☞ 남자의 마초이즘을 합리화시키는 표현
- ④ 수트의 제국을 지배한다(방송)
  - ☞ 남성의류 광고에서
- ⑤ ‘버럭’의 황제(방송)

#### 4) 선정적 표현

선정적 표현은 자극적이거나 성적, 신체적 은유를 사용한 표현을 말한다. 여성관련 자극적인 표현은 용모 관련 혹은 성적 풍자와 관련이 있다. 남성의 경우도 성적, 신체적 은유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 가) 특정 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 (1) 여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 ① 남성편력(신문)
    - ☞ 다채로운 남성편력... 잠 못드는 유력인사 많을 것
  - ② 엽기녀(신문)
  - ③ 얼굴에 놀라고 근육에 또 놀라고, 청순한 몸짱녀, 여성 보디빌더 (신문)
  - ④ 커버걸... 그녀 마음의 속살을 만나다(신문)
  - ⑤ 레이싱걸(신문, 방송, 인터넷)
  - ⑥ 피겨요정(신문, 방송, 인터넷)
  - ⑦ 섹시한 외모 절대 카리스마, 레이싱걸 무속인 효리 보살(방송)
    - ☞ 여성의 외모에 대한 편견
  - ⑧ 암사자들 꼬리를 내린다(방송)
    - ☞ 한껏 라인을 뽐내는 아중사자의 등장... 라인으로 제압하라... 암사자들 꼬리를 내린다... 시선을 사로잡는 라인(브라 광고)
  - ⑨ 여신내린 어우동 신녀(방송)
  - ⑩ 여우 두 마리(방송)

☞ 여우 두 마리가 제 눈에서 시야를 지나갔는데, 조만간 두 명 꼭 꼬실 겁니다.

⑪ 개미허리(인터넷)

☞ ‘개미허리’, ‘착한 가슴’, ‘뽕뽕 미녀대’ 뜬다(여자의 몸매에 대한 자극적 표현)

⑫ 검은 독거미(인터넷)

⑬ 섹시 카리스마(인터넷)

☞ 힙합 바지 벗고 ‘섹시 카리스마’

⑭ 자연산(인터넷)

☞ 섹시몸매 ‘자연산 맞아?’

⑮ 착한 가슴(인터넷)

☞ 스타화보를 통해 ‘착한 가슴’을 드러낸 서영은 모든 남자들이 시선을 주는 몸매

(2) 남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① 근육질의 몸매(방송)

② 남자는 하체거든요(방송)

③ 돌진남(인터넷)

☞ 벤츠 돌진남 삼성 앞 시위

④ 불량영웅(인터넷)

☞ 품행제로 모범시대, 불량영웅 중뽕(feel)이가 왔다

⑤ 완소남(인터넷)

☞ 누나들의 완소남(완전 소중한 남자). 다음번엔 사극에 도전해 볼까

**나) 특정 성의 성적, 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성적 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은 수적으로 여성의 경우에 집중되어 있기도 하지만 남녀에 적용되는 양상에 차이가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가슴, 허리, 각선미 등 곡선 있는 몸매의 강조와 섹시함의 강

조가 있다. 이에 반해 남성은 근육과 힘이 있는 몸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1) 여성의 성적, 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① 알몸(신문)

☞ 000씨 알몸 사진 게재는 과렴치의 극치다.

② 섹시 핫바디(방송)

☞ 여자의 신체와 정신을 함께 비하한 표현

③ 잘빠진 감자 칩이 온다(방송)

☞ 여성 광고 모델을 제품과 동일시하는 장면과 더불어 등장하는 카피에서

④ 터질듯 한 육감적인 몸매(방송)

☞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표현

⑤ V라인 얼굴(방송)

☞ 옥수수 수염차 광고에서

⑥ 뇌쇄적 섹시 미(인터넷)

☞ 뇌쇄적 섹시 미, 전라 연기도 불사, '이브의 유혹' 시청률 급등

⑦ 명품 다리(인터넷)

☞ 여성의 신체에 대한 고정 관념

⑧ 섹시 퀸(인터넷)

☞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표현

⑨ 육감 몸매(인터넷)

☞ 육감 몸매 뽐내며 농염 팜프파탈 과거 변신

⑩ 풋풋한 성숙함(인터넷)

(2) 남성의 성적, 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① 조각미남(신문)

② 명품 복근, 초콜릿 복근, 환상 복근, 두터운 허벅지(방송)

③ 섹시한 치골(인터넷)

## 5) 특정 성 비하

성별로 비하하는 측면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관습적으로 여성을 경시하는 표현이 많아 대중매체에서도 이러한 표현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보인다. 이 외에 교양이나 상식이 없는 여자, 허영심이 있는 여자, 이상적인 외모에서 먼 여자 등을 비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의 경우 허약하거나 능력이 없는 남성을 비하하는 사례가 있다.

### 가) 표현자체에서 비하적 의도가 내포된 경우

#### (1) 여성 비하

- ① 여자들은 대부분 멍청하다
  - ☞ “여자들은 대부분 멍청하다. 진짜 멍청해서가 아니라, 멍청이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이탈리아 사진작가의 인터뷰에서)
- ② 지금 미술품 가격 거품 심각 강남 아줌마들 걱정스러워(신문)
  - ☞ 여성의 사회경제적 관념에 대한 편견
- ③ 곳간 열쇠를 바람난 며느리에게 맡긴 꼴이 되어버렸다.(신문)
  - ☞ 변양균씨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일한 것에 대해
- ④ 마녀(신문)
  - ☞ 아내가 마녀라는 사실을 발견한다(아내에 대한 부정적 표현).
- ⑤ 아이까지 낳은 32세 아줌마인데도 세계 정상을 지켰다.(신문)
- ⑥ 노처녀(신문)
  - ☞ 34세에도 예뻐 보이고 싶은 노처녀의 심리
- ⑦ 독한 계집(방송)
  - ☞ 비 순종적인 여자에 대한 악의적 표현
- ⑧ 반상회 수다(방송)
  - ☞ 여자들의 모임에 대한 부정적 표현
- ⑨ 출썩거리지 좀 마라, 한 마디도 안 지누만; 항상 이 따위로(방송)
  - ☞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비하적 표현
- ⑩ 된장녀(인터넷)

☞ 대기업 다니는 남 만나면 된장녀?

① 마담뚜(인터넷)

② 아줌마 파마(인터넷)

☞ 촌티 나는 파마

③ 여자사냥(인터넷)

☞ '원나잇 스탠딩'을 위해 여자사냥을 나서는 남자 주인공

④ 접대부, 창녀, 탕녀(신문)

⑤ 매춘부, 윤락녀, 화류계여성(인터넷)

(2) 남성 비하

① 소심남, 약골남, 마마보이(방송)

② 노총각(방송)

③ 제비족(인터넷)

④ 짝벌남(인터넷)

〈표 28〉 유형별 대표적 성차별 언어 표현 사례

대분류	중간분류	소분류	대표적 표현
가. 성별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① 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를 모두 포괄	①-1 남성형으로 여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샐러리맨, 2관왕, 바지사장, 삼성맨
		②-2 여성형으로 남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성공의 어머니, 얼굴마담, 모교,
	② 호명순서의 불균형: 호명순서가 성차별적인 경우	①-1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	부모, 자녀, 남녀, 형제자매, 학부모
		②-2 여성이 남성보다 앞서 호명되는 단어	모부자가정, 편모편부, 엄마아빠,
나. 불필요한 성별 강조	① 여성 혹은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단체적으로 직업을 지칭함)	①-1 여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여배우, 양, (여), 여성아나운서, 여종업원, 여성과학자, 여자웨이터, 여성우두머리, 여성로비스트, 홍일점
		①-2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청일점, 군, 남자고등학생, 남자리듬체조선수
	② 성역할이나 성별 속성을 고정관념화하거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 맞지 않은 여성(남성) 인물의 예외성 강조	②-1 여자의 예외성	여장부, 윈터우먼, 킹콩걸, 미녀야수
		②-2 남자의 예외성	꽃미남, 호느적호느적, 숙맥같은 남자, 다소곳한 여인네처럼
다.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① 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①-1 여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여우, 미녀, 미녀새, 천사, 앳된, 수줍게, 가녀린, 여자의피부는권력이다, 청순, 상큼, 44size,
		①-2 남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마초, 터프가이, 쾌남, 천상사내, 대장부, 탱크, 영웅, 거포, 마왕
	② 한 성과 관련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언어	②-1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여성관련 언어	아내, 집사람, 조강지처, 안주인, 안방마님, 안식구, 친정식구, 내연녀,

			재혼녀, 이혼녀, 시집, 새색시, 처남, 처녀, 외가, 처가, 외손자, 미혼모, 씨받이, 미망인, 안방지기, 외할아버지, 억척모정, 처녀성, 동거녀, 강간, 현모양처, 영계
		②-2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남성관련 언어	백마탄 왕자, 황제, 황태자, 여성편력, 원탁의기사
라. 선정적 표현	① 특정 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①-1 여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흑진주, 팜프파탈, 신데렐라, 레이싱걸, 커버걸, 엽기녀, 피겨요정, 꽃사슴, 인어공주, 검은독거미, 파랑새, 착한가슴, 터프걸, 매력녀, 역도퀸
		①-2 남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꽃미남, 돌진남, 흑진주, 불량영웅
	② 특정 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②-1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S라인, 잘빠진 각선미, 글래머, 풋풋한 성숙미
		②-2 남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환상복근, 명품복근, 두터운허벅지
마. 특정 성비하	단어 선택 자체에서 비하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 반말이나 미성숙하고 유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① 여성비하	매춘부, 똥녀, 창녀, 식모살이, 매춘부, 매춘, 창기, 탕녀, 된장녀, 노처녀, 사창가, 마사지걸, 양공주, 접대부, 이줌마, 여자사냥, 화류계여성, 윤락녀
		① 남성비하	머슴, 수컷, 마마보이, 노총각, 소심남, 약골남자, 짝벌남, 제비족

## 나. 내용 전체가 성차별적인 대표사례

### ○ 대표사례 1

근거 : 생물학적 차이와 도덕적 책임의 문제는 분명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술기운으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하나의 속성으로 해석하여 합리화시키고 있다. 특히 문제 해결의 열쇠를 ‘남성들의 의식 변화’가 아닌 ‘여성들의 선별능력 강화’로 귀결시키고 있다.

출처: 2007년 9월 6일(○○신문)

#### < 술에 취한 목소리로 좋아한다던 그 남자 >

지극히 고전적인 연애의 한 장면. 밤 12시가 되면 통금이 실시되던 1960년대의 어느 날, 몇 번의 데이트를 마친 남녀가 한 잔 술에 취한다. 시간은 12시를 넘기고, 막차를 놓친 남녀는 예정된 수순(!)처럼 가까운 모텔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때 두 사람의 대화,

“오빠, 약속 지켜줄 거지?”

“너, 오빠 못 믿니?”

다음 상황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어찌되었건, 아침을 맞이했을 때, ‘그리하여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상황이 끝나면 좋겠지만, 세상일은 그리 만만하지 않은 법. 그 날 이후, 애가 탄 여자는 남자에게 전화를 걸지만, 춘향을 잃은 이몽룡처럼 남자는 이런저런 핑계로 여자를 피한다. 이쯤 되면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다. 간밤에 벌어진 일은 술기운이 가져온 그렇고 그런 도시 연인들의 우화 가운데 하나뿐임을. 욕심을 채운 늑대는 꿈무늬가 빠지게 날랐고, 순진한 토끼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결국 이런 명언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짐승 같은 놈들!”

시간이 흘렀고, 시대가 변했다. 소위 모던한 시대를 사는 요즘 남녀의 연애는 1960년대의 '어느 날'과 달라도 아주 다르다. 춘향과 이몽룡의 뻘한 역할 분담은 촌스러운 것이 되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는 식의 이분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어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바로 술을 둘러싼 남녀의 오해와 진실이다. 상담을 부탁하는 여성들은 때때로 이렇게 묻곤 한다.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던 그가 술자리를 가진 후 말하더군요. 사실은 자기도 나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 날 이후 그 남자는 전화 한 통 걸어오지 않아요.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셈이죠. 그렇다면 그 날 밤, 그 남자가 남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 건가요?”

사랑에 목마른 여성들은 작은 신호 하나조차 희망적으로 해석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앞의 상황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와 '다음 날부터 다시 연락이 없다'라는 전후 맥락은 쪽 빼먹고, 그 날 밤 그 남자가 남긴 '관심 있다'는 한마디에 온 신경을 모은다. 이쯤 되면, 눈 뜬 장님이다. 정작 문제의 실마리는 여자들이 빼먹어버린(혹은 빼먹고 싶어하는)전후 문장에 있기 때문이다. 남자는 술에 취해 그저 재미 한 번 보려고 했던 것이 전부인 것이다. 여성들에게서 돌 날아오는 소리가 들리지만, 나를 포함한 남자라는 종족들은 대개 그런 족속들이다.

여성들은 의외로 '취중진담'에 환상을 가지고 있다. 남자들도 마치 여자들처럼 프리포즈를 하려면 술 기운을 빌려야만 용기를 낼 수 있다고 믿고, 혹은 믿고 싶어 때문이다. 혹은 그런 남자를 '로맨틱하다'고까지 생각한다. 하지만 술에 취한 남자들의 '밀어(密語)'는 어디까지나 '즉흥적 작업 멘트'일 뿐이다.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경우보다는, 기분에 취해 혹은 자신의 '작업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흘리는 말인 것이다. 술 취해서 남자들이 건네는 “좋아한다”는 말은 대부분의 경우, '당신을 좋아한다'라는 문장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너랑 여기서 술 마시는 게 좋고, 성적 대상으로 내가 괜찮다'는 정도의 말인 것이다.

내친 김에 여성들에게 불쾌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 영국 여행 중 에서 어느 맥주 회사의 광고 포스터를 본 적이 있다. 못생긴 남자가 맥주잔을 치

켜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밑에는, '우리 맥주는 못생긴 남자도 여자와 섹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써있었다. 남자들이 여자와 술을 먹으면서 걸으며 무슨 말을 하던 간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광고다.

그러니 여성들이여, 술 취한 남자들의 '고백'은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된다. 혀 꼬부라진 소리로 내뱉는 남자들의 말을 듣게 된다면, 이런 '한 방'을 날려주는 것도 좋다. "야, 술 깨고 나서 얘기해. 내일 아침에도 같은 말을 한다면 내가 한 번 생각 해볼게"라고 말이다.

## ○ 대표사례 2

근거 : 여성들의 귀성 기피를 다이어트와 성형 필요성에 연결 지어 설명한 기사이다. 전체 사례를 여성으로만 구성하여 '여성=다이어트' '여성=성형' '여성=외모'의 공식을 이끌어 가고 있다.

출처: 2007년 9월 18일 (○○신문)

### 20~30대 여성들 '귀성 기피'

“산적·튀김 먹고 살찌면 어떡해”... “긴 연휴에 성형해야지”

경기도 수원에 사는 회사원 최모(여·27)씨는 이번 추석연휴에 고향(경남 양산)에 가지 않을 생각이다. 이유는 딱 하나. 몸매 관리를 위해서다. 최씨는 회사에서 야근과 회식이 잦아지면서 살이 불어나자 7월부터 본격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아주 조금만 먹고 저녁은 또 건너뛰는 '눈물겨운 노력' 결과, 두 달 만에 5kg 감량에 성공했다. 예전의 몸매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이

어트의 최대 복병인 '추석 연휴'를 맞이한 것이다.

“추석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제가 좋아하는 산적과 튀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고향에 가면 명절 음식을 피할 자신이 없어 그냥 수원에 남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에겐 '회사 일' 핑계를 댔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모(여·29·교사·경남 진주)씨도 이번 추석에 귀향하지 않기로 했다. 올 초부터 일주일에 3일씩 헬스클럽에 다니고 저녁을 거르며 8kg을 감량했는데 추석엔 왠지 폭식할 것만 같아 두렵다. 김씨는 결국 체중 유지를 위해 '나 홀로 추석'을 선택했다.

20~30대 젊은 여성들이 추석 귀향을 기피하는 이유는 다이어트 외에 또 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회사원 이모(여·27)씨도 고향(광주광역시)에 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기로 했다. 5일간의 추석 연휴에 27·28일 이틀 연차휴가를 내서 7일을 쉰다. 이씨는 이번 긴 연휴를 그동안 회복기간이 오래 걸려 하지 못했던 가슴 성형을 할 기회로 삼은 것이다. 이씨는 “이번 추석이 수술을 할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이를 꼭 물고 결심하긴 했지만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씨처럼 이번 추석연휴를 이용해 성형수술을 계획한 여성들이 많아 성형외과들은 벌써 예약이 거의 끝난 상태다. 서울 신사동 BK동양성형외과 홍성범(42) 원장은 “연휴가 3일뿐이었던 지난 설에 비해 이번 추석연휴가 길어서 예약이 벌써 8월 말에 다 끝났다”면서 “예약자가 워낙 많아 추석 당일에만 쉴 예정”이라고 했다.

추석 연휴 후유증(後遺症)이 회사 일에 나쁜 영향을 끼칠까 걱정돼 귀향을 망설이는 일벌레들도 더러 있다. 인터넷광고 회사에 다니는 박모(여·28)씨는 지난 설 연휴 때 고향(부산)에 내려가 엄마를 도와 친척들 20명을 맞느라 진을 뺐다. 그 후 일주일간은 너무 피곤해 직장 일을 하기가 힘들었다. 박씨는 “연휴 후에 일을 제대로 못하면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서울에 머물면서 못 읽던 책을 읽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 대표사례 3

근거 : 청년층의 실업률을 중심으로 남녀 간의 대립을 유도하는 보도 내용임. 특히 통계를 인용할 때, 전체 대기업 안에서의 여성비율이 아니라 '여성 증가비율'과 '남성증가비율'에만 초점을 맞춰 여전히 열악한 여성들의 취업률은 무시하고 있다. 2분기 고용율도 남성은 60.7% 여성은 59.7%인데, 그 해석을 남성은 낮아지고 있어 심각하고 여성은 높아지고 있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통계수치의 차이는 단 1%임. 이는 '남성=일자리 우선'이라는 고정관념에 기초해, 20대 실업의 동반 해결을 도모하기보다는 불필요한 남녀 간의 대립을 드러내고 있다.

출처: 2007년 9월 6일 (00신문)

20대 남성 실업률 3년째 악화...여성 3년째 호전  
“남성 취업준비기간 늘어나고, 여성 일자리 증가 탕”

하반기 취업철을 맞아 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이 구인광고판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과 부산·울산광역시청, 경남·부산·울산 중소기업청 등이 함께 마련한 이 박람회는 6일은 여성, 7일은 장애인을 상대로 계속된다.

20대 청년층의 고용 사정이 남녀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20대 남성의 경우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률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여성들은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률은 높아지고 있다.

5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2분기 기준으로 20대 전체의 실업률은 2004년 7.7%에서 올해 7.3%로 낮아졌고, 고용률은 60%대를 유지하는 등 청년층 실업 문제가 다소 완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남녀별로 나눠보면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2분기 기준으로 올해 20대 남성의 실업률은 9.1%로, 3년째 악화되고 있다. 이는 고용통계 기준이 변경돼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8.3%) 이후 가장 나쁜 것이다. 20대 남성은 고용률도 낮아지고 있다. 2분기 기준으로 이들의 고용률 역시 2000년(66.3%) 이후 가장 낮은 60.7%를 기록했다. 남성의 고용률은 2003년 65.7%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반면, 20대 여성의 고용사정은 남성과 견줘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올 2분기 20대 여성의 실업률은 5.5%로, 3년째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또 올 2분기 고용률도 59.7%로 지난해 2분기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이처럼 20대 남녀의 고용 사정이 엇갈리는 이유는 청년 실업난 속에서 취업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은애 실업극복국민재단 국장은 “남성은 군 제대 뒤 어학 연수나 자격증 준비 등을 하면서 취업 유보 기간을 예전보다 더 많이 갖거나 또 취업한 뒤에도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고용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박상현 고용조사팀장도 “군 문제 때문에 남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게 여성보다 좀 늦어지는데,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들은 결혼 연령이 늦춰지는데다 취업 준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해 취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은애 국장은 “최근 서비스업종의 직종이 분화돼 일자리들이 추가로 만들어지면서 여성의 수요가 늘어났고 여성의 취업 준비도 높아져 채용률이 높아졌다”며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에서 내부적으로 남성 할당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혜자 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장은 “20대 후반 여성의 경우 혼인 연령이 늦어지는 것도 20대 여성 고용률 증가의 또다른 요인”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삼성·현대차 등 10대 그룹의 여직원 수는 50% 가까이 늘어난 반면, 남직원 증가 수는 20%에도 못미친다. 10대 그룹 69개 계열사들의 2006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이들 기업의 여직원 수는 8만129명으로 2002년 말에 견줘 47.6% 늘어난 데 비해, 남직원 수는 34

만4746명으로 18.2% 증가했다. 이는 주로 신입 사원 중 여직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 대표사례 4

근거 : 피해자들을 ‘주부’나 ‘가정주부’로 통칭하여 ‘주부=무지’라는 기자의 편견을 드러내고 이를 강화시키는 내용이다. ‘피해자’와 같이 중립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07년 9월 5일 (○○인터넷사이트)

“로또번호 알려 주겠다”...‘선녀보살’에 홀린 주부들

[○○일보]

서울 송파경찰서는 4일 로또복권 당첨 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속여 가정주부들에게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무속인 장모(49·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0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D 오피스텔 사무실에 ‘쪽집게 선녀보살’이라는 법당을 차려 놓고 인모(47) 씨 등 가정주부 7명에게서 14억2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점집을 찾아오는 주부들에게 “나는 신이 내린 선녀보살”이라며 “신들이 돈을 좋아하니 더 많은 현금을 가져오면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를 알려 주겠다”고 속여 왔다. 장 씨의 말에 속은 주부들은 사채 빚까지 지며 40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까지 장 씨에게 현금을 바쳤다.

경찰은 “주부들은 남편이 죽을 수 있다는 말에 돈을 갖다 주기 시작해 나

중에는 로또복권에 당첨되게 해 준다는 말에 은행 빚과 사채 빚까지 졌다”  
며 “피해 주부들은 담보로 잡힌 집을 잃거나 남편에게서 이혼 통보를 당하  
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주부들에게 받은 현금으로 빌라와 부동산을 구입  
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9월 4일 (○○TV 뉴스)

### "로또 1등번호 점지해준다" 무속인이 14억 사기

<앵커>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점지해주겠다는 무속인의 말에 속아, 가정주부 7  
명이 빚까지 얻어가며 모두 14억 원을 날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000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무속인 49살 장모씨가 차린 곳당입니다.”

“장 씨는 서울 도곡동에 곳당을 차려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로또 1  
등 당첨번호를 미리 점지해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그 대가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3천3백만 원을 올리라는 이유는 복권 당첨에서 두 사람 나온다고, 2주  
에 두 사람이 된다고 해서 올리라는 뜻.]

“자신은 신내림을 받은 쪽집게 선녀보살로, 이미 로또 1등 번호를 맞힌  
적이 있다고도 속였습니다.”

[장 모씨/피의자 : 신의 내림굿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신을 모시는  
사람들은 지시를 받으면 딱 쫓히는 게 있어요.]

“돈을 건넨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가정주부들이었습니다.”

“장 씨가 일러준 번호는 매번 당첨 번호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곧 1등이 나온다’는 감언이설에 주부들은 미련을 갖고 반복해서 돈을 건넸습니다.”

“빛까지 낸 주부들도 있습니다.”

[피해 주부 : 자기가 영험하대요. 주몽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영험하대요. 그래서 저는 믿었죠.]

“빛까지 내 가며 대박을 쫓던 주부 7명이 1등 당첨번호를 점지해주겠다고 무당의 약속이 사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14억 원이나 떼인 뒤였습니다.”

○ 대표사례 5

근거 : 여성과 남성, 딸과 아들의 모습을 지나치게 ‘성별화’ ‘이분화’ 하는 내용이다. 이는 여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남성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2007년 9월 22일 (○○인터넷사이트)

명절 때, 딸이 더 보고 싶은 이유는?

[○○신문]

"버려야 할 것은 남편과 아들,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하는 것은 돈, 집,

건강, 그리고 딸이다."

추석이 다가올 때면 부모들은 자식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 이때 아들들은 1순위는 당연히 자신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부모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딸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1일 '아들보다 딸이 좋아?' 보고서를 통해 딸이 아들보다 좋은 6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이유는 '받고 싶은 만큼 먼저 주는' 딸들 습성이다. 여성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데 맹목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잘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생일에 대처하는 아들과 딸의 차이다. 딸은 새해 수첩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부모 생일을 기록해 둔다. 반면 아들은 생일이 지나서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때가 많다.

둘째 이유는 부모에 대한 감정조절 능력 차이다.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는 딸들은 부모에게 수시로 친밀감을 표시한다. 반면 아들들은 감정 억압에 익숙한 나머지 친밀감을 표현하는 데 서툴다. 이는 쇼핑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딸들은 어머니와 함께 여유롭게 쇼핑을 하며 도와준다. 반면 아들들은 자기 것 고르기에 바쁘거나 빨리 고르라며 채근하기 바쁘다.

셋째 이유는 동질성이다. 이는 특히 어머니들이 딸을 좋아하는 이유가 된다. '넌 나처럼 살지 말라'는 생각을 가진 어머니들은 딸의 인생을 자신의 것인 양 동질시킨다. 이때 성공한 딸들은 더 큰 환영을 받는다.

넷째 이유와 다섯째 이유는 딸이 좋다고보다는 아들이 싫은 이유에 해당한다. 우선 가족을 꾸린 아들은 무거운 부담감에 시달린다. 이들은 자기 가족, 나아가 부모들에게도 부담감을 느낀다. 부양 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 때문이다. 이는 되레 부모를 멀리하도록 이끈다.

마지막 이유는 사춘기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있다. 이에 따르면 남자 아이들은 사춘기 때 어머니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아버지에게는 예전보다 더 간극을 두는 행동을 한다. 부모와 거리는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반면 딸들은 사랑에 대한 욕구로 이 고비를 넘긴다.

보고서는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들이 되기 위해 보다 '살가워지라'고 조언한다. 용돈보다는 따뜻한 전화 한 통으로 귀여움 받는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 대표사례 6

근거 : '미인과 권력자', '여성과 돈'으로 구성된 스캔들을 한데 모은 상업주의적 기사이다. 미인(여성)과 권력(남성)의 역학관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는 내용이다.

2007년 9월 22일 (○○인터넷사이트)

권력에 울고 사랑에 울고...꿈을 좇다 스러진 그녀들

[00일보]

#### ■ 김수임에서 신정아까지

《스캔들. 그 속에는 시대의 자화상이 있다.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권력이 있다. 아름답든 추하든 사랑이, 삶이 농밀하게 얽여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국현대사 격동의 60여 년 동안 세상을 뒤흔들었던 굵직한 여성 스캔들이 주기적으로 터져 나왔다. 광복 직후인 1940년대 말의 '여간첩 김수임', 1970년대 권부(權府)의 은밀한 유혹 '정인숙', 1980년대의 '큰손' 장영자, '부적절한 관계'라는 말을 유행시킨 1990년대의 '린다 김', 그리고 2000년대 신정아까지... 미인과 권력을 쫓는 남자, 그리고 돈이 뒤따랐던 대형 스캔들을 세밀히 살펴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온다. 모두 그 시대의 산물이란 점이다.》

### 김수임 - 美대령과 동거하며 北연인에 정보 넘겨

#### ○ 광복직후 여간첩 김수임

성명: 김수임, 죄목: 국방경비법 등 19개 조항 위반, 판결: 사형.

해방공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간첩 김수임’은 6·25전쟁 발발을 9일 앞둔 1950년 6월 16일 다섯 발의 총탄과 함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당시 나이 39세. 북조선인민위원회 외무국장을 지낸 이강국을 사랑했고 미8군 사령부 헌병감이었던 군정의 실세 베어드 대령과 동거했던 김수임은 베어드 대령에게서 빼낸 고급 군사 정보를 이강국에게 넘겨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판 마타하리 김수임’에 관한 역사는 냉전시대의 종말과 함께 ‘억울한 죽음’ 쪽으로 수정되고 있다. 특히 군사재판 시작 사흘 만에 내려진 사형 판결, 김수임의 간첩 행위에 동조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베어드 대령에 대한 무혐의 처분 등이 이데올로기의 시대, 분단의 시대를 위태롭게 살았던 그녀를 재조명하게 하는 실마리가 된다. 얼굴이 희고 흰칠했던 경성제국대 출신 이강국과, 이화여전을 졸업한 신여성 김수임. 그녀의 죄는 혹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가 목숨 던져 사랑했던 이강국도 5년 뒤 북한 땅에서 박헌영과 함께 간첩죄로 사형됐다.

### 정인숙 - 의문의 권총피살... “누가 쏘냐” 발각

#### ○ 1970년 비명에 간 정인숙

“권력자들의 품을 전전하던 동생의 추한 모습을 참지 못했다.”(오빠 정중욱의 경찰 진술)

1970년 3월 17일 오후 11시경 서울 한강변에서 미모의 여인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의 수첩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정일권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고관대작 2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세상은 발각 뒤집혔고 “누가 진짜 그녀를 쏘냐” “아들 성일 군의 아버지

는 누구냐”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정인숙의 수첩에 오르지 못하면 고관도 아니다’ ‘성일이가 누구냐고 물어신다면 고관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라는 유행어가 나돌았다. 5·16쿠데타로 집권했던 박정희 정권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낮과 밤, 앞과 뒤가 다른 군사정권의 이중성이 대중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된 최초의 사건이었다.

사건 현장이 목격된 지 2시간 만에 현장이 치워졌고 오빠가 사용했다는 권총조차 발견되지 않은 채 ‘정인숙’이란 이름 석 자는 세간의 기억에서 잊혀졌다. 그리고 범인으로 지목돼 19년을 감옥에서 보낸 오빠는 출감 후 “나는 인숙이를 죽이지 않았고 성일이는 정일권 씨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

#### 장영자 - 3번의 사기... 80년대 경제계 쥐락펴락

##### ○ 1980년대 ‘큰손’ 장영자

사기→출소→사기→출소→사기→출소.

1980년대를 뒤흔들었던 ‘장영자 이철희 부부 어음 사기사건’의 장영자는 고도성장으로 갑자기 외형이 커진, 한국 경제의 허점을 정확히 꿰뚫었던 ‘큰손’이었다. 1982년 사건 당시 그녀가 유통시킨 어음은 6400억 원, 사기로 벌어들인 돈만 1400억 원. 관련 구속자 수만 32명.

간 큰 사기꾼마저 손들게 만들었던 그녀의 사기 방식은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돈을 대고 그 액수의 2~9배에 이르는 어음을 받아 이를 유통시키는 방식이었다. 당연히 장 씨의 전주(錢主)가 된 은행장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1992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그녀는 1994년 사기 혐의로 다시 4년형을 선고받았고, 2000년 5월 구권 화폐 사기사건으로 또다시 구속돼 형을 살기도 했다. 세간의 관심은 그녀의 배후에 쏠렸고 장 씨의 형부이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처삼촌이었던 이규광 씨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역설적이지만 “여성은 경제를 모른다” “여자는 통이 작다”며 으스스대던 남성우월주의자들이 장 씨의 존재 앞에서 코가 납작해졌던 사건이었다. 장 씨

는 재판에서 “경제는 유통이다”는 ‘명언’을 남겼다.

#### 린다 김 미모의 로비스트… 핑크빛 연서 화제

##### ○ ‘여성 원조 로비스트’ 린다 김

재미교포 출신의 미모의 여성 군수물자 로비스트, 1996년 이양호 당시 국방장관이 김 씨에게 보낸 세 통의 핑크빛 연서(戀書), 그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화제를 몰고 다녔던 린다 김(55) 씨. ‘신정아 씨 허위학력 파문의 최대 피해자’로 요즘 다시 회자되는 김 씨는 언론이 신 씨를 ‘제2의 린다 김’으로 표현하는 바람에 아픈 생채기를 되씹고 있다.

김 씨의 경우 사건의 본질보다 미모의 로비스트와 장관, ‘부적절한 관계’ 등으로 인해 부풀려진 측면이 없지 않다. 김 씨가 군 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 사업인 ‘백두사업’ 팀장에게 제공했다는 뇌물이 1000만 원에 불과한 것만 봐도 그렇다. 김 씨는 ‘신동아’ 10월호에 실린 인터뷰를 통해 “언론이 너무 하는 것 아니냐. ‘제2의 린다 김’이라니, 왜 내 이름을 거론하느냐. 신정아 사건과 내 사건이 어떻게 같으냐”고 항변했다.

#### 신정아 학력위조로 ‘문화권력 신데렐라’ 꿈꿔

##### ○ 부조리가 빚어낸 꽃 신정아

여자, 권부의 남자, 돈, 종교, 미술, 대학, ‘부적절한 관계’…. 어느 시대든 스캔들은 허위에 찬 기만적 현실의 그림자다. 학력으로 사람과 능력을 평가하는 시대적 부조리가 ‘예일대 박사 출신 명문 미술관 큐레이터’라는 허상을 만들어 냈다. 신정아 씨는 너무나 쉽게 그 부조리에 순응하는 세상을 조소하면서 21세기 들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문화권력의 ‘신데렐라’를 꿈꾼 것은 아닐까.

○ 대표사례 7

근거 : 외모비교를 통해 여성들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전형적인 개그이다. 여성을 예쁜 여자와 못 생긴 여자라는 이분법적인 기준에서 평가하고 성적인 외모만을 요구하는 표현이다.

출처: ○○ TV 개그프로그램

꼭지명 : 예쁜 것도 죄

두 사람 중 직장상사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회식자리에서

팀장 : 우리 지윤씨 너무 말랐다... 이렇게 말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 우리 김말숙씨를 좀 봐봐...잘 먹으니 듬직하니... 뭘 맡겨도 마음이 툭 놓이잖아...

남직원 : (김말숙을 바라보며) 근데 먹어도 정말 너무 먹는다... 거기서 더 찌면 어떡하려구 그래...

변지윤 : 왜요... 말숙선배님 딱 보기 좋은데요...

남직원 : 딱 보기 좋아? 이 덩치가? 말숙씨 솔직히 77입지?

김말숙 : 아니거든 66이거든...

남직원 : 에이 거짓말 어디 봐봐...봐봐...(말숙이 가만히 있자) 거봐 77이네...

(모두 대사처리)

○ 대표사례 8

근거 : 20대 중반만 되어도 나이든 여성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편견을 드러내는 개그이다. 연령의 기준에서만 여성을 판단하는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

는 표현들이다.

출처: ○○ TV 개그프로그램

꼭지명 : 동창회에서 만난 두사람 그들에게 생긴일...

맞선상황에서의 남녀대화 - 대사+자막

김현정 : 만으로 서른하나입니다.

김현철 : 내일 당장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노산이겠네요...결혼정보회사가 착  
오가 있었나...

나는 유전자가 좋은 2세를 원한다고...그래서 신부 나이는 칼같이 본다  
고 했는데...

김현정 : 근데 그쪽도 그닥 젊은 나이는 아니신거 같거든요...

김현철 : 혹시 요새 추웠다 더웠다 안 그러세요? 갱년기 때문에...

김현정 : 아유 진짜 짜글짜글 해가지고...

김현철 : 아주머니 지금 아저씨 밥은 해주고 선보려 온 거예요?

김현정 : 이 아저씨가 정말 못생겨가지고...

꼭지명 : 동창회에서 만난 두 사람 그들에게 생긴 일...

맞선을 주선한 친구와 김현정이 술 마시는 상황

친구 : 여자팔자 크리스마스라고... 25살 지나면 다 창고행이여... 너 치장에  
신경 좀 쓰라고...

노치녀 냄새가 풀풀난다 풀풀나... - 대사

## 6. 결론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

### 가. 결 론

지금까지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들에 관한 양적, 질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중매체에서 사용되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들 가운데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 표현구조가 문제이거나 문장 혹은 내용 전체의 맥락이 문제가 되는 상당수의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이들 사례들 가운데는 명시적 혹은 노골적인 성차별적 표현들도 있었지만 오히려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긍정적 의미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긍정 유인가의 성차별적 표현들이 더욱 많았다.

언어 표현구조나 긍정 유인가의 표현이 성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형태의 성차별적 표현이 사람들로 하여금 암묵적이고 은밀한 영향을 간과하게 하거나 이를 성차별적 표현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면 “건국의 아버지”, “형제애”, “샐러리맨”, “소년원”과 같이 ‘남성형으로 여성까지도 포괄하는 통칭어의 사용’이나 “남녀”,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같이 호명의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 남성을 표준으로 삼아 대부분 남성이 앞서고 여성을 뒤에 두는 명명방식’ 그리고 “여의사”, “여교사”, “여류기사”, “○○○씨(여)” 등 ‘기사 등에서 여성에게만 성별을 표시하거나 특정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해 특별히 여성임을 밝히는 유표적 표현들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에 대한 암묵적인 승인의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종종 차별의 대상이 되는 여성의 자아 정체성과 건전한 사고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남성 언중으로 하여금 성역할 고정관념을 자동적으로 활성화시켜 성편견과 차별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양자명명 혹은 중립적인 명명으로서의 언어 사용 노력이 필요하며, 양자명명의 경우는 성별을 기준으로 호명 순서를 정하기보다는 연령, 지위, 객관적인 기호 순 등으로 명명하는 대안적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긍정 유인가(誘引價, valence)를 지닌 언어 표현들 역시 성역할 분업적인 고정관

념과 결부되어 사용되어질 때에는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거나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데 이 번 조사에서 이러한 성차별적인 언어 표현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사례들로는 여성의 모성에 대한 예찬, 자녀양육 및 가사와 관련된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표현,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보완적인 속성을 기대하는 표현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겠다. 예컨대, ‘으뜸 맘’, ‘여성미’, ‘칭순함’, ‘고결한’, ‘숭고한’ 등은 현모양처이기를 기대하는 남성지배적인 성역할 수행의 보완적인 기능에 대한 칭찬이며, 당근(보상)의 논리에 가까운 표현들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보호적 부성애를 표현하는 것들로는 “깜직한”, “가녀린”, “엷된” 등이 있으며 이들 역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온정적인 성차별을 조장하는 표현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대부분 ‘남성다움’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결부된 긍정 유인가의 표현들이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면 “강인함”, “힘 좋은”, “박력”, “터프가이”, “믿음직한” 등의 표현들이 남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긍정 유인가의 표현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긍정 유인가를 지닌 성차별적 표현들이 가지는 부작용은 이들이 은밀하고도 완곡한 방식으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함으로서 성차별적 표현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은밀한 형태의 성차별임에도 긍정 유인가를 지닌 언어 표현들은 우리 사회가 평등주의적 가치를 표방하는 규범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사고 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성편견과 성차별을 유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번 조사에서 방송과 신문과 같이 공공성이 강조되는 매체들에서는 긍정 유인가를 지닌 차별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인터넷과 같이 익명성이 특징인 매체에서는 평등주의 가치 규범의 통제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부정 유인가를 지닌 성차별적 표현들이 여타 매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을 보인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방송과 신문과 같이 공공성이나 자기 검열 가능성이 높은 매체가 부정 유인가의 성차별적 표현 사례수가 적었다. 다만 이들 매체에서 ‘성별 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이 많았다는 것은 이것을 성차별로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으며, 긍정 유인가를 지닌 성차별적 표현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결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하나는 평등적인 사회 규범의 확산이 노골적이거나 직접적인 성차별적 표현을 통제 내지 억제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통제효과가 은밀하고 간접적인 형태의 성차별적 표현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 본다면 방송이나 신문 매체들에서는 온정적이고 은밀한 형태의 성차별적 언어표현에 대한 민감성과 경각심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노력과 의식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비해서 인터넷과 같이 여성에 대해 직접적이고 비하적인 표현들이 많고, 부적유인가의 성차별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많은 매체들에 대해서는 평등 규범의 통제적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번 사례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성 차별적인 언어 표현에 비해서 여성 차별적인 표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언어에서의 성별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별로도 차이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매체별로, 글 내용의 범주, 분야별로도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예컨대, 성차별적 언어 표현 유형별로 보면, 전체 사례에서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성별 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불필요한 성별 강조’의 순으로 많았지만, ‘성별 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이 많았던 것은 최대 사례수를 가진 신문 매체에서 이들 유형의 사례가 특히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방송과 인터넷 매체의 경우는 ‘성별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의 표현 유형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성별 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불필요한 성별 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 비하’의 표현 유형 순으로 나타났다.

글 범주별로 차별적 표현의 사례 수를 살펴보면 신문의 경우 기사, 광고, 의견의 순으로 많았지만, 방송의 경우 연예오락, 뉴스, 시사교양, 광고 순으로, 인터넷의 경우 뉴스, 광고, 정보의 순으로 많았다. 분야별로는 사회 분야에서 여성 차별적 표현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주로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이 많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문화, 연예오락, 스포츠 분야에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부분의 매체에서 특히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와 ‘선정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분야에서는 남성 차별적인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평등 의식교육 및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이번 사례조사 전반에 걸쳐 성차별적 언어 표현이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는 성별간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남성에게 정형화된 고정관념을 강

조하는 성차별적 사례들도 상당수 발견되었다. 특히 방송 연예오락, 스포츠 분야에서는 남성 비하적 표현이나 선정적인 표현들도 많았다.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남성에게 정형화된 성역할 기대나 이러한 기대에 벗어난 남성에게 가해지는 회화화와 비하적 표현들도 함께 줄여 가는 것 역시 언어에서의 성평등 향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이번 사례조사에서는 여성 차별적 언어 표현뿐만 아니라 남성 차별적 언어 표현들을 동등하게 조사하였다는데 의의가 크다.

#### 나. 성평등한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

본 연구를 위한 신문, 방송, 인터넷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성별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성별 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불필요한 성별 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의 비하적 표현 등 다양한 유형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언어 표현은 성별간의 편견과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성별간의 갈등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통합에 저해가 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대중매체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바꾸어 가는 것은 성차별적 언어 표현 관행의 개선, 새로운 언어 표현의 개발, 성별의식의 변화, 사회의 변화 등이 동시에 일어나야 가능한 일이므로 여기서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관행의 개선, 대체 언어 표현 개발, 제도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 등으로 나누어 성평등한 언어 표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 1) 성차별적 언어 사용 관행의 개선

대중매체에서 성차별적 언어 표현은 이들 표현이 일상적으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쓰여 왔기 때문에 이것이 성차별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차별적인 언어 표현이 관행적으로 쓰이는 것은 성차별적 표현 유형별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관행은 여성과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하는 것,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언어, 여성과 남성을 자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성적, 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호칭의 불균형, 남녀 비하 등은 많은 경우 출연자나 매체관련 종사자가 이것을 성차별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 때문일 수 있

다. 이러한 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들이 필요하다.

### 가) 성별화된 언어 표현의 최소화

대중매체에서 사용되는 성차별적 표현들 가운데는 성별 고정관념적 속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묘사하는 것이나 성별을 호명할 때, 남성을 먼저, 여성을 뒤에 두어 호명하거나 여성에 대해서만 따로 성별을 밝히는 관행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미녀새 이신바예바”, “피겨요정 김연아” vs. “탱크 최경주”,  
“보디빌더 박수희, 얼굴은 ‘순정만화’, 몸은 ‘액션만화’...”
- “우리나라에서는 조인성, 여배우 임수정이 초청받았고,...”
- “권력의 비호를 받은 신정아(여, 35)씨의 권력비호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이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개인비리 혐의로 수사를 확대”

### 나) 과도한 외모관련 표현의 자제

대중매체에서 지나친 외모 관련 표현들은 외모지상주의를 낳고, 이에 대한 빈번한 표현은 여성 및 남성에게 ‘여성은 잘 생기거나 예뻐야 하고’, ‘남성은 키 크고, 우람해야 한다’는 등의 성별화로 구분된 왜곡된 신체이미지를 이상화하게 함으로써 성차별적 의식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들 표현들의 사용을 자제 하도록 노력해 한다.

- 여성의 경우: “개미허리”, “뽕뽕미녀” “S 라인”, “얼짱”, “섹시 외모”
- 남성의 경우: “조각미남”, “명품 복근”, “초콜릿 복근”, “키다리 아저씨”

### 다) 긍정 및 부정적 성역할 고정관념의 검열

아무리 바람직한 속성에 관한 표현일지라도 성역할 이분법적인 고정관념과 결부되어 사용되어질 때는 특정 성에게 그러한 역할이 바람직한 것임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 번 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사례가 고정관념적 속성의 강조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성별 이분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들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이 은밀하고 간접적인 성차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긍정적 의미를 갖는 언어 표현이라 하더라도 특정 성역할 고정관념적으로 결부되어 사용될 때도 성차별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언어 표현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 여성의 경우

긍정 유인가: “옛된”, “여성스러운”, “순결한”, “청순한”, “천상여자”

부정 유인가: “여시”, “양공주”, “탕녀”, “매춘부”

○ 남성의 경우

긍정 유인가: “대장부”, “천상사내”, “진짜 사나이”, “터프가이”

부정 유인가: “소심 남”, “마마보이”, “약골”, “속 좁은”

**다) 비하적 표현의 순화 및 금지**

특정 성을 비하하는 언어 표현들은 순화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성차별적 언어 표현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일이다. 이 연구의 사례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여성 비하의 성차별적 표현이 남성 비하의 경우보다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비하적 표현은 대개 신조어들이거나 전통적인 가부장 중심적인 인식에 기초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신조어의 경우 불필요한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큰 실정이다.

○ “사모님식 투자” → “주먹구구식 투자”

○ “미망인” → “고 ○○○의 부인”

○ “된장녀”, “○○녀” → (X)

○ “돌진남”, “○○남” → (X)

- “과부”, “홀아비” → (X)
- “가시나”, “지지배”, “걸레” → (X)
- “자연산” → (X)
- “내연녀”, “내연남” → (X)

### 라) 기존 대안적 표현의 활성화

그동안 여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및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중매체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대안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들의 활동을 통해 훌륭한 대안적 표현들이 상당수 제시되어 왔으나 대중매체 제작 및 종사자, 출연자이 이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대안적 표현들은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표현이거나 성적 대상으로서의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이미 사회적 또는 여성계 내부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는 기존의 대안적 표현들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 “경제학의 대가 애덤 스미스”
- “매춘부”, “윤락녀” → “성매매 여성”
- “양공주” → “기지촌 성매매 여성”
- “레이싱걸” → “레이싱 모델”, “경주 도우미”
- “편모 편부” → “한부모”
  - ☞ 부정적 사안의 경우 남녀 순서가 바뀌는 문제가 대안이 필요하나, 여전히 호명순서의 문제가 있음.
- “처녀작”, “처녀항해” 등 접두사 ‘처녀’ → “첫 작품”, “첫 항해”
- “집사람”, “안사람”, “아내”, “바깥양반” → “배우자”

### 2) 대체 및 새로운 표현 개발의 필요

언어란 곧 문화적 산물이자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회적 공기(公器)이

기도 하다.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개선을 위해서는 성중립적이고 성평등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대안적 언어 표현을 부단히 개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는 어느 한 성의 주도적인 노력만으로 혹은 학계나 정부, 언론의 노력만으로도 분명 한계가 있고, 이들 다수가 공감하고 사용이 편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공감과 편리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의 의식차원의 변화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될 것이므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연구의 경우, 언어학적 연구이기보다는 여성학적, 심리학적 연구에 중심이 두어진 것으로, 새로운 대안 언어 개발에 분명한 제한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대안언어 개발의 필요성과 몇 가지 예시에 머물기로 한다.

#### 가) 중성적 표현으로

남성 지칭하는 단어로 여성을 통칭하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중성적인 표현으로 바꾼다.

- “얼굴마담”, “바지사장” → “대리사장”, “명의사장”
- “신사협정” → “명예협정”
- “내연녀”, “동거녀”, “동거남” → “내연인”, “동거인”

#### 나) 양자 동등한 명명으로

통칭어의 경우 여성이 가시화 되지 못하거나 남성이 가시화되지 못하는 많은 사례가 있다. 예컨대, 여성 대통령의 남편이나 여성 직장상사의 남편에 대해 일반인이 호칭할 적절한 표현 방법이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두 성 모두 동등한 호칭이 되도록 중성적 명명, 양자명명, 혹은 새로운 표현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학부형” → “학부모”
- “영부인” → “대통령의 부인”
  - ☞ 이런 경우 대통령이나 총리의 남편의 경우 어떻게 호칭하는 것이 좋은가?  
“대통령의 남편”, “총리의 남편”

- “사모님” → (?)
  - ☞ “여성 직장 상사의 남편”을 호칭할 때는 “사부님(?)”
- “소년원” → (?)
  - ☞ 나이어린 청소년 범죄자의 수용소를 지칭하는 것이나 사회적 의미로는 나이어린 소녀 범죄자가 배제된 것으로 오해 됨.
- “아내”, “집사람”, “안식구”, “바깥양반” → (?)
  - ☞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적인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 표현임, 의미의 전용이 이루어진다고는 하나, 여전히 대표적 성차별적 표현으로 간주됨

#### 다) 성별에 근거한 호명순서 피하기

양자명명이 이루어지더라도 항상 남성이 여성이 앞선다면 성차별성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성별 대신 지위, 연령, 기호순과 같은 여타 객관적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아버지, 어머니” → “어머니, 아버지” 혹은 “아버지, 어머니”를 번갈아 사용
  - ☞ “할아버지, 할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혼용할 것을 권장함
- “소년소녀” → “소녀소년”
- “이인제, 신국환, 김민석, 장상 후보의 4파전” → “기호 순으로” 혹은 “가나다 순”
  - ☞ 이 사례는 성별 기준이었음

### 3) 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제언

#### 가) 성평등한 미디어 언어 정착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즉, 성 정형화된 미디어의 대안으로 비정형화된 묘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들 프로그램이나 해당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매체들만의 한정된 모니터링에 벗어나, 성평등한 대안매체를 발굴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로 활용하는 정책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매체 관련 소수자 보호정책의 유기적 협조와 연계가 필요하다. 즉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의 협의체를 상설화함으로써,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과 이들 가이드라인이 효과적으로 가동 될 수 있도록 연계적인 성과보고회 등의 활동이 병행 될 필요가 있다.

#### 나) 언론사의 노력

성평등한 미디어 언어 표현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 언론사의 노력과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언어 표현이 갖는 부작용들을 직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각 언론사의 책임의식이 따라야 할 것이다.

성평등한 언어 표현이 정착되려면 우선 기자 및 제작자의 성평등의식과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정례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열원칙 및 편집원칙에서 매체 언어에 대한 성평등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 특히 언론사의 상업주의적인 접근은 성을 이미지화하거나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를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부 언론사를 중심으로 호칭에 의한 남녀 구분을 피하고자하는 엄격한 교열원칙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들 사례들을 더욱 부각시켜 널리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겠다.

#### 다) 학계 및 NGO의 노력

성평등한 언어 표현이 사회 저변에까지 확산되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평가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평등 언어 표현에 대한 미디어 모니터링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미디어 모니터링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일반 시민의 의한 감시기능도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는 한 개인의 활동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니만큼 학계와 NGO 등의 보다 높은 관심이 요청된다. 이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활성화 되고, 이들의 연대와 세력화는 곧 성불평등적인 미디어 환경을 개선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사회 환경적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친 성별화된 의식구조와 문화가 성평등한 방향으로 바뀌어져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판적인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확대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매체 종사자들의 교육이 활성화 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라) 성평등 교육 및 평등규범 가치의 확산

성평등한 언어표현이 대중매체에서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정착되기 위해서는 각급 교육기관의 교재에서 성평등한 표현이 전제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말사전을 비롯한 외국어 사전 편찬에서도 성인지적인 관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개발된 대안적 표현이 교과서, 사전, 법률 등에도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에서는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온정적인 형태이고 일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들 가운데서도 성차별적인 의미가 내포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민감성을 갖도록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들에게도 이러한 표현을 성차별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평등규범의 가치를 부여하는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위반하는 사례들에 대한 시민 사회의 감시와 모니터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성차별적인 언어 표현에만 국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수집단들 즉 장애인, 결혼이주자,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사회적 오점자로 대우 받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표현하는 언어들에서의 개선을 의미하며, 이들 소수집단들에 대한 다양성과 관용의 언어 표현들로 만들어 가는 노력들이 전개될 때, 비로소 우리말이 보다 객관적이고 사회 통합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덕호 (1996). 언어와 성의 사회인식적 상호관계: 독일어의 미혼여성 호칭 Fräulein의 부침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5, 101-127.
- 김중수 (2004). 언어에서의 성차별과 해결방안: 독일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26, 227-249.
- 김혜숙 (2007).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성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여성가족부·국립국어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토론회.
- 김혜숙 (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 1, 1-33.
- 노미영 (2005). 교사 언어 속에 나타나는 성차별 연구: 성역할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현식 (1998). 국어 남녀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 5, 2, 529-587.
- 박육현 (1998). 언어에 나타나는 성차별 현상. 언어와 언어교육, 13, 53-72.
- 박은희 (1999). 방송과 시청자 주권. 매스미디어탐구, 9-11.
- 박정숙 (2001). TV미디어에 반영된 한국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고찰. 여성연구논총, 16, 143-171.
- 안상수·김혜숙·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17-38.
- 윤운영 (2003). 언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부산여자대학교 여성연구, 8, 105-119.
- 이수연 (2002). 성차별 개선을 위한 텔레비전 모니터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 이수연 (2003). TV광고의 성차별 현황에 대한 모니터 결과 보고서. 여성가족부.
- 이수연·김양희 (2001). 남녀평등확산을 위한 방송심의용 가이드라인. 여성가족부.
- 이수연·안상수·박경희·강혜란·윤정주 (2006). 성평등한 미디어 언어 개발을 위한 모니터링 및 연구. 여성가족부.
- 이정복 (2007). 한국어 사전에 나타난 성차별 언어 연구. 한국어학, 34, 257-300.
- 이춘아·김이선 (1997). 성차별적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여름호, pp. 203-232.
- 정상현 (1993). 언어적 성편견현상에 대한 관점과 그 논거. 언어과학연구, 12, 209-235.
- 줄리아 우드, 한희정 옮김 (2006). 젠더에 갇힌 삶: 젠더,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Gendered Lives*),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차현실 (1999). 광고문에 나타난 여성의 성차별적 사회인식, 이화어문논집.
- 최용선 (2003). 성별에 따른 영어사용상의 차이·차별에 대한 연구. *새한영어영문학*, 45, 1, 269-292.
- 최혜원 (1988). 영어에 나타난 성 비대칭 요소. *Minerva*, 23, 14-27.
- 최혜정 (1998). 국어에 나타난 성차별적 표현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개발원 (1997). 남녀평등의 이해. 서울: 한학문화.
- 황성철 (1997). 성차별문제에 대한 대체적인 접근과 전략. 부산여자대학교 논문집, 44, 189-204.
- Archer, J. & Lloyd, B. (1985). *Sex and Gen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overman, I. K. (1972). Sex role stereotype: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28, 2, 59-78.
- Crandall, C. S., Eshleman, A., & O'Brien, L. O. (2002). Social norms and the expression and suppression of prejudice: The struggle for intern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359-378.
- Devine, P. G. (1989). Stereotypes and prejudice: Their automatic and controlled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18.
- Guentherodt/Hellinger/Pusch/Trömel-Plötz(1980). Richtlinien zur Vermeidung sexistischen Sprachgebrauch. In *Linguistische Berichte*, 69, S. 15-21.
- Jespersen, O. (1922).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 Lakoff, R (1973). Language and woman's place. *Language in Society*, 2, 45-79.
- MacQuail, D. (1987). *Mass communication theory: An introduction (2 Eds,)*. London: Sage
- McGhee, P. E. & Frueh, T. (1980). Television viewing and the learning of sex-role stereotypes. *Sex Roles*, 6, 179-188.
- Penelope, J. (1990). *Speaking freely: Unlearning the lies of the fathers' tongues*. Pergamon Press.
- Rosenwasser, S. M., Lingerfelter, M., & Harrington, A. F. (1989). Nontraditional

- gender role portrayals on television and children's gender role perception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0, 97-105.
- Shaffer, D. R.(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 Adolescence, fifth edition*. 송길연, 김수정, 이지연, 양돈규 공역(2000)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Signorielli, N. & Lears, M. (1992). Children, television, and conceptions about chores: Attitudes and behaviors. *Sex-Roles*, 27, 157-170.
- Swann, W. G., Jr. (1990). To be adored or to be known? The interplay of self-enhancement and self-verification.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Vol. 2). New York: Guilford.
- Tajfel, H. (1974).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ehaviour. *Social Science Information*, 13, 65-93.
- Trömel-Plötz, S. (1982). The construction of conversational differences in the language of women and men. *Paper presented at the 10th World Congress in Sociology*, Mexico City, August 1982.
- Vygotski, L. S.(1962).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lt;부록 1&gt; 1. 결과 종합

총계	신문	방송	인터넷	
5116	2402	1757	957	
신문 총계	조선	중앙	한겨레	
2402	1065	369	968	
방송 총계	KBS1	KBS2	MBC	SBS
1757	281	629	471	376
인터넷 총계	네이트	다음	네이버	
957	480	214	263	

대분류	중간분류	소분류	건수
가. 성별언어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① 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를 모두 포괄	①-1 남성형으로 여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138
		①-2 여성형으로 남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22
	② 호명순서의 불균형: 호명순서가 성차별적인 경우	②-1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	1677
		②-2 여성이 남성보다 앞서 호명되는 단어	40
나. 불필요한 성별 강조	① 여성 혹은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대체적으로 직업을 지칭함)	①-1 여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514
		①-2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16
	② 성역할이나 성별 속성을 고정관념화하거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 맞지 않은 여성(남성) 인물의 예외성 강조	②-1 여자의 예외성	45
		②-2 남자의 예외성	20
다.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① 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①-1 여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557
		①-2 남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257
	② 한 성과 관련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언어	②-1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여성관련 언어	896
		②-2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남성관련 언어	202
라. 선정적 표현	① 특정 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①-1 여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229
		①-2 남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70
	② 특정 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②-1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227
		②-2 남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18
마. 특정 성 비하	단어 선택 자체에서 비하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 반말이나 미성숙하고 유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① 여성비하	159
		① 남성비하	29
총계			5116

## 2. 매체별

### (1) 신문

신문 총계		조선	중앙	한겨레			
2402		1065	369	968			
총계		기사	의견	광고			
2402		1550	304	548			
총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예오락	기타
1550	100	95	468	137	179	160	411
대분류	중간분류		소분류				건수
가. 성별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① 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를 모두 포괄	①-1 남성형으로 여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1213	1108	68		
		①-2 여성형으로 남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17		
	② 호명순서의 불균형: 호명순서가 성차별적인 경우	②-1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			20		
		②-2 여성이 남성보다 앞서 호명되는 단어			20		
나. 불필요한 성별 강조	① 여성 혹은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대체적으로 직업을 지칭함)	①-1 여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294	256	256		
		①-2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8		
	② 성역할이나 성별 속성을 고정 관념화하거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 맞지 않은 여성(남성) 인물의 예외성 강조	②-1 여자의 예외성			24		
		②-2 남자의 예외성			6		
다. 고정관념적속성 강조	① 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①-1 여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702	458	105		
		①-2 남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65		
	② 한 성과 관련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언어	②-1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여성관련 언어			74		
		②-2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남성관련 언어			74		
라. 선정적 표현	① 특정 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①-1 여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107	38	49		
		①-2 남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18		
	② 특정 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②-1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2		
		②-2 남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2		
마. 특정 성 비하	단어 선택 자체에서 비하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 반말이나 미성숙하고 유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① 여성비하	86	71	71		
		① 남성비하			15		
총계							2402

(2) 방송

방송 총계	KBS1	KBS2	MBC	SBS			
1757	281	629	471	376			
총계	뉴스	시사교양	연예오락	광고			
1757	401	387	619	350			
총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예오락	기타
401	14	1	219	25	105	20	17
대분류	중간분류	소분류	건수				
가. 성별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① 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를 모두 포괄 ② 호명순서의 불균형: 호명순서가 성차별적인 경우	①-1 남성형으로 여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36				
		①-2 여성형으로 남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4				
		②-1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	394				
		②-2 여성이 남성보다 앞서 호명되는 단어	18				
나. 불필요한 성별 강조	① 여성 혹은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대체적으로 직업을 지칭함) ② 성역할이나 성별 속성을 고정 관념화하거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 맞지 않은 여성(남성) 인물의 예외성 강조	①-1 여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175				
		①-2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8				
		②-1 여자의 예외성	19				
		②-2 남자의 예외성	13				
다.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① 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② 한 성과 관련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언어	①-1 여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175				
		①-2 남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148				
		②-1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여성관련 언어	388				
		②-2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남성관련 언어	93				
라. 선정적 표현	① 특정 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② 특정 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①-1 여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86				
		①-2 남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35				
		②-1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82				
		②-2 남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13				
마. 특정 성 비하	단어 선택 자체에서 비하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 반말이나 미성숙하고 유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① 여성비하	58				
		① 남성비하	12				
총계			1757				

(3) 인터넷

인터넷 총계	네이트	다음	네이버
957	480	214	263

총계	뉴스	정보	광고
957	647	77	233

총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예오락	기타
647	9	14	113	15	175	209	112

대분류	중간분류	소분류	건수	
가. 성별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① 한 성을 통칭하여 남녀를 모두 포괄	①-1 남성형으로 여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212	34
		①-2 여성형으로 남성까지 대표하는 단어		1
	② 호명순서의 불균형: 호명순서가 성차별적인 경우	②-1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에 앞서 호명되는 단어		175
		②-2 여성이 남성보다 앞서 호명되는 단어		2
나. 불필요한 성별 강조	① 여성 혹은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대체적으로 직업을 지칭함)	①-1 여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86	83
		①-2 남성임을 불필요하게 표현		0
	② 성역할이나 성별 속성을 고정관념화하거나 성별 이분법을 전제로 하여 여기에 맞지 않은 여성(남성) 인물의 예외성 강조	②-1 여자의 예외성		2
		②-2 남자의 예외성		1
다.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① 한 성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①-1 여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406	277
		①-2 남성의 특정 속성을 불필요하게 강조하는 언어		44
	② 한 성과 관련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언어	②-1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여성관련 언어		50
		②-2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포함하는 남성관련 언어		35
라. 선정적 표현	① 특정 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①-1 여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221	94
		①-2 남성을 자극적으로 표현		17
	② 특정 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②-1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107
		②-2 남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한 표현		3
마. 특정 성비하	단어 선택 자체에서 비하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 반말이나 미성숙하고 유치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① 여성비하	32	30
		① 남성비하		2
총계				957

## &lt;부록 2&gt; 인터넷뉴스 출전

출전	건수
게임동아	2
게임조선	1
경향신문/경향닷컴	10
고뉴스	10
국민일보	1
나비뉴스	2
노컷뉴스	21
뉴스엔	30
뉴시스	26
데일리서프라이즈	2
데일리안	2
동아일보	44
동아e-tv 로이더통신	1
디스이즈게임	1
리뷰스타	8
마이데일리	21
매거진t	2
매일경제	17
머니투데이	8
문화일보	4
부산일보 런던로이더연합	2
서울신문	6
세계일보	5
소년한국	2
스포츠조선	23
스포츠동아	3
스타뉴스	5
스포츠 서울	23
스포츠 칸	9
스포츠코리아	1
스포츠한국	4
스포탈코리아	3
아시아경제	1
아이뉴스24	4
엑스포츠투스	1
엠군(미디어다음 이시각 연예뉴스 동영상)	1
연합뉴스	30
오마이뉴스	7
이데일리	7
인쿠르트 일과사람	5

132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일간스포츠	17
일요신문	1
전국매일	1
조선일보/조선닷컴	20
조이뉴스	4
주간한국	1
중앙일보	67
미디어다음/카이저의 야구스페셜	2
캐스트넷	2
쿠키뉴스	2
투데이코리아	1
파이낸셜뉴스	1
팝뉴스	1
프레시안	3
플라마	1
한겨레	6
환경비즈니스	1
한국경제	34
한국일보	14
헤럴드 경제	3
헤럴드 생생뉴스	2
CNB뉴스	1
GG게임	1
mfight	4
OSEN	21
SBS TV	6
tv리포트	8
YTN	2
YTN TV	1
YTV	1
YTN STAR	3
미확인	58
총계	647

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

2007년 12월 27일 인쇄

2007년 12월 29일 발행

발행인 : **이 상 규**

발행처 : **국립국어원**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

전화 / 02-2669-9775

팩스 / 02-2669-9727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발간등록번호 11-1370252-000099-01